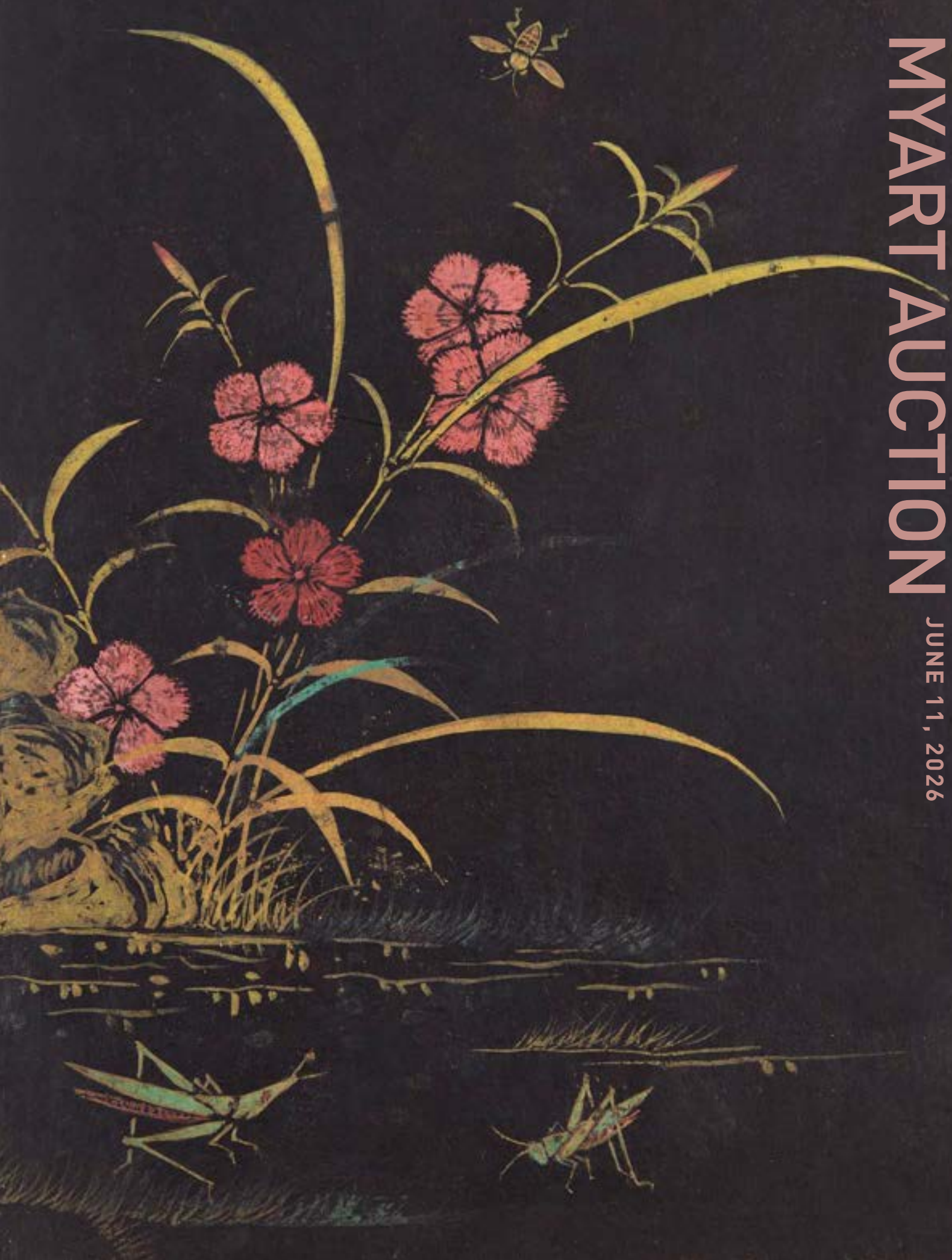


MYART AUCTION

JUNE 11, 2026





(주) 마이아트옥션 제60회 메이저 경매

발 행 처 (주) 마이아트옥션
발 행 2026년 06월 11일

사 진 플래시큐브 스튜디오 | 남기용
디 자 인 원더디자인 | 전지원

Copyright© 2026 MYART AUCTION Inc.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주)마이아트옥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40,000

* 이 도록은 정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이 도록의 오탈자 및 오류를 알려주시면 바로 잡겠습니다.

MYART AUCTION^{60th}

제60회 마이아트옥션 메이저 경매

MAJOR AUCTION

2026.06.11 THU 4PM

LOCATION

마이아트옥션하우스 2전시장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B1

PREVIEW

2026.06.01.MON - 06.10.WED

10AM - 6:30PM

LOCATION

본관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B1, 5F

경매 주요 약관 및 안내

회원가입

(주)마이아트옥션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매는 경매약관에 의거하여 진행되므로, 응찰 희망자는 (주)마이아트옥션 경매 약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리뷰를 통해 작품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매 응찰을 위해서는 정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정회원 연회비 : 10만원)
정회원은 유료이며, 마이아트옥션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이 발송됩니다.

응찰방법

서면, 현장, 전화 응찰, 비공개 응찰이 가능하며, 서면응찰과 전화응찰은 경매 당일 오후 2시까지 응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금액 응찰 시 우선순위는 서면, 현장, 전화 순입니다.

비공개 응찰의 경우

[비공개 응찰의 자격]

마이아트옥션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마이아트옥션이 요청하는 응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응찰의 진행]

◆ 표시가 된 물품은 입찰 방식으로만 응찰하며

응찰자는 프리뷰 기간 내에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응찰서를 교부받아 입찰금액을 직접 작성하고 봉인하여야 합니다. 최소 입찰금액은 낮은 추정가를 적용합니다.

(낙찰 후에는 구매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매 수수료 및 대금 결제

구매수수료는 낙찰가의 15%(부가세 별도)입니다.

낙찰자는 낙찰가와 구매수수료를 합한 총 구매대금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에 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317-0009-8112-11 (주)마이아트옥션

작품상태 및 보증

모든 작품은 출품된 상태 그대로 판매되며, 당사에서 구매하신 작품에 대한 보증에 내용은 경매일 기준으로 3년간 유지되며, 당사에서는 작품보증서를 발부합니다. 작품의 보증내용은 (주)마이아트옥션 경매약관 제14조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시, 보증기간인 3년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 후 관련분야 전문가 2인 또는 전문기관 2곳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한 후 모든 의견이 일치할 시에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제외**

생존하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작품의 양도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낙찰 철회 시 위약금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별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당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작품 설명 자료

이 도록에서 제공하는 작품 설명(Caption) 자료의 기준과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화를 포함하여 도자, 목기, 공예품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작품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가명

아호, 성명, 한자명, 단 외국 작가는 원어

생몰년

0000- 는 현재 생존, 0000-? 는 몰년미상

작품명

작가가 정한 이름이나, 화제나 작품의 내용을 참고한 자료

제작연도

작품에 포함된 정보 또는 도록 등에 근거한 자료

형태

출품된 작품을 꾸민 방법

재질 및 재료

작품의 바탕 및 제작 재료

크기(cm)

평면 세로×가로 (표구 면이나 액자를 제외한 실제 작품 크기)

입체 높이[고高]×입지름[구경口徑]×밑지름[저경底徑] (도자기)
높이×세로×가로 (목기)

기타 얇고 긴 경우는 길이,
굴곡이 많은 경우는 높이×최대길이,
여러 점인 경우는 대표적인 작품

추정가

당사가 미술 시장의 동향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작품해설, 탈초·번역

「작품수록처」,「참고문헌」 등은 작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자료

전(傳)

작품의 경향(필치, 채색, 구도)으로 보아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하는 경우나 작품의 제작부터 판매 그리고 전시기록, 도록 등의 출처(Provenance)가 분명한 경우, 소장인, 감장인, 제발, 배관기 등 내력이 분명한 경우나 관지 인장이 있는 경우라도 전(傳)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추정은 가능하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탈초, 번역

특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탈초, 번역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작가 및 작품명 가나다순

회화·서예					
강세황 姜世晃	1713-1791	32	도석인물화첩	27	분청사기조화철화어문호
고종 高宗	1852-1919	40	산수인물도	15	분청사기철화당초문완
김구 金九	1876-1949	46	산수인물도	16	서수형토기
김두량 金斗樑	1696-1763	23	서경전도	48	서수형토기 2점
김명국 金明國	1600-1663 이후	13, 14	서수도	41	석간주어형연적
김유성 金有聲	1725-?	10	소상팔경도 8폭병풍	9	청자상감포도동자문표형주자
김정희 金正喜	1786-1856	35	연행사행령도	8	청자양각모란당초문반침
김준근 金俊根	?-?	6	용호도 대련	24	청자음각초화문화형잔
김홍도 金弘道	1745-1806?	28, 31	월하맹호도	25	청자철화사자형문진
문경동 文敬全	1457-1521	17	이원구 초상	36	청자철화역상감모란당초문합
박정희 朴正熙	1917-1979	45	자수괴석화접도	42	
박지원 朴趾源	1737-1805	34	지두화조도 8폭병풍	33	
변관식 卞寬植	1899-1976	4	천하총도	47	
변지순 卞持淳	?-?	5			
신사임당 申師任堂	1504-1551	20			
신잠 申潛	1491-1554	19			
신헌 申櫳	1810-1884	37			
양팽손 梁彭孫	1488-1545	18			
영조 英祖	1694-1776	12			
윤급 尹汲	1697-1770	12			
이공우 李公愚	1805-1877	39			
이기룡 李起龍	1600-?	22			
이상범 李象範	1897-1972	1, 2, 3, 44			
이원찬 李元燾	?-?	7			
이인문 李寅文	1745-1824 이후	26			
이징 李澄	1581-1653 이후	21			
이택균 李宅均	1808-1892	30			
이하응 李奎應	1820-1898	39			
전기 田琦	1825-1854	38			
정선 鄭敼	1676-1759	11			
정조 正祖	1752-1800	29			
허백련 許百鍊	1891-1977	43			

INDEX

작자미상

분청사기조화철화어문호	55
분청사기철화당초문완	67
서수형토기	72
서수형토기 2점	73
석간주어형연적	50
청자상감포도동자문표형주자	57
청자양각모란당초문반침	59
청자음각초화문화형잔	51
청자철화사자형문진	56
청자철화역상감모란당초문합	58

가구·공예

구족연상	77
나전주칠투각포도문경상	82
산형필가 2점	75
삼층책장	83
수복문안경집, 안경	74
여의두문경상	80, 81
출품취소	78
투각은입사장생문화로	79
화형반	76

도자

백자철화명기 3점	68
백자철화명기 5점	70
백자철화화당초문완	69
백자청화모란문'수'명잔	52
백자청화보상화문'상실'명접시, 백자청화보상화문'상실'명대접	60
백자청화산수문병	64
출품취소	65
백자청화산수어해문접시	54
백자청화운룡문호	61, 62
백자청화철화금강산형연적	66
백자청화편복문사각소병	53
백자투각파초문필통	63
백자화형연적	49
분청사기담병철화초문편병	71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도록 후면에 게재된 경매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회화·서예

繪畫·書藝

PAINTING·CALLIGRAPHY

Lot.001 - 048

청전 이상범

靑田 李象範 Yi SangBom

1897-1972

청전 이상범(靑田 李象範, 1897-1972)은 근대기 한국 산수화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화가이다. 남종화 기법을 바탕으로 전통 산수화를 계승하면서 주로 농촌과 산촌의 풍경을 소재로 삼아 향토적인 정서를 강조하였다. 인적 드문 산골의 개울가, 초가집, 농기구를 지고 가는 농부,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정네의 모습 등 당시 한국 시골의 풍물을 담은 듯한 사실성과 이상화된 자연을 운치 있게 담아냈다. 수묵의 농담 효과와 붓끝을 세워 절대준법을 응용한 갈필의 반복으로 리듬감 있게 표현하였다. 또한 주로 낮은 시점에서 넓게 펼쳐지는 평원 구도를 즐겨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확장된 풍경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1950년 이후 '청전 양식'이라는 한국적 산수의 정취를 근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하였다.

청전 이상범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19세부터 서화미술회靑畫美術會의 심전 안중식安中植, 소림 조석진에게서 서화를 익혔다. 1918년 서화협회의 창립회원으로 미술강습소 운영, 전시에 참여했으며 1923년 변관식(卞寬植, 1899-1976), 노수현(盧壽鉉, 1899-1978), 이용우(李用雨, 1902-1952) 등과 함께 동연사同研社를 조직하여 전통화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미술기자로서 많은 삽화를 남기는 등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로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1. 이태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시, 『공주의 화가, 청전 이상범』, 마로니에북스, 2023.
2.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韓國現代美術史)』, 열화당, 1979.



[사진출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2011.

001

청전 이상범 1897-1972

靑田 李象範 Yi SangBom

하경산수 夏景山水 Landscape

1958

액자 Fra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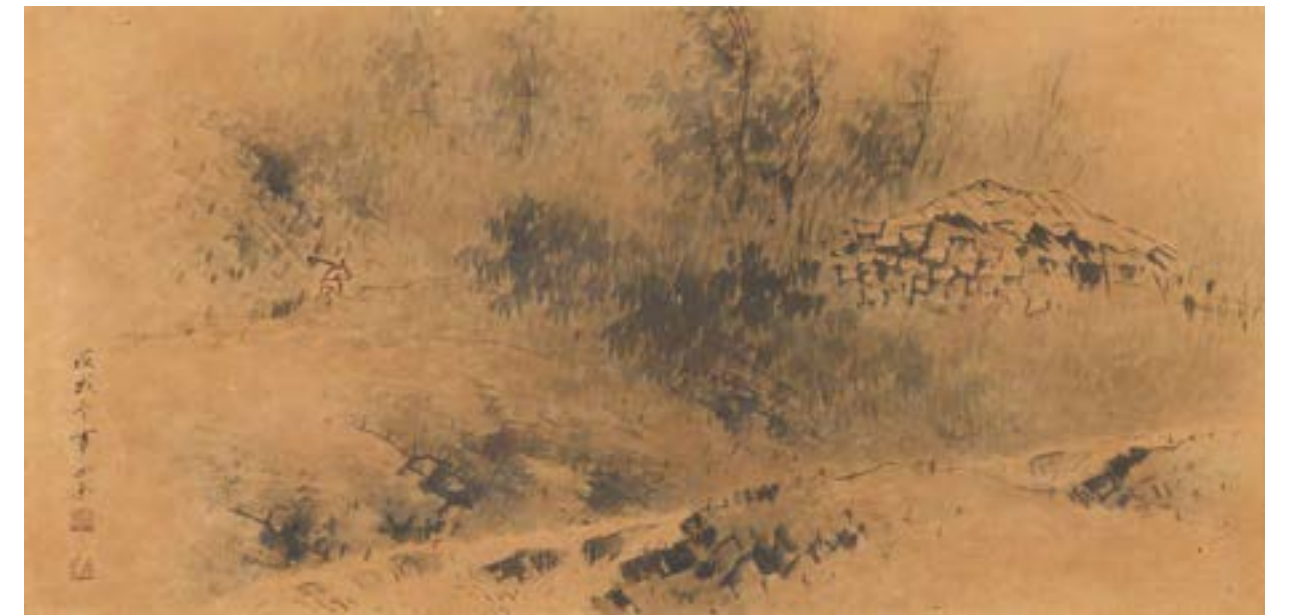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9.6×59.7cm

₩ 4,500,000-8,000,000

戊戌冬靑田畫 무술년(1958) 겨울 청전이 그린다.

[인문] 象範, 靑田



002

청전 이상범 1897-1972

靑田 李象範 Yi SangBom

靑田 청전

[인문] 象範, 靑田

춘경산수, 추경산수 春景山水, 秋景山水 Landscape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61.2×31.2cm

₩ 8,000,000-16,000,000



003

청전 이상범 1897-1972

靑田 李象範 Yi SangBom

寒林暮雪 석양에 내려앉은 눈
己亥冬 기해년(1959) 겨울
靑田 청전

[인문] 象範, 靑田

한림모설 寒林暮雪 Landscape

1959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6.3×37.7cm

₩ 8,000,000-16,000,000



004

소정 **변관식** 1899-1976

小亭 卞寬植 Pyon KwanSik

추산누각 秋山樓閣 Landscape

1968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33×62cm

₩ 4,000,000-8,000,000

秋山樓閣 가을 산중의 누각
戊申冬日 무신년(1968) 겨울날
小亭 소정

[인문] 光風霽月, 寬植, 小亭



005

해부 **변지순** ?-?

海夫 卞持淳 Pyon JiSoon

목가도 牧歌圖 Genre Scene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2.5×31cm

₩ 15,000,000-30,000,000

野水鳴漁箔 들물은 어부의 통발에 울리고
秋花入馬薊 가을꽃은 말먹이로 들어가네
海夫 해부

[인문] 三韓遺士, 卞氏, 稚和

변지순은 시가와 서화에 능한 중인中人인사로서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의 화풍을 주로 구사하고 산수, 화조 등 여러 장르의 회화에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던 화가로 알려져 있다. 변지순은 18세기 후반을 풍미했던 여러 남종화풍을 학습하고 이를 자기화하여 자신만의 화풍으로 그렸다.

본 작품에서는 김홍도의 화풍이 엿보이나, 남종화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표현하였다. 한가로운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의 모습은 간결한 구성, 산뜻한 색채, 활달한 미점 등을 구사하였다. 사의성寫意性 짙은 필법, 과감하고 생략적인 화면 구성 등을 통해 작가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성훈, 「海夫 卞持淳과 19세기 전반 동래 지역 화단」, 『美術史學研究』 278, 韓國美術史學會, 2013.



006

기산 김준근 ??

箕山 金俊根 Kim JunGeun

노안도 蘆雁圖 Geese and Reeds

축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117.9×7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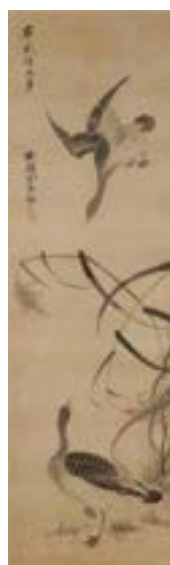
₩ 6,000,000-15,000,000

水碧沙明兩岸蒼 물은 푸르고 모래는 밝고 양 언덕엔 이끼일세
大韓國金俊根 대한국 김준근

[인문] 決明館

기산 김준근(箕山 金俊根, ?-?)은 19세기 말 원산과 부산 등의 개항장에서 서양인들에게 주로 조선의 풍속화를 그려 판매하였던 화가로 알려져 있다.

본 작품은 기러기와 갈대를 그린 그림으로 물가의 기러기가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뒤로 갈대가 있다. 노안도蘆雁圖는 한자 '노안蘆雁'과 '노안老安'의 발음이 비슷하여 노후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조선 말기에 다수 그려졌다. 왼쪽 상단 화제는 당나라 전기錢起의 시 <돌아오는 기러기[歸雁]>에 나오는 구절이 적혀있다.



[참고도판]
김준근, <노안도>, 조선, 비단에 먹,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구입 9614).

007

이원찬 ^{??}

李元燾 Lee WonChan

죽하맹호도 竹下猛虎圖 Ferocious Tiger Under Bamboo

액자 Framed
비단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Silk
101×35.5cm

₩ 15,000,000-30,000,000

[인문] 士〇, 李元燾印

이원찬(李元燾, ?-?)의 <호도>는 국립해양박물관 소장품,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 소장품, 독일 베를린 국립아시아미술관 소장품 등이 현전한다. 이들 작품은 모두 일본 요청으로 제작되었고 이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원찬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이나, 그에 관한 기록은 19세기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 편찬된 『고화비고古畫備考』 권51, 「조선서화전朝鮮書畫傳」에서 확인된다.

일본 소장본과 독일 소장본은 종이에 채색이며 배경 없이 단독으로 호도가 구성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은 호랑이를 중심으로 근경, 중경, 원경 모두 표현하였다. 산과 물을 함께 그려 넣었고 바위 절벽에 포효하는 호랑이를 구성하였다.

본 작품은 세 작품의 특징을 적절하게 더한 그림이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호도>와 같이 비단을 바탕으로 하고 배경에 자연물을 그려 넣었으며, 호랑이 모습은 독일 소장본과 일본 소장본의 호랑이 얼굴 묘사와 몸통 무늬, 늘어뜨린 꼬리, 다리를 앞으로 뻗은 표현이 유사하다.

본 작품은 이원찬의 <호도>에서 보이는 세부적인 특징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콧등에서 이마로 이어지는 특유의 문양과 둥글게 표현된 눈썹, 오른쪽을 쳐다보는 눈, 두툼한 앞발까지 유사하다. 호랑이 모습을 확대하고 화면에서 벗어난 구성으로 슬그머니 다가오는 장면을 상상하게 하며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은 일본으로부터 입수된 문화유산으로 조선통신사 관련 작품일 개연성이 높다 생각되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208호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이정은, 「이원찬의 단일구성 <호도(虎圖)>로 본 조선통신사 회화교류」, 『조선통신사연구』36, 조선통신사학회, 2023.



- [참고도판]
1. 이원찬, <호도>, 조선, 92.6×52.8cm, 종이에 채색,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 소장.
 2. 이원찬, <호도>, 조선, 118.5×53.8cm, 종이에 채색, 독일 베를린 국립아시아미술관 소장(2009-209).
 3. 이원찬, <호도>, 조선, 97.5×35.3cm, 비단에 채색,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008

연행사행렬도

燕行使行列圖
Procession of the Yeonhaeng Envoys

축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채색 Color on Silk
38×99cm

₩ 50,000,000-100,000,000

본래 조금 더 긴 횡축의 권자본으로, 현재는 절단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경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비단이며, 화면의 내용은 중국의 연경燕京으로 가는 조선 연행사 일행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행렬의 선두집단이 건너고 있는 다리는 장식되어있는 난간으로 보아 연경 시내 혹은 자금성 내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화면 중앙에 X자로 줄기를 교차한 두 그루의 소나무가 실경을 담은 듯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본 작품의 목적이 사신의 정확한 기록이었음을 시사한다.



- [수록처]
1. 富山美術館, 『李朝の繪畫: 坤月軒コレクション』, 1985, No.15.
 2.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42.
 3. 포스코미술관, 『THE HIDDEN CHAPTER-오백 년 만에 돌아온 조선서화』, 2025.

소상팔경도 8폭병풍

瀟湘八景圖八幅屏風

The Eight Views of Xiaoxiang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92×58cm

₩ 50,000,000-100,000,000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는 중국 호남성 동정호洞庭湖 남쪽 영릉零陵 부근에 위치한 소강瀟江과 상강湘江의 아름다운 여덟 경치를 그린 그림이다. 중국에서는 북송北宋의 이성李成에 의해 처음으로 그려졌다고 전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려시대 명종(明宗, 재위 1170-1197) 연간부터 그려져 16세기 안견파 화가들에 의해 빈번히 그려졌다. 소상팔경도는 문인들의 풍류와 감상화로 사랑받으며 조선 중기에는 허주 이징, 조선 후기에는 겸재 정선과 현재 심사정 등에 의해 그려졌고 19세기 민화로도 전해지며 사대부 계층부터 서민 대중들까지 전 계층에서 유행하였다.

소상팔경도는 주로 봄, 가을, 겨울 장면과 저녁이나 밤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시적인 분위기와 운치를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작품은 전통적인 8폭 구성을 유지하고 근경, 중경, 원경 3단 구도의 전통을 따르면서 소상 팔경의 계절 변화의 주제를 충실히 따르는 18세기 이후 소상팔경도로 추정된다. 1폭부터 어촌의 저녁노을 ‘어촌낙조漁村落照’, 2폭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 ‘소상야우瀟湘夜雨’, 3폭 먼 곳에 나간 배가 돌아오는 ‘원포귀범遠浦歸帆’, 4폭 안개 낀 절의 저녁 종소리 ‘연사만종煙寺晚鐘’, 5폭 산시의 맑고 푸른 정경 산시청람山市晴嵐, 6폭 동정호에 깃든 가을 달 동정추월洞庭秋月, 7폭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 평사낙안平沙落雁, 8폭 겨울 강촌에 내리는 눈 강촌모설江村暮雪 순서로 되어있다. 각 화면의 좌측에는 일중 김충현(一中 金忠顯, 1921-2006)이 제첩을 썼다. 김충현은 근대기 한글 서예 보급에 힘썼으며, 한글 비문 제작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첩의 내용은 ‘傳 虛舟李澄筆 漁村落照 一中觀’이라 썼는데, 김충현은 허주 이징의 전칭작으로 높게 평가했던 것 같다. 그림 속 인물들은 화면에 생기를 주며 담청색 화면에 녹, 홍, 황색의 채색은 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8폭]
江天暮雪
강천모설



[7폭]
平沙落雁
평사낙안



[6폭]
洞庭秋月
동정추월



[5폭]
山市晴嵐
산시청람



[4폭]
煙寺晚鐘
연사만종



[3폭]
遠浦歸帆
원포귀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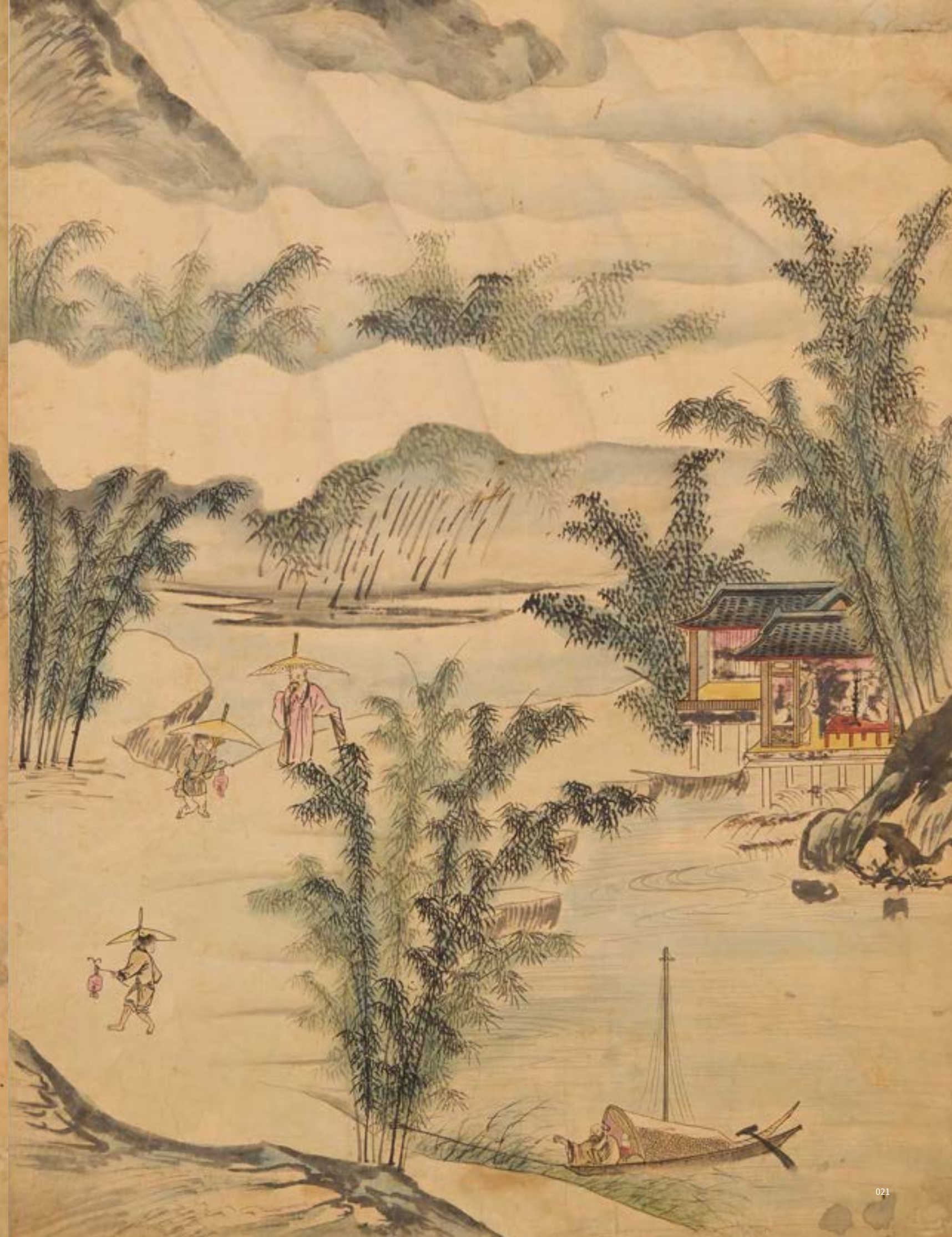
[2폭]
瀟湘夜雨
소상야우



[1폭]
漁村落照
어촌낙조

[인문] 金忠顯印, 一中

[참고문헌]
1. 박해훈, 「조선시대 소상팔경도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 전경원, 『소상팔경, 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학교출판부, 2007.



서암 김유성 1725-?

西巖 金有聲 Kim YuSeong

신야경전, 위수조은 莘野耕田, 渭水釣隱 Legendary Scene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25.8×19.8cm

₩ 30,000,000-50,000,000

서암 김유성(西巖 金有聲, 1725-?)은 조선 후기 도화서 화원으로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중옥仲玉, 호는 서암西巖이다. 전해지는 유작은 많지 않으나 남종화풍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였으며 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왕래하며 남긴 <금강산도金剛山圖>, <낙산사도洛山寺圖>에서는 격조 있는 남종화에 더해 진경산수까지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김유성의 화격畫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설경산수도雪景山水圖>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본 작품은 각각 중국 역사에서 명망있는 정치가로서 이윤伊尹과 강태공姜太公에 관한 이야기이다. 전해지는 김유성의 작품 대부분이 문인화 계열인데 반해 다수의 인물이 부각되어 있어 미적인 감상에 더해 학술적인 가치도 높다 하겠다. 화면의 크기, 구성, 양식, 인문 등으로 보아 이견희컬렉션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암화첩》에서 탈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암화첩》은 32점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및 수록처]
국립해양박물관, 『FISHING: FISH 생존 × 예술 ING』, 2023.

[참고도판]
서암 김유성, 《서암화첩》, 29.3×22.3cm, 종이에 채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건희3645).

<신야경전 莘野耕田>
중국의 최초의 명재상名宰相으로 알려져 있는 이윤伊尹은 탕왕湯王을 도와 하야나라의 포악하고 사치한 걸왕桀王을 멸망시킨 후 은殷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은나라 탕왕湯王이 신야莘野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이윤을 여진 정사로 기용한 고사古事를 그린 것으로 소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의 작품도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초상을 보여주는 구도의 그림이 있다. 탕왕의 신하가 이윤에게 벼슬을 권유하는 모습이 주된 내용이며 배경에는 가옥과 함께 괴석이 보이고 농기구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이윤이 은거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致君堯舜若己任之
나의 임금을 요순처럼 만드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고
視民塗炭若己推之
도탄에 빠진 백성을 보면 자신이 밀어넣은 것 처럼 여겼네.

[인문] 金有聲印

<위수조은 渭水釣隱>
강태공姜太公이 위수渭水에서 낚시를 하던 중에 주나라의 문왕文王이 노인의 범상치 않은 인물됨을 알아본 후 주나라의 재상으로 등용하였다고 하는 고사古事를 그린 그림이다.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낚시를 하고있는 강태공 뒤로 문왕이 서 있다. 문왕과 강태공은 고사의 내용처럼 문답을 하는 듯하며 산 너머에는 왕의 행렬이 줄지어 있다.

公心豈爲三千釣
공의 마음이 어찌 삼천 번 낚시질 하는 데에만 있겠는가
思入安民濟世功
그 생각이 백성을 편하게 하고 세상을 건지는데 있었네.
西巖寫 서암이 그린다.

[인문] 金有聲印, 西巖

011

겸재 정선 1676-1759

謙齋 鄭敼 Jeong Seon

수치탁족 漱齒濯足 The Scholar's Purification in Nature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22×29cm

₩ 60,000,000-120,000,000

漱齒濯足 이를 닦고 발을 씻다

謙齋 겸재

[인문] 謙齋

본 작품은 남송대의 학자인 나대경羅大經의 『학림옥로鶴林玉露』 가운데 「산정일장山靜日長」을 주제로 한 시의도詩意圖인 <산정일장도山靜日長圖>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나대경이 여름날 은거지에서 경치를 보고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예술을 감상하는 등 문인의 평화로운 일상을 주제로 한다. 수치탁족漱齒濯足은 이를 닦고 발을 씻는다는 의미로 속세의 때를 씻어내는 행위로 자연 속에서 심신을 정화하는 선비의 은일隱逸과 자적自適의 이상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명대明代 문징명(文徵明, 1470-1559) 등에 의해 화제가 작품화되어 이후 조선에 전해져 겸재 정선, 고송유수관 이인문을 비롯한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다.

본 작품을 살펴보면, 깊은 산속 소나무 아래, 선비가 바위에 앉아 개울물에서 발을 씻고 있다. 그 옆으로 시중을 드는 동자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며 뒤쪽으로 사슴 한 마리가 이들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개울가에는 물이 잔잔하게 흐르며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선비가 은거하는 장소이지만 우리네 개울가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실경을 기반으로 한 사실성이 느껴지며 언덕과 바위, 나무 표현 등에 짧고 반복적인 경쾌한 필치와 부드러운 물결 표현은 정선 만의 리듬감을 형성한다. 전체적으로 담묵으로 처리하여 고요한 정취를 자아내며 진경산수적 사실성과 문인화적 필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수작이다. 정선의 탁족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공도시품첩>이 참고된다.[참고도판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채색본이지만, 본 작품과 바위에 앉아 발을 담그고 있는 인물의 자세와 의습의 표현에서 친연성이 확인된다.



[참고도판]

1. 정선, <사공도시품첩>, 조선, 종이에 수묵채색, 34.5×29.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 12876).



[인문] 尹氏希重, 千金勿傳

오른쪽 하단에는 회당 윤희중의 인장이 있다. 회당 윤희중(希堂 尹希重, 1901-1971)은 독립운동가이자 조선중앙일보의 사주이며, '적고각積古閣 컬렉션'을 보유한 근대 대수장가이다. 충남 논산을 중심으로 고서화와 도자기 등을 수집하였다. 그가 수집한 작품들은 잃어가는 문화유산을 지키는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 보존의식이 담긴 사례로 평가된다.

본 작품은 적고각 컬렉션에 포함된 겸재 정선 작품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그의 컬렉션에는 허주 이징, 현재 심사정, 추사 김정희의 그림과 글씨 등 민족적 상징성을 지닌 화가들의 유물이 전하고 있으며,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의 작품을 소장하였다는 점은 회화사적 및 학문적으로 그의 수집 방향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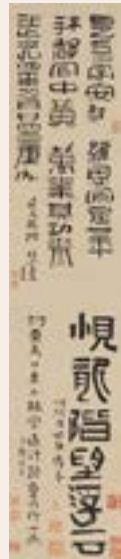
윤희중 컬렉션은 1949년 국립공주박물관에 기증 및 간송미술관 소장 등으로 전하고 있으며, 그 수가 드물고 희소성이 있다. 본 작품의 인장을 살펴보면,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심사정 화첩과 간송미술관 소장 김정희 <한예금석>에 찍힌 '천금물전(千金勿傳, 천금을 주어도 팔지 말라)' 인장과 동일함이 확인된다.[참고도판2,3] 윤희중 컬렉션은 이후 간송 전형필의 간송 컬렉션으로 이어지는 근대 수집가 전통의 한 축을 이루게 하였으며, 한국 근대 수장가의 안목을 형성한 사례와 개인 수집가들의 예술적 교류, 근대 예술품 수장사를 함께 이해할 문화사적으로도 의미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국립중앙박물관,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2014.
2. 호암미술관, 『겸재정선』, 2025.
3. 간송미술관, 『간송문화 97호 : 보화비장 葆華秘藏 : 간송컬렉션, 보화각에 담긴 근대의 안목』, 간송 미술문화재단, 2025.

[전시이력]

한국고미술협회, 『한국 고미술 사료전』, 1996.



[참고도판]

2. 현재 심사정, <산수첩>, 종이에 수묵담채, 40.6×31.5cm, 국립공주박물관 소장(공주275).
3. 추사 김정희, <한예금석>, 지본묵서, 간송미술관 소장.



012

書_영조 1694-1776

英祖 King Yeongjo

筆_윤급 1697-1770

尹汲 Yun Geup

장주묘암도 漳州茆庵圖 Zhu Xi's Thatched Hermitage in Zhangzhou

1746

축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114×62.3cm

₩ 350,000,000-500,000,000

영조는 요순堯舜시대처럼 탕평의 이상적 질서가 실현된 세상을 꿈꿨다. 1746년 영조의 명으로 그려진 <장주묘암도漳州茆庵圖>는 그의 꿈을 담은 그림이다. 이 작품은 중국 남송의 주희가 복건성 장주지사로서 있을 때, 후원의 모습을 담은 『주자어류朱子語類』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화원이 상상해서 그렸다. 화면은 어제, 『주자어류』 고사, 묘암도 삼단으로 구성했다. 본 작품은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바 있는 개인소장의 <장주묘암도>의 복본復本으로 추정된다.

영조는 작품의 어제에서 ‘기수무우沂水舞雩’라는 말로 마음을 전했다. 기수무우는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을 쐬다.”라는 뜻으로, 『논어』 「선진先進」에 나오는 글이다. 영조는 신하들에게 당수를 버리고 공평하기에 힘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수무우를 바탕으로 이상화된 세계를 제시해 당파 간의 갈등을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영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묘암 창문에 소통을 상징하는 태괘와 부흥을 상징하는 복괘를 그려넣어 요순세계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려는 마음을 담았다. 영조는 윤급(尹汲, 1697-1770)에게 어제를 쓰도록 했는데, 윤급은 노론으로 탕평책을 반대한 인물이다. 영조는 윤급에게 자신의 뜻을 담은 어제를 쓰게 함으로서 그가 탕평의 뜻을 받아들이길 바랐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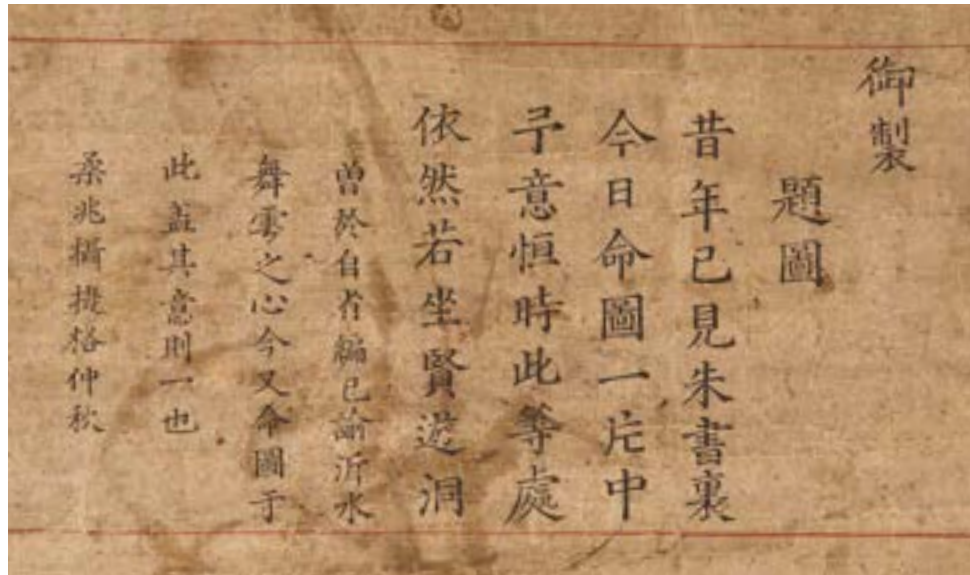
[참고문헌]

1. 국립중앙박물관, 『탕탕평평蕩蕩平平-글과 그림의 힘』, 국립중앙박물관, 2023.
2. 조규희, 「1746년의 그림; 시대의 눈으로 바라 본 <장주묘암도>와 규장각소장 『관동십경도첩』 = Reading the paintings of 1746」, 『미술사와 시각문화』6,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7.



[수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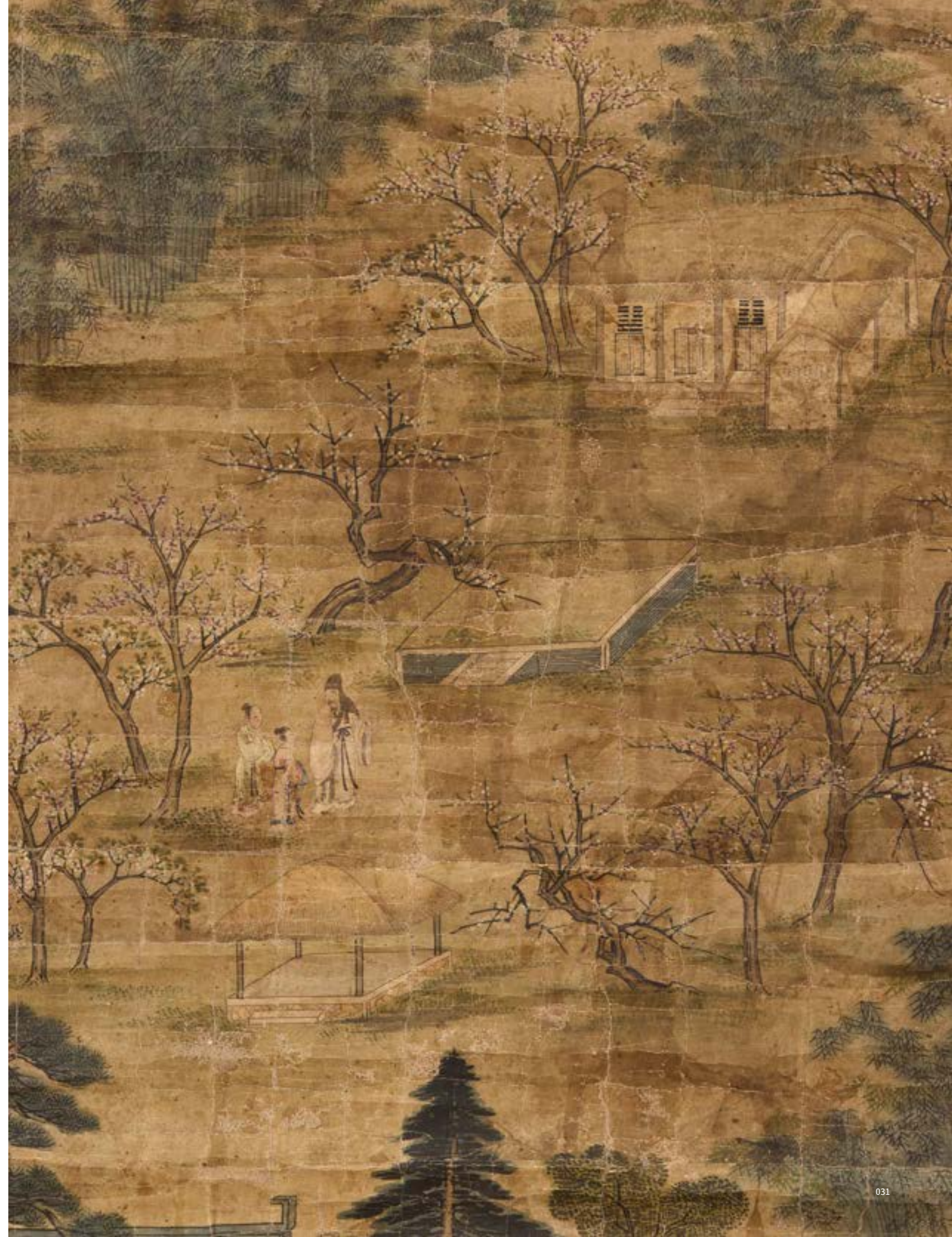
1.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31.
2. 포스코미술관, 『THE HIDDEN CHAPTER-오백 년 만에 돌아온 조선서화』, 2025.



御製 어제
 題圖 그림에 제하다
 昔年已見朱書裏 지난날 이미 주자의 글 속에서 보았는데
 今日命圖一片中 오늘에야 한 폭의 그림에 그리도록 명하였네
 予意恒時此等處 나의 뜻은 언제나 이 곳에 머무르니
 依然若坐賢遊洞 의젓하게 어진 이가 노니는 골짜기에 앉은 듯하네
 曾於自省篇已論沂水 舞雩之心今又命圖于 此蓋其意則一也, 柔兆攝提格仲秋.
 일찍이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다는 마음을 깨달아 『자성편』에 밝힌 바 있다.
 지금 또 이 그림을 그리도록 명하였으니 그 뜻은 같다. 병인년(1746) 가을.



晦庵先生漳州茆庵圖
 先生於州治射堂之後園畫爲井字九區中區石甃爲高壇中之後區爲茆庵庵三牕左牕爲泰卦右爲否卦後爲復卦前爲剝卦庵前接爲小屋前區爲小茅亭左右三區各列植桃李而間以梅九區之外圍繞植竹是日遊其間笑謂諸生日上有九疇八卦之象下有九丘八陣之法.
 회암 선생 장주묘암도
 주자께서 장주를 다스릴 때 사당射堂의 후원에 ‘우물 정井’을 그려 9개의 구획을 만들었다. 가운데 구역에는 벽돌을 높이 쌓아 높은 단壇을 만들고, 뒤쪽 구역에는 묘암茆庵을 지었다. 묘암에는 세 개의 창문이 있었는데, 왼쪽 창살은 태괘泰卦로, 오른쪽 창살은 비괘否卦로, 뒤쪽 창살은 복괘復卦로, 앞쪽 문짝은 박괘剝卦로 만들었다. 묘암 앞에는 가까이 작은 초옥을 지었다. 앞쪽 구역에는 작은 모정茅亭을 세웠다. 좌우의 세 개 구역에는 각각 줄지어 복숭아와 오얏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는 매화나무를 심었다. 전체 아홉 구역의 외부에는 대나무를 심어 빙 둘러싸게 하였다. (선생께서는) 이 날 그 안을 돌아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웃으며 이르기를 “위로는 구주九疇를 만드는 팔괘八卦의 상象이 있으며, 아래로는 구구九丘를 만드는 팔진八陣의 법이 있다.”고 하셨다.



013

전 연담 김명국 1600-1663 이후

傳 蓮潭 金明國 Attributed to Kim MyeongGuk

신선도 神仙圖 Hermit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35.2×29cm

₩ 40,000,000-80,000,000

조선시대 신선도는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의미와 선비들의 풍류, 무병장수나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결합하여 이경윤, 김명국, 김홍도, 심사정, 이수민, 장승업 등 많은 화가에 의해 그려졌다. 김명국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도교 또는 불교 관련 신선과 도사 등 초자연적 인물상을 표현한 그림인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畫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김명국 특유의 호탕한 성격이 호방한 필묵법으로 잘 나타난다. 중국 명나라 절파浙派 화풍의 영향으로 강한 먹의 농담 대비, 역동적인 필치, 바위와 나무, 신선의 옷 주름을 묘사할 때는 꺾임 있는 각진 선을 사용하며 붓의 기운이 느껴지는 필력을 강조하여 그렸다.

본 작품은 두 명의 신선이 바위에 앉아 절벽에서 쏟아지는 폭포를 바라보는 그림인 관폭도이다. 본 작품은 화면에서 인물의 비중을 강조하며 김명국 특유의 필선으로 옷 주름에서 굵고 가늘게, 인물의 눈매와 입매는 간략한 필치로 표현하였고 지팡이와 옷깃, 나무와 바위는 진하게, 먼 산과 폭포는 연하게 농담을 주어 화면에 입체감을 부여하였다. 관폭도는 동양 산수화의 주요 소재로 대자연 앞에서 무위자연, 현실을 벗어나려는 탈속적 자연관을 지닌 문인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준다. 관폭도는 조선 중기부터 산수인물화의 성행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의 실경實景을 반영한 관폭도를 그리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심영옥, 「조선중기 “수수” 소재의 소경산수인물화小景山水人物畫에 나타난 도가적 예술관-관폭도觀瀑圖, 탁족도濯足圖, 조어도釣魚圖를 중심으로-」, 『동양예술』7, 한국동양예술학회, 2003, pp.81-116.



014

전 연담 김명국 1600-1663 이후

傳 蓮潭 金明國 Attributed to Kim MyeongGuk

장지화도해도 張志和渡海圖 Hermit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35.2×29cm

₩ 40,000,000-80,000,000

본 작품은 신선인 장지화張志和가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중국에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500명이 넘는 신선이 있으며, 그 중 장지화는 조선시대 그림의 소재로 많이 다루어졌던 신선이다. 김명국은 장지화가 세차게 파도 치는 바다 한가운데 나무로 된 자리를 타고 해상을 지나는 순간을 그렸다. 인물 옆에는 술병이 놓여있고 나무 등걸에는 호리병이 걸려있다. 이와 같은 소재와 유사한 구성을 갖춘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전 김명국필 <신선도>와 부산시립미술관 소장의 초원 이수민(蕉園 李壽民, 1783-1839) <장지화도해도張志和渡海圖>가 참고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신선이 나뭇등걸에 팔을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인물과 그 주변 파도, 기물의 구성, 담청색과 황색의 채색을 한 의습 표현이 유사하다.

부산시립미술관 소장본은 세로로 긴 형태로 그려졌으며 신선은 나무에 기대고 있으며 떠 있는 달을 바라보고 있다. 본 작품과 같은 주제를 지니며, 인물과 화면구성의 유사함이 확인된다. 인물 주변의 술병이 생략되고 나무에는 호리병과 우선羽扇을 달아 놓았다. 바다를 건너는 신선 도상은 단독 또는 군선群仙의 형태로 그려졌으며, 조선 중기 이후 <해상군선도>, <요지연도>, <팔선도>로 그려지며 후기와 말기를 통해 발전하였다. 조선 중기 김명국의 도석인물도는 김홍도를 거쳐 이수민, 장승업 등의 신선도로 이어지는 회화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백인산, 「조선왕조朝鮮王朝 도석인물화道釋人物畫」, 『간송문화』 77,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9.



- [참고도판]
1. 전 김명국필 <신선도>, 60×40.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2030).
 2. 초원 이수민, <장지화도해도>, 비단에 색, 106.5×39.6cm, 부산시립박물관 소장(구입10159).



015

산수인물도

山水人物圖
Landscape with Figures

배접 Mount on Panel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103.5×70.5cm

₩ 6,000,000-12,000,000



016

산수인물도

山水人物圖
Landscape with Figures

액자 Framed
비단에 수묵 Ink on Silk
28.5×19cm

₩ 12,000,000-30,000,000

[인문] 寅春



[수록처]
공화랑, 『眼目과 眼福』, 2009.



017

창계 문경동 1457-1521

滄溪 文敬全 Mun GyeongDong

글씨 書 Calligraphy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46×51cm

₩ 4,000,000-10,000,000

창계 문경동(滄溪 文敬全, 1457-1521)의 부賦와 시詩를 적은 것이다. 문경동이 본래 부와 시 두 가지를 지어 한 쪽에 필사해 놓았었는데, 앞부분의 부는 문경동의 친필 글씨 그대로이고, 뒷부분의 시는 다른 사람이 잘라 가버려 부득이 후손 문병호(文炳鎬, ?-)가 필사해 넣은 것이다.

부賦의 내용은, 현감 김만균이 경상도 예안禮安의 오천烏川 마을에 침류정枕流亭을 짓고 부를 읊고서 문경동에게 화답하기를 요구하자, 이에 문경동이 호응하여 침류정의 빼어난 경치와 김만균의 맑고 고결한 지조에 대해 읊은 것이다.

시詩는 오언율시 2수인데, 참판 이명중李明仲 즉 이우(李瑀, 1469-1517)가 침류정을 먼저 시로 읊자, 이에 문경동이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내용은 침류정에서 김만균이 유유자적했던 것처럼 문경동 자신도 속세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지조를 지니고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문경동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흠지欽之, 호는 창계滄溪이다. 1495년 증광문과에 급제, 비안현감比安縣監, 강원도도사江原道都事, 중부시첨정宗簿寺僉正,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 등을 역임하였다.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경상우도방역사 유담년柳聃年과 함께 예적도벌에 공을 세우고 성군관사성成均館司成으로 진급하였다. 1512년 예천군수醴泉郡守가 되어 임기를 채운 뒤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지내다 1521년 청풍군수淸風郡守가 되었으나 곧 임지에서 죽었다. 문장에 능하였고, 특히 사부詞賦에 뛰어나 과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투어 그의 글을 익혔다고 한다. 저서로 《창계문집滄溪文集》 4권이 있다.



次枕流亭賦 침류정부에 차운하다

亭金進士金萬鈞所構，且作賦求和，余用其韻。辭曰，
정자는 진사 김만균(金萬鈞, ?-1549)이 지은 것이며, 또 부賦를 지어 화답을 구하기에 내가 그 운자를 따라 부를 짓는다.

猶若人之內美兮 이 분은 내면에 간직한 덕성이 아름다워

降神精於彭山 신령한 정기를 평산에서 내려 받았도다

鬱丹崖之高趣兮 붉은 절벽의 고상한 흥취가 서리어

飄逸志於雲間 빼어난 뜻을 구름 사이로 드날리도다

樂巖居之幽邃兮 바위에 거처하는 그윽함을 즐기시어

構小亭於山腹 작은 정자를 산허리에 지었도다

喚西湖之冷魂兮 서호의 시린 혼을 불러내니¹⁾

傍淇園之綠竹 기원의 푸른 대나무가 곁에 있도다²⁾

掃淨几而燕息兮 정갈하게 책상을 닦고 편히 휴식하며

詠謝池之春草 사지의 봄풀을³⁾ 읊조리도다

窟蒙莊之逍遙兮 장자의 소요를 깨닫고 나서⁴⁾

厭紛華而味道 시끄러움을 피하여 도를 맛보도다

消塵淨於氣宇兮 기개와 국량에서 목은 때를 씻어내어

與太極而夷猶 태극과 더불어 여유롭게 노닐도다

察鳶魚之飛躍兮 솔개가 날고 물고기 뛰는 모습을 살펴

沿洙泗之源流 수사의⁵⁾ 근원을 따라 올라가도다

破槐安之一夢兮 괴안국의 한 꿈을 깨뜨리고서⁶⁾

狎海翁之雙鷗 해옹의 두 갈매기와 친암하도다⁷⁾

辭鸚鵡而不赴兮 인재로 천거됨에⁸⁾ 사양하여 나가지 않고

老身世於滄洲 물가에 은거하여 한 몸이 늙어가도다

嗟余生之無似兮 아, 나의 생이 보잘 것 없음이여

仰風稜而悠悠 빼어난 풍모를 우러르며 생각에 잠기도다

欲從子於茲亭兮 그대를 따라서 이 정자에 머물면서

酌南斗而相酬 남두성을 기울여 술잔을 권하고 싶도다

闔天地之盈虛兮 천지의 차고 비는 이치를 엿보아

○⁹⁾胸中之煩愁 흥중의 번뇌를 골라내고 싶도다

緣寸廬之淹篤兮 작은 녹봉 때문에 수레를 멈추고서

汨未返於菟裘兮 말세의 흐름에 빠져 표류하도다

車未返於菟裘兮 수레가 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阻泉石之清碧 시내와 바위의 맑고 푸름을 저버렸도다

想田園之將蕪兮 전원이 장차 황폐해짐을 상상하면서

思故山之巋積 고향 산이 중첩된 풍경을 생각하도다

強顏而處世兮 찌든 얼굴로 억지로 세상을 살아감이어

若雞肋之長嚼 흡사 계륵을 오래 씹는 것과 닮았도다⁹⁾

滄溪居士欽之 창계거사 흠지

- 작은 글씨 -

次李參判明仲韻 題枕流亭 참판 이명중(이우)의 시에 차운하여 침류정을 읊다

亂山臨鏡面 어지러운 산이 맑은 수면에 비치니

是處有君家 바로 이곳에 그대의 집이 있는데

白鳥盟相慣 백구와 어울리며 서로 친하니

靑雲路自遐 청운의 길은 저절로 멀어지네

一瓢猶足樂 한 표주박 식사로도 즐거움 넘치니

萬石不須誇 만석 부자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但負蒼生望 다만蒼생을 구제할 포부를 저버리니

時人爲子嗟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위해 탄탄하네

今古同爲貉 지금이나 예나 똑같이 변방인데

乾坤一旅亭 하늘 땅 사이에 정자 하나가 있도다

人情知盛滿 인정이란 가득차면 기울어짐을 알고

天道亦虛盈 천도 또한 비고 차는 이치가 있다네

雪月襟懷冷 눈과 달 같은 가슴 속은 시리고

山河氣勢傾 산과 강 같은 기세는 압도하건만

漫然遺世事 부질없어라, 세상 일을 잊고서

攜酒入詩城 술잔 들고 시의 성으로 들어가세나¹⁰⁾

賦與詩，本聯寫一幅，而詩則爲族叔中協割去，故敢騰寫以補，猶勝於無耶。

居士下又有諱字，而割附詩幅，懼恐。炳鎬書。

부賦와 시詩가 본래 연달아 한 쪽에 적혀 있었는데, 시는 족속 중협中協이 잘라서 가버렸기 때문에 감히 베껴서 보충하였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다. 거사居士 아래에 또 창계공의 이름이 있었는데, 잘라서 시폭에 붙여주었으니, 참람스럽고 두렵다. 병호炳鎬가 쓰다.

[인문] 鼎

- 침류정 주인 김만균이 매화를 심어 기른다는 의미이다. 송나라 때 은자인 임포林通가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은거하여 20년 동안 도성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장가를 들지 않아 자식이 없이 매화를 심고 학을 길러 짝을 삼으니, 당시에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하였다.
- 침류정 주위에 대나무가 무성하다는 의미이다. 기원은 중국 위衞나라의 대나무 동산 이름이다. 《시경》<위풍衞風 기옥淇澳>에, “저 기수淇水의 물굽이를 보니,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도다. 문재나는 군자여, 질차탁마하는 듯하도다.[瞻彼淇澳，棗竹猗猗。有匪君子，如切如磋，如琢如磨.]”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 좋은 시를 짓는다는 의미이다. 남조南朝 때 송나라의 사명운謝靈運은 아우 사혜련謝惠連을 보면 좋은 구절이 떠오르곤 하였는데, 한번은 시구를 생각하다가 종일토록 시상이 떠오르지 않다가 꿈에 혜련을 보고 “지당에 봄풀이 들어난다.[池塘生春草.]”라는 구절을 얻었다고 한다.
- 소요逍遙는 《장자莊子》의 첫머리에 실린 <소요유逍遙遊>를 가리키는데,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노니는 경지를 가리킨다.
- 유학儒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수洙水와 사수泗水 사이에서 공자가 제자를 거느리고 학문을 강론했던 데서 유래하였다.
- 벼슬과 영화를 꿈꾸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당나라 순유분淳于棼이 어느 날 남쪽으로 뻗은 해나무 가지 아래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괴안국槐安國에 가서 왕의 딸을 아내로 맞고 남가군 태수南柯郡太守까지 되는 등 부귀를 누리다가 꿈을 깨고 보니 그 해나무 아래에 큰 개미구멍만 있었다는 고사가 있다.
- 세상에 대한 기심機心を 버렸다는 의미이다. 바닷가에 살던 어떤 사람이 매일 갈매기와 친하게 어울렸는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갈매기를 한 마리 붙들어 가지고 오라고 명하자, 그때부터 갈매기가 다가오지 않았다고 한다.
- 원문의 약천鶻鵲은 뛰어난 인재로 천거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동한東漢 때 공융孔融은 연소한 예형彌衡의 문재文才를 대단히 아껴, 표문表文에 “새매 수백 마리가 독수리 한 마리만 못하니, 예형을 조정에 등용한다면 반드시 불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鶻鳥累百，不如一鵲，使衡立朝，必有可觀.]”라고 하며 그를 천거하였다고 한다.
- 이 글은 《창계선생문집滄溪先生文集》 권1 부賦에 <사침류정부 병서次枕流亭賦并序> 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 이 시는 《창계선생문집》 권1 시詩에 <차김진사침류정이참판명중운 이절次金進士萬鈞枕流亭李參判明仲壙韻二絕>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018

전 학포 양팽손 1488-1545

傳 學圃 梁彭孫 Attributed to Yang Paeng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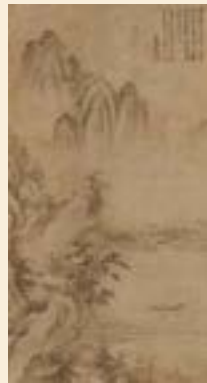
산수도 山水圖 Landscape

족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80.5×42.3cm

₩ 150,000,000-250,000,000

본 작품은 조선 전기 양식의 산수도로 학포 양팽손(學圃 梁彭孫, 1488-1545)의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양팽손은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낙향하여, 1521년 고향인 전라도 능성현 쌍봉리에 학포당學圃堂을 짓고 1545년에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둔생활을 하였다.

이 시기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산수도>이다. 본 작품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근경, 중경, 원경의 3단 구도를 보이며, 수지법과 준법을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중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큰 바위, 후경의 높이 솟은 산, 안개 낀 원산과 건물들, 돌아오는 배, 어부들의 모습 등 특징이 보이며 양식적 친연성을 보여준다.



[참고도판]
전 학포 양팽손, <산수도>, 1521-1545년, 종이에 수묵, 88.5×46.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록처 및 참고문헌]
1.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11.
2. 포스코미술관, 『THE HIDDEN CHAPTER-오백 년 만에 돌아온 조선서화』, 2025.
3. 홍선표 외, 『해외소재 조선전기 회화』, 한국미술연구소, 2014.
4. 박해훈, 「조선시대 瀟湘八景圖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한국미술사전공 박사학위논문, 2007.
5. 정진성, 「잔영(殘影): 전(傳) 이징(李澄) 필(筆) <산수도>에 대하여」, 『미술사와 시각문화』34,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4.



019

영천자 신잠 1491-1554

靈川子 申潛 Shin Jam

묵죽도 대련 墨竹圖 對聯 Bamboo

축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각 138.4×65cm

₩ 150,000,000-250,000,000



신잠(申潛, 1491-1554)은 사·서·화 삼절三絶로 유명한 조선 전기의 사대부 화가로,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증손자이다. 특히 대나무, 산수를 잘 그렸다고 전하며 현전하는 작품이 거의 없다. 본 작품은 그 상태가 양호하여 가치를 더한다. 괴석묵죽도와 묵죽도가 대련對聯을 이루는 작품으로 곧게 뻗은 대나무의 이파리가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표현이 인상적이다. 각 폭 왼쪽 상단 모서리에 찍힌 두 과의 도장은 선명한 주홍색으로 원량元亮, 영천자장靈川子章이라고 되어 신잠의 작품으로 확인된다.

[인문] 元亮, 靈川子章



- [수록처 및 참고문헌]
1.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15.
 2. 정양모, 『조선시대 화가 총람』1, 2017.
 3. 포스코미술관, 『THE HIDDEN CHAPTER-오백 년 만에 돌아온 조선서화』, 2025.
 4. 홍선표 外, 『해외소재 조선전기 회화』, 한국미술연구소, 2014.

전 신사임당 1504-1551

傳 申師任堂 Attributed to Shin Saimdang

초충도 8폭 草蟲圖八幅 Grass and Insects

첩(8면) Album of Painting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각 29.7×21.5cm

₩ 250,000,000-500,000,000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은 조선 초기와 중기를 대표하는 여성 예술가로 초충도를 잘 그린 화가로 명성이 높다. 사임당은 글과 그림, 자수 등 여러 분야에서 재능이 많았다. 회화에 있어서는 목매, 목죽, 산수, 화조, 초충도 등에 능하였다. 율곡 이이의 「선비행장先妣行狀」에 의하면, 사임당은 목적이 뛰어난 7세 때에 안견의 그림을 모방하여 산수도를 그린 것이 절묘하고, 포도 그림은 세상에서 흉내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전한다. 조선 후기 문인 송상기는 「사임당화첩발원任堂畫帖跋」에서 신사임당이 그린 풀벌레 그림을 마당에 내어 여름 벌을 쫓아 닭이 와 쪼아서 종이가 뚫어졌다는 일화가 전한다.

초충도는 풀과 벌레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신사임당은 수박, 가지, 오이, 여뀌, 패랭이꽃, 맨드라미, 쥐, 나비, 개구리 등 우리네 마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상의 자연물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렸다. 화면에서 느껴지는 소박미, 자연미, 여백미는 꾸밈없는 한국적인 초충도이다. 본 작품은 안정된 구도와 섬세한 관찰력으로 윤곽선 없이 그린 물골의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이며, 검은 종이 위에 고운 채색을 통해 보다 간결하고 서정적으로 자연을 묘사한 초충도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다.



[도 1]

[도 2]

[도 3]

[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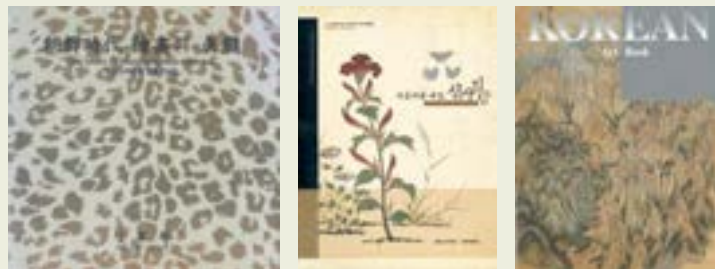


[도 5]

[도 6]

[도 7]

[도 8]



[수록처]

1. 죽화량, 『朝鮮時代 繪畫의 眞髓』, 1997, No.17-24.
2. 강릉시오죽현시립박물관, 『아름다운 여성, 신사임당』, 2004.
3. 정병모, 『KOREAN Art Book』 회화 II, 예경, 200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초충도 8폭 병풍>과 보물 제595호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초충도수병>을 참고할 만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신사임당으로 전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초충도 작품으로 수박을 물레 흔쳐먹는 쥐와 나비, 맨드라미 꽃과 나비, 개구리와 오이와 여뀌 등 여러 폭에서 구도와 경물이 동일하고, 화면의 구성이 유사하다. 동아대학교 소장본은 검은 비단에 풀과 벌레를 수놓은 작품으로 검은 종이에 채색한 본 작품과 배경표현, 구도, 경물 표현의 세밀한 묘사가 유사하게 잘 나타나있어 신사임당의 모본으로 수놓은 자수 초충도 병풍으로 볼 수 있다. 회화부터 자수까지 시대의 예술품을 통해 조선시대 옛 생활사와 규방문화를 함께 이해할 중요한 작품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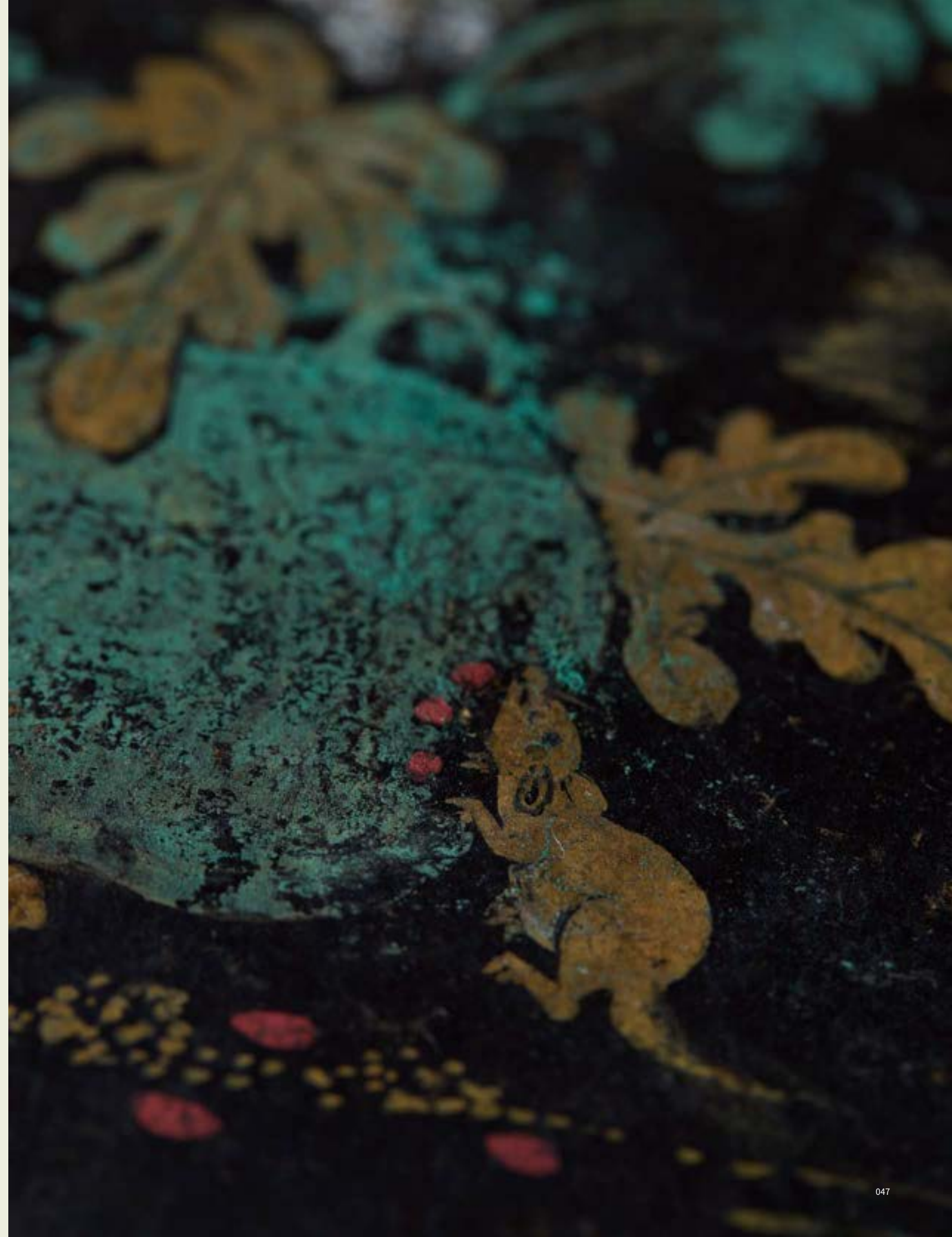
[참고문헌]

1. 유정은, 「신사임당 초충도의 미의식 연구」, 『한문고전연구』2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2. 고연희·이경구·이숙인·홍양희·김수진 지음, 『신사임당, 그녀를 위한 변명』, 다산기획, 2016.



[참고도판]

1. 전 신사임당, <초충도> 부분, 종이에 채색, 각 32.8×2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수 3550).
2. 전 심사임당, <초충도수병>, 각 61×40cm, 보물 제595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021

허주 이징 1581-1653 이후

虛舟 李澄 Lee Jing

화조도 花鳥圖 Bird and Flower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24×19.8cm

₩ 6,000,000-15,000,000

虛舟李澄先生眞蹟. 宣祖朝名畫.
己酉秋, 東滄元忠喜簽.
허주 이징선생 진적. 선조 때의 이름난 화가.
기유년(1969) 가을, 동창 원충희가 제점하다.

[인문] 雒陽東村, 忠, 喜

원충희(元忠喜, 1912-1976)는 서예가로 호는 동창(東滄, 東倉)이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 1864-1953)을 사사하였다. 1946년 조선서화동연회에서 가작상을 받았고, 1963년 한국미술문화회를 발족하여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022

궤은 이기룡 1600-?

几隱 李起龍 Lee GiRyong

연지누각도 蓮池樓閣圖 Pavilion beside a Lotus Pond

축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120×90cm

₩ 200,000,000-500,000,000



李起龍寫 이기룡 그리다.

[인문] ○○, ○○

궤은 이기룡(几隱 李起龍, 1600-?)은 화원집안 출신으로 부친 이홍규(李泓龜, 1568-?)는 정미사행(丁未使行, 1607)의 수행화원隨行畫員이었다. 이기룡 또한 1643년에 제5차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일본에서 그렸다고 전하는 <송암비우도松巖飛羽圖>에는 사자관寫字官 설봉 김의신(雪峰 金義信, 1603-1663 이후)이 화제를 썼다고 한다.

본 작품은 정원이 있는 중국식 대저택을 그린 그림이다. 세밀한 필치와 채색은 공필화 계통의 명대 화원들의 화풍을 떠올리게 한다. 곳곳의 커다란 파초芭蕉와 버드나무, 그리고 중앙의 너른 연못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연잎이 인상적이다. 연못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누각이 보이고, 그 위에는 대화를 나누는 세 명의 인물이 보인다. 연못의 아래에는 길을 거니는 사람들과 연못을 감상하는 사람이 보인다.

이기룡의 유작은 1629년에 그린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인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한 점이 유일인데, <연지누각도>와는 화풍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화원 집안 출신인 이기룡이 1643년에 통신사행에서 그렸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화풍을 달리하여 그리는 것은 화원들의 일반적인 역할이다. 현전하는 작품이 드문 이기룡의 화풍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수록처 및 참고문헌]

1. 富山美術館, 『李朝の繪畫: 坤月軒コレクション』, 1985, No.19.
2.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317.
3. 포스코미술관, 『THE HIDDEN CHAPTER-오백 년 만에 돌아온 조선서화』, 2025.





전 남리 **김두량** 1696-1763

傳 南里 金斗樑 Attributed to Kim DuRyang

흑구도 黑狗圖 Black Dog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43.9×16.5cm

₩ 10,000,000-20,000,000

본 작품은 남리 김두량 작품으로 전해지며, 화면에는 풀과 곤충이 있는 풀밭 나무 아래 검은 개 한 마리가 앉아있다. 간지러운지 한 발로 옆구리를 긁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뜬 개의 표정에서 익살스러움이 느껴진다. 털의 표현은 세밀하고 개의 골격과 근육, 털의 질감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자연스러우며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김두량 <흑구도>가 참고된다. 본 작품의 화면구성과 몸을 굽고 있는 개의 자세, 자유분방하고 빠른 붓질의 풀과 오른쪽 위쪽에서 왼쪽 위로 뻗은 나무 표현에서 친연성이 확인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보다 가로로 긴 화면을 지닌다.

남리 김두량은 조선 후기 영조 연간에 활동한 화원 화가로 인물·풍속·동물화 등 모든 분야에 능했으며 왕으로부터 '남리南里'라는 호를 받기도 했다. 특히 개를 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양화풍의 도입으로 입체적인 음영법을 구사하여 실제 관찰에 기반한 사실적 표현과 서민적 정서를 결합한 필묵이 특징이다. 조선 후기 회화가 사생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1. 김상엽, 「남리 김두량의 작품세계」, 『미술사연구』11, 미술사연구회 1997.
2. 이원복, 「金斗樑·金德夏 父子의 犬圖 - 基準作과 推定作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15, 동악미술사학회, 2013.



[인문] 金斗樑印



[수록처]

孔昌畫廊·珍畫廊, 『朝鮮時代繪畫名品展』, 1990.



[참고도판]

김두량, <흑구도黑狗圖>, 조선, 종이에 수묵, 23×26.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024

용호도 대련

龍虎圖 對聯 Dragon and Tiger

축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Silk
각 134×89cm

₩ 60,000,000-150,000,000



호랑이와 용이 한 쌍으로 그려진다. 호랑이는 등과 다리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털 묘사와 발톱이 묘사되어 존재감을 드러낸다. 눈은 크고 둥글며 전방을 응시하고 있어 경계심과 위압감을 함께 나타낸다. 화면 상단에는 소나무가 자리한다. 용은 흐릿한 운무 속에 등장하며 몸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눈, 수염, 뿔의 강조를 통해 상징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용의 수염과 구름이 곡선적으로 흐르며 화면 전반을 감싸듯 퍼져 있어, 화면에 강한 운동감을 불어넣는다.



[참고도판]
이정 필 <용호도 대련>, 조선 16세기 후반, 각 115.8×75.4cm,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 [수록처 및 참고문헌]
1.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33.
 2. 포스코미술관, 『THE HIDDEN CHAPTER-오백 년 만에 돌아온 조선서화』, 2025.
 3. 홍선표 외, 『해외소재 조선전기 회화』, 한국미술연구소, 2014.



025

월하맹호도

月下猛虎圖

Ferocious Tiger Under the Moon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106×54cm

₩ 30,000,000-60,000,000

달빛 아래 몸을 틀어 선 호랑이를 담은 작품이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둥근 달을 배치하고, 그 아래 꼬리를 높이 치켜든 호랑이가 몸을 굽힌 채 시선을 돌리고 있다. 호랑이의 등과 허리를 따라 이어지는 줄무늬는 촘촘한 세필로 묘사되었으며, 털끝을 하나하나 세운 듯한 표현을 통해 맹수 특유의 긴장감을 드러낸다. 본 작품의 구도는 화면을 가득 채운 호랑이의 신체, 높게 말린 꼬리, 정면을 향해 번뜩이는 눈빛 등에서 유사한 형식의 호랑이 그림들과 맞닿아 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맹호도>와 같이, 호랑이의 몸을 크게 부각시키고 꼬리를 화면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구성은 호랑이의 기세와 위압감을 강조하는 시각적 장치로 기능한다. 강한 줄무늬와 세밀한 털 묘사는 호랑이의 위엄을 드러내고, 달빛 아래 펼쳐진 배경은 화면에 고요한 긴장감을 더한다. <월하맹호도>는 맹호도의 전형적인 기세를 따르면서도 월하月下라는 배경 설정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함께 보여주는 작품이다.



[참고도판]
<맹호도>, 종이에 수묵담채, 96×55.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M번67).



026

고송유수관 이인문 1745-1824 이후

古松流水館 李寅文 Lee InMun

진일구우귀도 盡日驅牛歸圖 Landscape

축자 Hanging Scroll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30×37cm

₩ 60,000,000-150,000,000

盡日驅牛歸 온종일 소를 몰아 돌아오니
前溪風雨急 앞 시내에 비바람이 급하네

古松流水觀道人寫 고송유수관도인이 그린다.

[인문] 古松流水, 李寅文印

호방하면서 거센 필치로 표현한 미점준과 열은 농담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수의 풍경을 지두화指頭畫로 그렸다. 손가락, 손톱 등에 먹을 묻혀 그리는데 지두화는 모필에서 느낄 수 없는 파격적이며 독창적인 미감을 준다. 산 아래 운무雲霧와 시원하게 내려오는 강물은 여백으로 처리하였으며, 열은 농묵으로 비를 흠뻑 맞고 있는 나무들, 거친 필법으로는 산수, 가옥, 동자의 표현이 조화를 이룬다. 비오는 산속 가옥에서 책을 읽고 있는 고사高士와 도롱이를 입고 비바람을 헤치며 소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동자는 역동적이면서도 정적인 산속의 느낌을 자아낸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당나라 유가(劉駕, 822-?)의 시 <목동牧童>이 화제로 적혀있다. 이와 같은 화제를 쓰고 그린 그림으로 호생관 최북의 작품이 전한다.[참고도판]



[참고도판]
호생관 최북, <진일구우귀도>, 24.2×32.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古松流水館道人李寅文先生山水小畫



도석인물화첩

道釋人物畫帖

Taoist and Buddhist Figures

첩(6면) Album of Painting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26×18.5cm

₩ 30,000,000-60,000,000

본 작품은 6폭의 도석인물화, 화조도, 풍속화가 담긴 화첩으로 단원 필치의 화풍이 여실히 드러난 작품이다. 본 작품의 화풍을 살펴보면, 배경을 생략하여 인물을 강조한 구성과 단원 특유의 선묘로 대담하고 거친 필치가 돋보인다. 신선의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빠른 필치는 화면에 생동감을 준다.

1폭은 영물인 잉어 금고金高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선인의 도상이며, 2폭은 김홍도 <녹취취생>이 참고된다[참고도판1]. 본 작품에서는 <녹취취생>의 사슴을 제외한 두 인물을 그렸다. 허리춤에 호리병을 달고 생황을 부는 인물과 양손에 영지를 들고 있는 인물이 있다. 굵은 먹 선으로 활달하게 얼굴, 옷깃 등을 처리한 표현이 두드러진다. 3폭은 김홍도 <비선검무>가 참고된다[참고도판2]. 한 손에는 장검을 들고 하늘은 날며 춤을 주는 선녀로 김홍도 작품보다 인물이 강조되고 세밀한 의습 표현이 두드러진다. 4폭은 어부와 초부가 서로 묻고 답하는 장면인 어초문답도漁樵問答圖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 작품으로 전하는 그림이 참고된다[참고도판3]. 가는 붓으로 섬세하게 인물들의 표정을 그렸다. 단원 화풍에서 보이는 부드럽고 친근한 얼굴, 눈매 표현이 웃음을 자아낸다. 5폭은 선비가 나귀를 타고 가며 세속을 유람하며 풍정을 보는 행려풍속도行旅風俗圖를 담고 있다. 6폭은 물가의 오리 도상이며 짧은 붓 터치를 통해 생기 있으면서 물결법의 수묵담채로 한적하고 여유로운 물가의 야취野趣를 자아낸다.

[참고문헌]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한국문화예술대계』 13, 일지사, 1999.



[도 2]



[참고도판 1] 김홍도, <녹취취생>, 종이에 수묵담채, 26×35.5cm, 간송미술관 소장.



[참고도판 2] 김홍도, <비선검무>, 비단에 수묵채색, 34×58.2cm, 개인소장.



[도 3]



[참고도판 3] 전 김홍도, <산수도·영모도>, 종이에 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동원 2548).



[도 4]



[도 1]



[도 5]



[도 6]

단원 김홍도 1745-1806?
檀園 金弘道 Kim HongDo

이부탐춘 嫠婦耽春 A Woman's Longing in Spring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6.5×37.4cm

₩ 100,000,000-200,000,000



19세기 전반 단원 김홍도의 《운우도첩雲雨圖帖》은 혜원 신윤복의 《건곤일회첩乾坤一會帖》과 더불어 수준 높은 한국 춘화春畵로 손꼽힌다. 춘화는 남녀의 애정과 성적 결합을 그린 그림으로 한국 춘화는 비교적 관능성을 절제하여 꽃과 나비, 동물 등 자연물에 성적 상징성을 담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단원 김홍도의 춘화첩인 《운우도첩》 제목을 보더라도 구름과 비로 빗대었다는 점에서 조선 춘화만의 품격이 느껴진다.

본 작품은 인물의 동작과 심리를 생동감 있게 묘사한 김홍도의 간결한 필치와 담채의 사용, 운우도첩 춘화와 동일한 화면 크기 등에서 친연성이 확인된다. 춘화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그림이 아닌 은밀한 개인적 감상용으로 제작된 풍속화류 그림으로, 낙관의 경우 운우도첩 역시 후대에 남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작품을 살펴보면, 봄날에 분홍빛의 매화가 가득 핀 나무가지가 담장 안으로 넘어왔다. 소나무에는 두 여인이 걸터앉아 개 한 쌍이 짝짓기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은근한 미소를 짓는 과부와 한 손으로 과부의 치맛자락을 잡은 분홍저고리를 입은 여자아이는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 옆으로는 참새 한 쌍도 짝짓기하고 있다. 제목 <이부탐춘>은 과부가 탐하는 봄이라는 뜻이며, 소복을 입고 있는 과부로 당시 유교적 엄격성을 깨트리는 풍자와 춘정을 즐기는 여인들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이부탐춘>은 국보로 지정된 혜원 신윤복의 《혜원풍속도첩》의 그림과도 같은 주제를 지닌다. 본 작품은 단원의 뛰어난 회화적 예술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등장인물들의 복식, 일상 공간과 당시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하여 해학성과 풍속적 현실성을 보여주는 예술작품이다.

[참고문헌]

1. 이태호, 「한국 춘화의 품위와 매력」, 『Korean Erotic Painting』, 갤러리 현대, 2013.
2. 홍선표, 「조선후기 성풍속화의 사회성과 예술성」, 『朝鮮時代春畵』, 미술과 삶, 1996.
3. 미술사랑편집부, 『韓國의 春畵』, 미술사랑, 2001.



[참고도판]

김홍도, 《운우도첩》 10폭, 종이에 수묵담채, 28×38.5cm, 개인소장.



029

정조 1752-1800

正祖 King Jeongjo

정조어필 正祖御筆 Royal Calligraphy of King Jeongjo

축자 Hanging Scroll
비단에 금니 Gold on Silk
159.5×44cm

₩ 25,000,000-50,000,000

壽祝千秋瓊榮不老 천년의 장수를 축원하니, 아름다운 꽃이 쇠하지 말고
筵開八秩萱茂長春 팔순에 잔치를 여니, 원추리가 무성하여 늘 봄이 되소서

[인문] 朝鮮國, 弘齋

정조 임금이 미상인의 모친의 장수를 축원하며 지은 축하의 글이다. 원추리 [萱草]는 망우초忘憂草라 하여 근심을 잊게 하는 풀인데, 옛날부터 어머니가 거처하시는 북당北堂에 많이 심었으므로 원추리는 모친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030 전 이택균 1808-1892

傳 李宅均 Attributed to Lee TaekGyun

책가도 6폭 冊架圖六幅 Chaekgado, Six-Panel Set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137×278cm

₩ 250,000,000-500,000,000





본 작품은 서책과 화첩, 고동기와 여러 기물들을 그린 책가도로 6폭이 현전한다. 현전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폭 상단에는 은인隱印이 두 과가 그려져 있다. 그 하단으로 삼죽쌍이 향로를 비롯한 단색유자기, 가요자기, 옥경, 두루마리와 문방구 등이 그려져 있다. 2폭 상단은 서책들이 빼곡이 그려졌으며, 그 하단으로 공작깃과 주전자, 자기들과 필침 등이 그려져 있다. 가장 하단은 서책들로 채워져 있다. 3폭은 상단과 하단 모두 서책으로 채워져 있으며, 중단에는 잉어옥기와 모란, 자기들이 표현되어 있다.

4폭과 5폭은 하단 기물의 형태로 보아 두 폭의 순서가 본래 이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폭과 5폭 하단에는 산호걸이와 가요자기에 담긴 국화 등이 그려져 있다. 국화 우측 옆 녹색 자기는 두 폭에 걸쳐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6폭에는 불수감이 담긴 자기와 서책, 인장 등이 그려져 있다.

본 작품의 1폭 상단에 그려진 은인의 내용은 명확히 판독이 어렵지만, 작품에 그려진 기물들의 양식을 통해 보면 이택균(李宅均, 1808-1892, 초명 이형록李亨祿, 1864년 이응록李膺祿 개명, 1871년 이택균 개명) 시기에 그려진 기물들과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복숭아 반쪽 형태의 필침은 현전하는 책가도 작품 중에서도 이택균 시기에 그려진 작품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참고문헌]
 뷰쉬라 타시, 「松石 李亨祿의 冊架圖와 文房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미술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24.



[본 작품]



[참고도판 1] 부분



[참고도판 2] 부분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1. 이택균, 책가도 10폭병풍, 비단에 채색, 290×417.8cm,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2. 이택균, 책가도 10폭병풍, 종이에 채색, 각 150×37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031

단원 김홍도

檀園 金弘道 Kim HongDo

1745-1806?

백납도 10폭병풍

百納圖十幅屏風

Ten-Panel Folding Screen of Baeknapdo

병풍 Folding Screen / 비단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Silk / 29.8×23cm 외 48폭

별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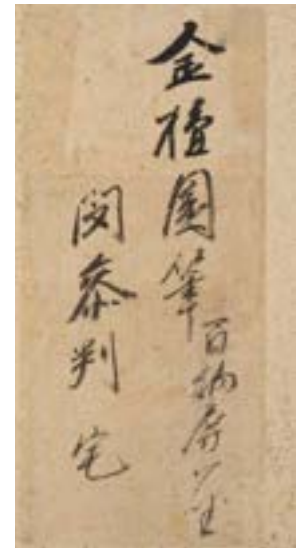
본 출품작의 후면에는 소장기와 그 후 다시 화첩으로 장황한 기록이 있는데, 민참판댁 작은 사랑채에 보관되어 있었던 10폭 백납병을 후에 도배장인 김성묵金聖默, 이승희李承熙, 최첨지崔兪知 세 명이 화첩으로 꾸몄다는 것이다.(아래 사진) 현재는 화첩을 다시 처음의 형식인 백납병풍으로 꾸며져 있다.

金弘道筆
百納屏一坐
閔參判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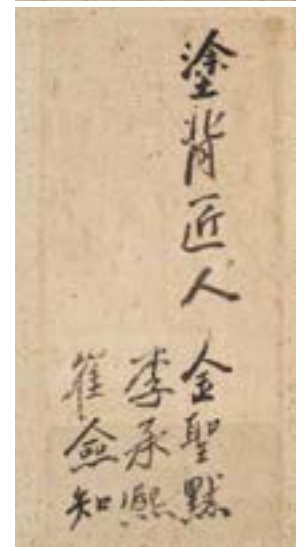


閔參判宅 大中屏十隻小舍廊
민참판댁 대중병 10폭 소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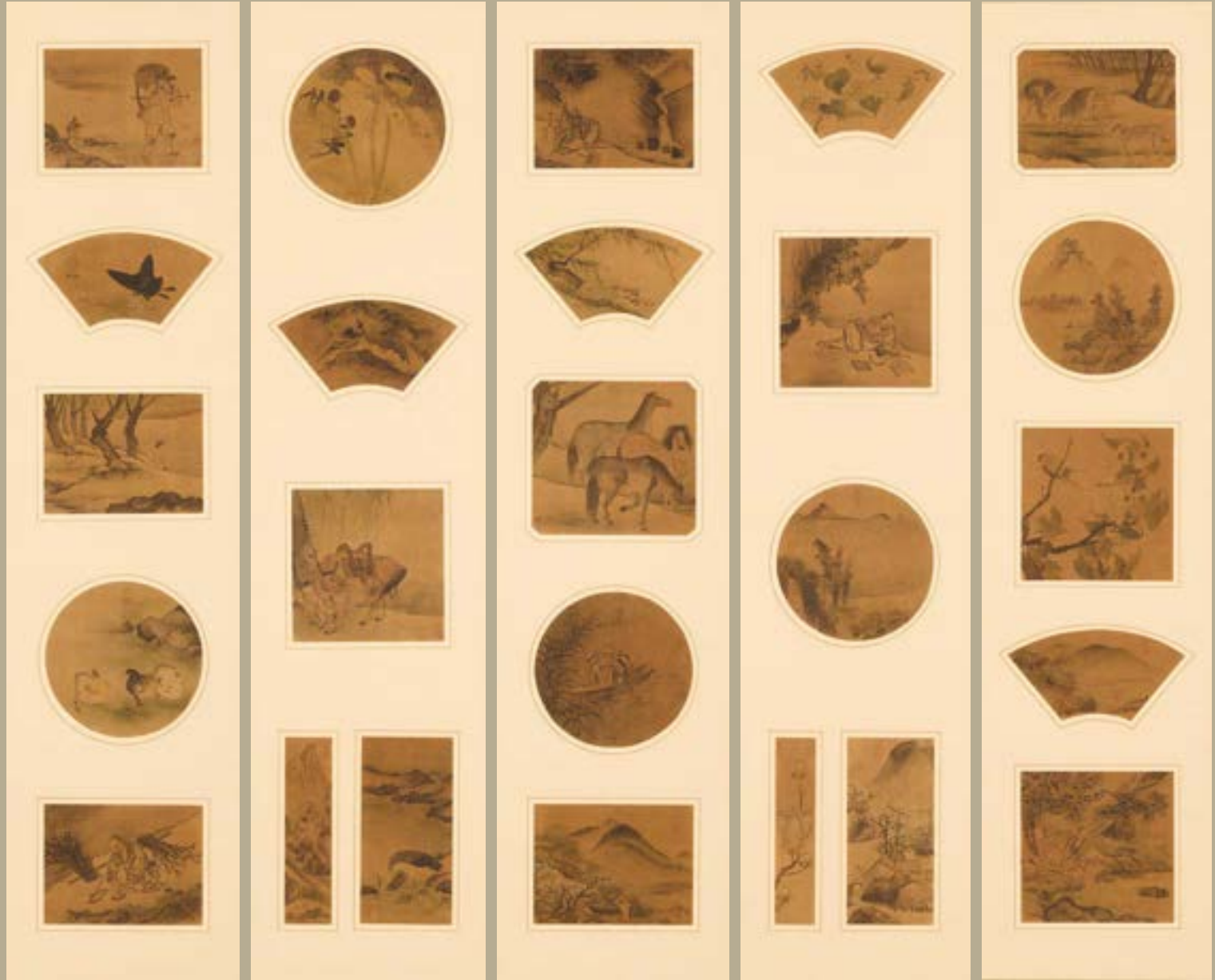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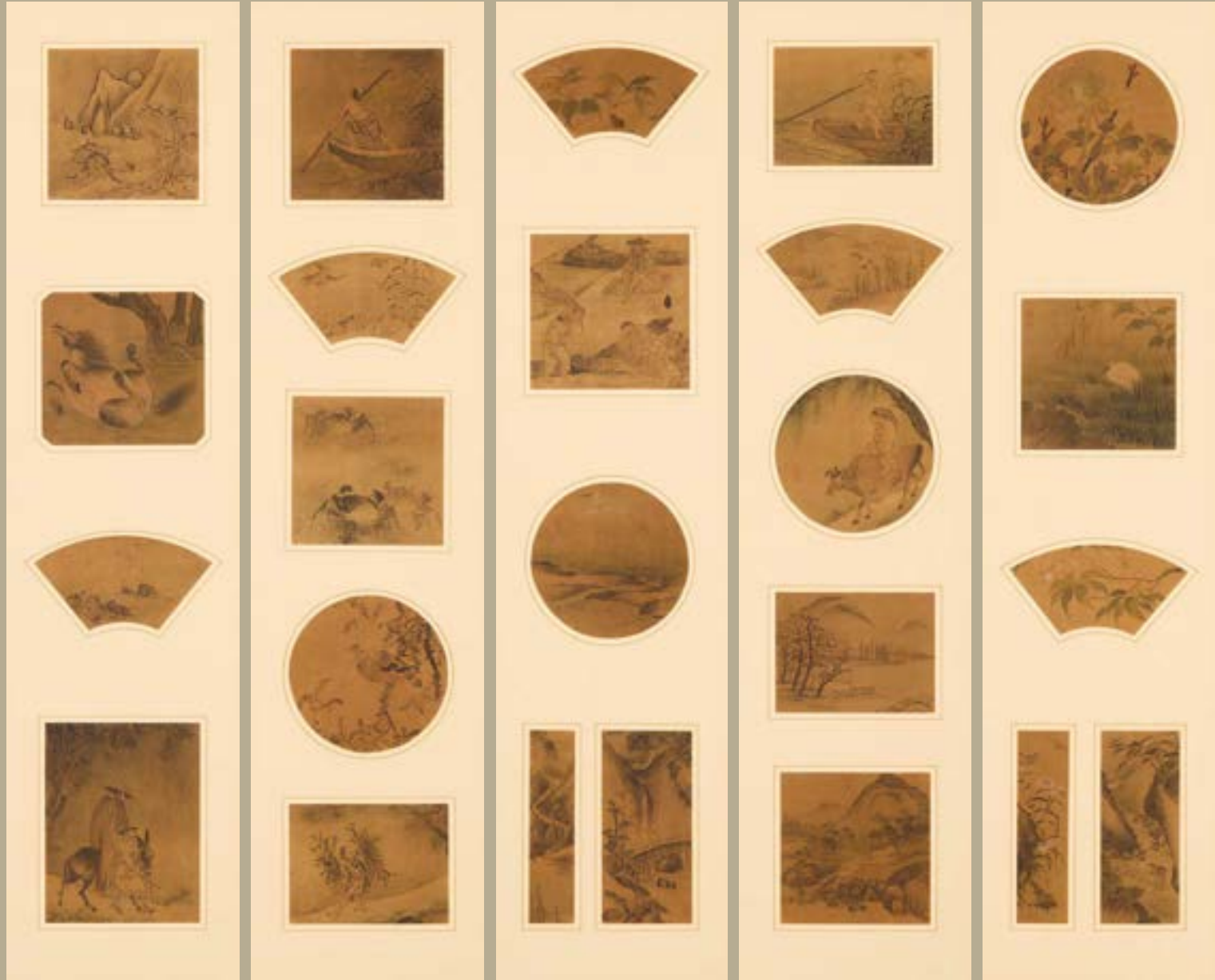
金弘道筆 百納屏一坐 閔參判宅
김홍도 필 백납병 1좌 민참판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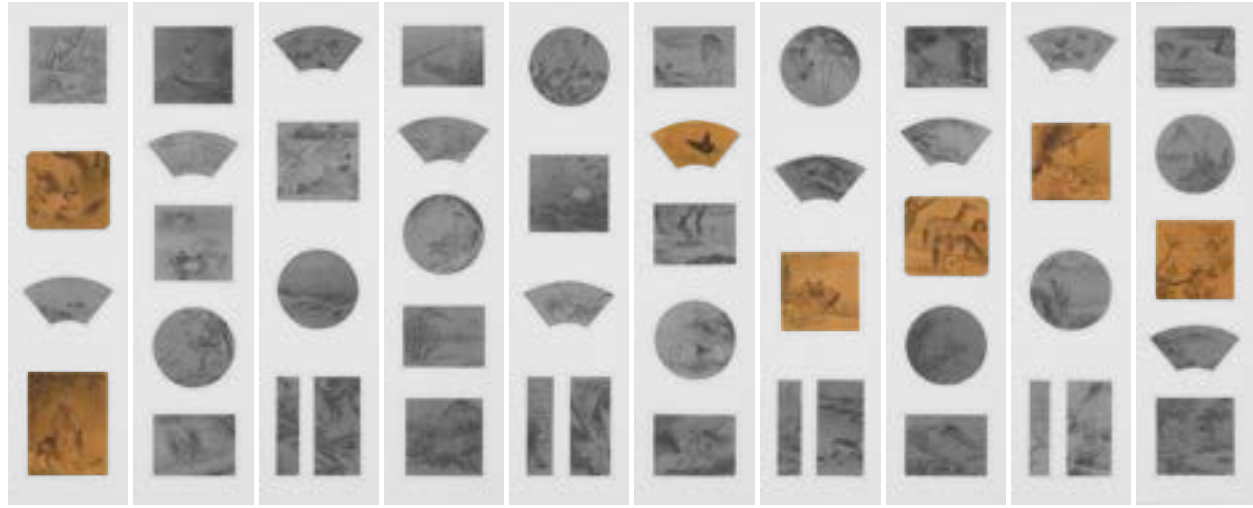


塗背匠人 金聖默 李承熙 崔兪知
도배장인 김성묵 이승희 최첨지



현재 백납병 상태로 꾸며지기 이전의 형태인 화첩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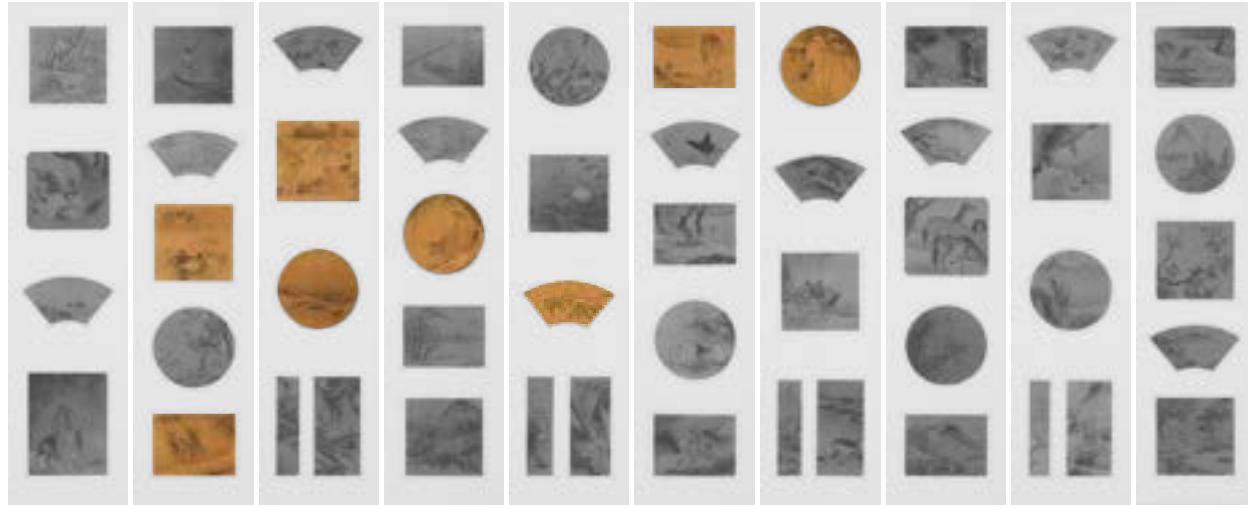


[참고도판 3]



[참고도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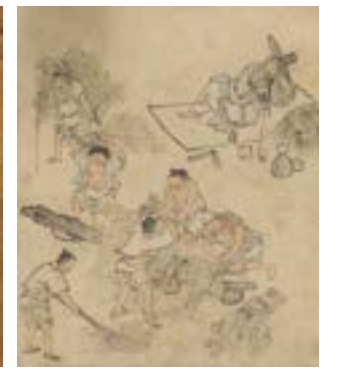
[참고도판] 1, 2, 3. 김홍도, <행려풍속도 8폭병풍>, 종이에 수묵담채, 100×3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 김홍도, <군마도 8폭병풍>, 종이에 수묵담채, 124×55.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참고도판 5]



[참고도판 6]



[참고도판 7]



[참고도판 8]

- [참고도판] 5. 김홍도, <이갑전로도二甲傳蘆圖>, 종이에 수묵, 35.6×45.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6. 김홍도, <벼타작>, 《단원 풍속도첩》, 종이에 수묵담채, 28×23.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7. 김홍도, <행려풍속도 8폭병풍>, 비단에 수묵담채, 90.9×4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8. 김홍도, <행상>, 《단원 풍속도첩》, 종이에 수묵담채, 27.7×23.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032

표암 강세황 1713-1791

豹菴 姜世晃 Kang Se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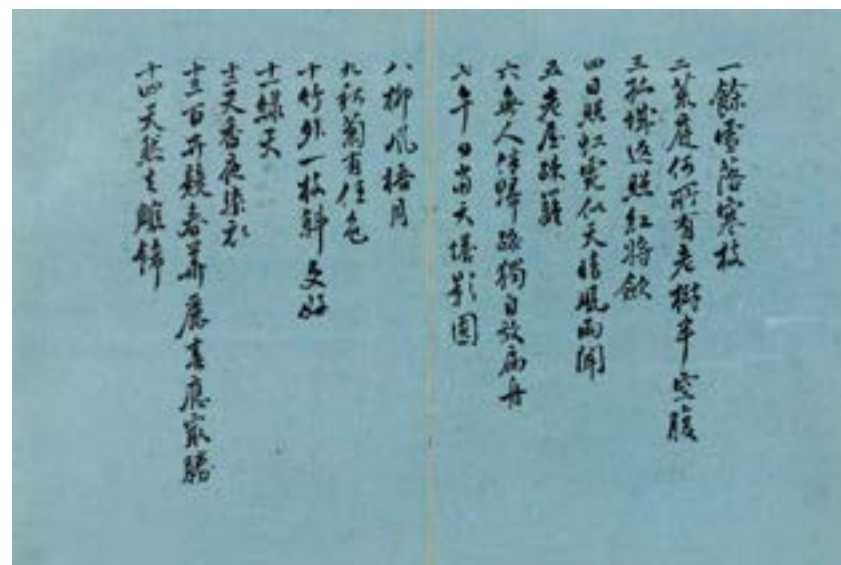
표암묵희 豹菴墨戲 Paintings and Calligraphies

첩(30면) Album of Painting and Calligraphy
비단에 먹, 수묵담채,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Silk
32.2×22.5cm

₩ 300,000,000-600,000,000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圖錄』, 1996, No.78.



[목록]

- 一. 餘雪落寒枝
- 二. 荒庭何所有 老樹半空腹
- 三. 孤城返照紅將斂
- 四. 日照虹霓似 天晴風雨聞
- 五. 老屋疎籬
- 六. 無人伴歸路 獨自放扁舟
- 七. 午日當天塔影圓
- 八. 柳風梧月
- 九. 秋菊有佳色
- 十. 竹外一枝斜更好
- 十一. 綠天
- 十二. 天香夜染衣
- 十三. 百卉競春華 麗春應最勝
- 十四. 天然去雕飾



[내제]

忝齋書畫 忝齋書畫

[인문] 姜世晃字光之號真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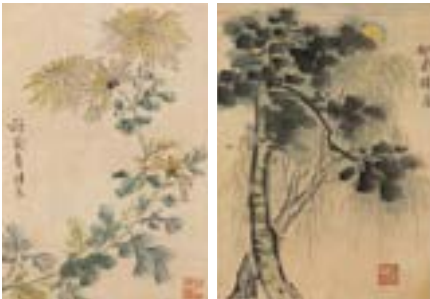
豹菴墨戲
표암묵희



[도 1]



[도 4]



[도 8]



[도 13]

[도 1]

餘雪落寒枝 남은 눈이 찬 가지에서 떨어지다

[인문] 姜世晃氏

聞道成都酒 들으니 성도의 술은
無錢亦可求 돈이 없어도 구할 수 있다네
不知將幾斗 모르겠네, 몇 말을 마셔야
銷得此來愁 나의 수심을 없앨 수 있을지¹⁾

[인문] 松濤

1) 당나라 이승사李崇嗣의 <독수獨愁>라는 시이다.



[도 2]



[도 6]



[도 9]

[도 2]

荒庭何所有 거친 뜰에 무엇이 남았나,
老樹半空腹 늙은 나무도 텅 비었네¹⁾

礪水空山道 시냇물 흐르는 빈산의 길
柴門老樹村 사립문에 늙은 나무 선 마을²⁾

[인문] 世晃

飛鳥去不窮 나는 새는 가고 가서 끝이 없는데
連山復秋色 연이은 산은 다시 가을빛을 띠었네
上下華子岡 화자강을 오르고 내려오는 중에
惆悵情何極 서글픈 신정이 어찌 끝이 있으랴³⁾



[도 3]



[도 7]



[도 11]

[인문] 姜世晃印

- 1) 당나라 엄방國防의 <백장계신리모자독서百丈谿新理茅茨讀書>라는 시의 일부분이다.
- 2) 당나라 두보杜甫의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憶幼子]>라는 시의 일부이다.
- 3) 당나라 왕유王維의 <화자강華子岡>이란 시이다.

[도 3]

孤城返照紅將斂 외로운 성에 석양이 되비치니 붉은 꽃이 묻히네¹⁾

無限詩思 무한한 시 생각

塞驢昨發長安至 저는 나귀 타고 어제 떠나 장안에 이르니
會值秋風掩草關 마침 가을바람 불어 초가집 대문을 닫네

[인문] 忞齋

胡人吹笛戍樓間 호인이 망루 사이에서 피리를 부니
樓上蕭條海月閒 누대는 쓸쓸하고 사막의 달은 한가롭네
借問落梅凡幾曲 묻나니, 낙매화곡²⁾ 모두 몇 수이더냐
從風一夜滿關山 바람 따라 밤새 관문의 산을 울리겠네³⁾

[인문] 光之

- 1) 당나라 두보杜甫의 <저물녘 사안사 종루에 올라 배십에게 부치다[暮登四安寺鐘樓寄裴十]>라는 시의 일부분이다.
- 2) 낙매화곡落梅花曲은 매화락梅花落이나 관산낙매곡關山落梅曲이라고도 하는 악곡樂曲으로, 한 대漢代의 적곡笛曲이다.
- 3) 당나라 고적高適의 <옥문관에서 피리소리 들으며 왕철에게 화답하다[和王七玉門關聽吹笛]>라는 시이다.

[도 4]

日照虹霓似 해가 비치니 무지개가 뜬 듯하고
天晴風雨聞 하늘은 맑은데 비바람소리 들리네¹⁾

[인문] 光之

村晚驚風度 해질 무렵 시골에 급한 바람이 지나고
庭虛過雨霽 텅빈 뜰은 지나는 비가 져서주네
夕陽薰細草 저녁 햇살은 여린 풀에 내리피고
江色映疎簾 강의 물빛은 성긴 주렴을 비추네
書亂誰能秩 책을 어지럽혀도 누가 치워 줄 것인가
盍乾可自添 술잔이 비면 내 스스로 채울 수 있네
時間有餘論 이따금 이러저러한 군소리가 들리지만
未怪老夫潛 숨은 늙은이를 괴이하게 여기지는 않네²⁾

[인문] 忞齋

- 1) 당나라 장구령張九齡의 <호구에서 여산폭포를 바라보며[湖口望廬山瀑布泉]>라는 시의 일부이다.
- 2) 당나라 두보杜甫의 <개인 저녁[晚晴]>이란 시이다.

[도 6]

無人伴歸路 동무도 없이 돌아오는 길
獨自放片舟 나 홀로 작은 배를 띄웠네

[인문] 世晃

遲日園林悲昔游 긴 대낮에 동산에서 옛날 유람을 추억하니
今春花鳥作邊愁 올 봄의 꽃과 새는 변방의 시름만 자아내네
獨憐京國人南竄 홀로 도성에서 남쪽으로 유배 가는 가련함을
不似湘江水北流 북쪽으로 흘러가는 상강만도 못하구나¹⁾

[인문] 姜世晃氏

1) 당나라 두심언杜審言의 <상강을 건너며[渡湘江]>라는 시이다.

[도 7]

日午當天塔影圓 정오의 하늘에 탑 그림자가 원만하네

[인문] 尙友齋

源向春城花幾重 시냇물이 봄 성을 향하니 꽃이 몇 겹 피었는가
江明深翠引諸峰 강물이 맑고 질푸르려 산봉우리를 끌어오네
與君醉失松溪路 그대와 술에 취해 송계 길을 잃으니
山館寥寥傳暝鐘 적막한 산속 집에 저녁 종소리 들려오네¹⁾

[인문] 光之又字德○

1) 당나라 왕창령王昌齡의 <춘원의 연회[宴春源]>라는 시이다.

[도 8]

柳風梧月 버드나무의 바람과 오동나무의 달

[인문] 光之又字德○

秋菊有佳色 가을 국화가 빼어난 빛깔이 있네

[인문] 光之又字德○

[도 9]

竹外一枝斜更好 대나무 곁에 비스듬한 매화 한 가지가 더욱 좋아라¹⁾

[인문] 光之又字德○

一年始有一年春 한 해의 시작은 해마다 봄부터인데
百歲曾無百歲人 백년 세월에 백세를 산 사람은 없었네
能向花中幾回醉 꽃 속에서 취할 때가 몇 번이나 되랴
十千沽酒莫辭頻 열 잔이건 천 잔이건 핑계 말고 사오게²⁾

[인문] 世晃

- 1) 소식蘇軾의 <진태허의 매화에 화답하다[和秦太虛梅花]>시에 “강 머리 천 그루 나무엔 봄이 저물어 가는데, 대나무 밖 한 가지 비껴 있는 게 더욱 좋구나.[江頭千樹春欲闌, 竹外一枝斜更好.]”라는 구절에 보인다
- 2) 당나라 최민동崔敏童의 <잠안성 동쪽 별장에서 잔치하며[宴城东庄]>라는 시인데, 마지막의 사빈辭頻이 원시에는 사빈辭貪으로 되어 있다.

[도 11]

天香夜染衣 빼어난 향기가 밤새 옷을 물들이네

[인문] 光之

蘭氣添新酌 난초 향기는 새 술잔에 더하고
花香染別衣 꽃 향기는 이별하는 옷을 물들이네¹⁾

[인문] 忞齋

1) 당나라 왕발王勃의 <구일에 봉원숙을 생각하며[九日懷封元寂]>라는 시의 일부이다.

[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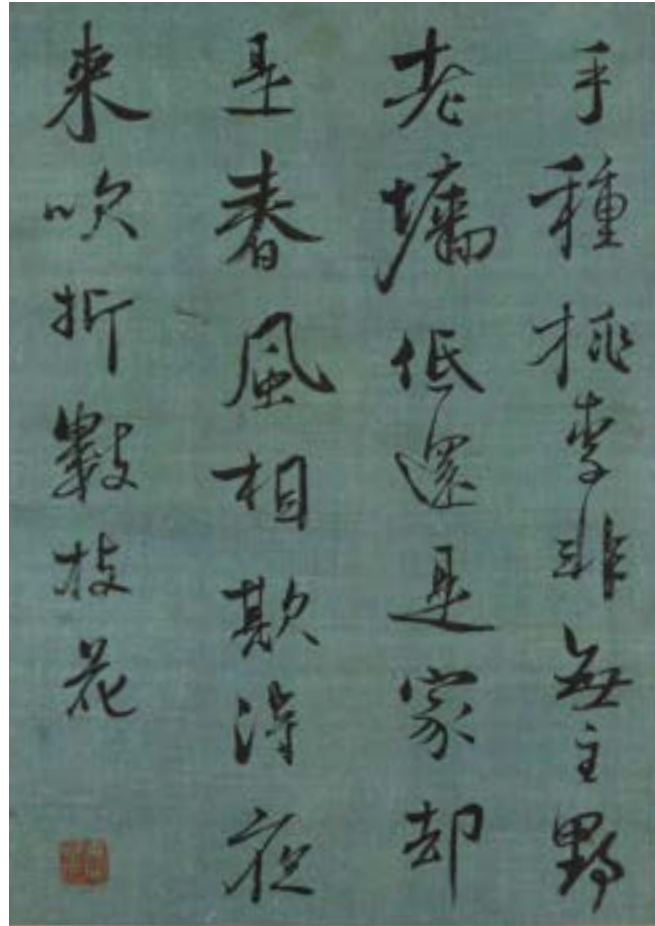
宜陽城下草萋萋 의양성 아래 풀이 싱그럽고,
澗水東流復向西 계곡 물은 동으로 흐르다 다시 서쪽으로
芳樹無人花自落 나무는 사람이 없어도 꽃이 스스로 지고
春山一路鳥空啼 봄 산의 오솔길엔 새만 부질없이 지저귀네¹⁾

[인문] 光之又字德○

夜郎天外怨離居 하늘 밖 아랑에 떨어져 외롭게 사노라니
明月樓中音信疎 밝은 달빛 누각에 비취도 편지는 드무네
北雁春歸看欲盡 봄에 북으로 돌아가는 기러기 모두 보냈거늘
南來不得豫章書 남쪽 와서 예장의 아내 편지를 받지 못했네²⁾

[인문] 忞齋

- 1) 당나라 이화李華의 <봄 나들이 풍경[春行卽興]>이라는 시이다.
- 2) 당나라 이백李白的 <남쪽 아랑에 유배되어 아내에게 부치다[南流夜郎寄內]>라는 시이다.



[도 5]

[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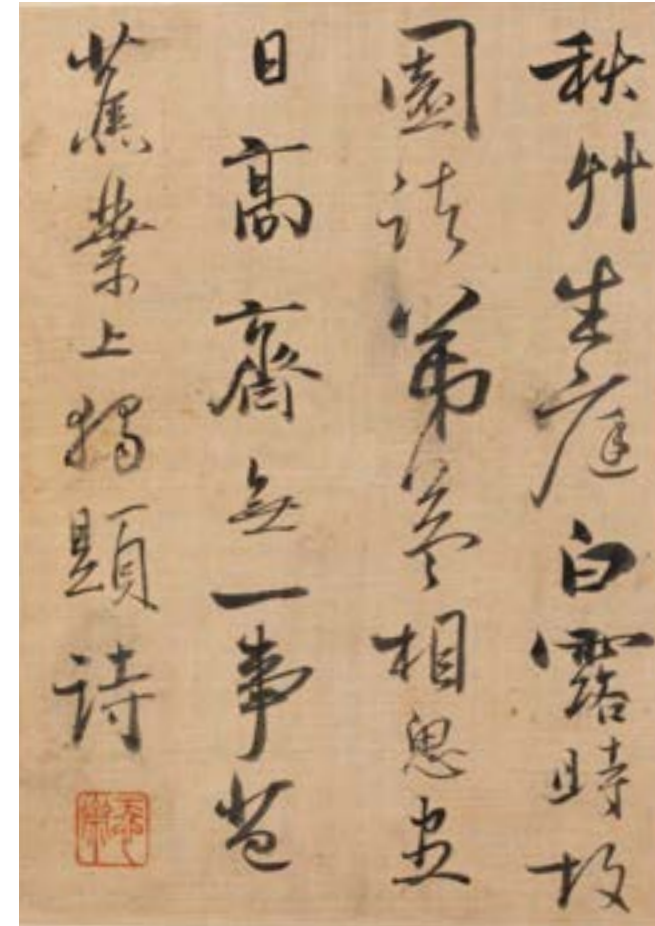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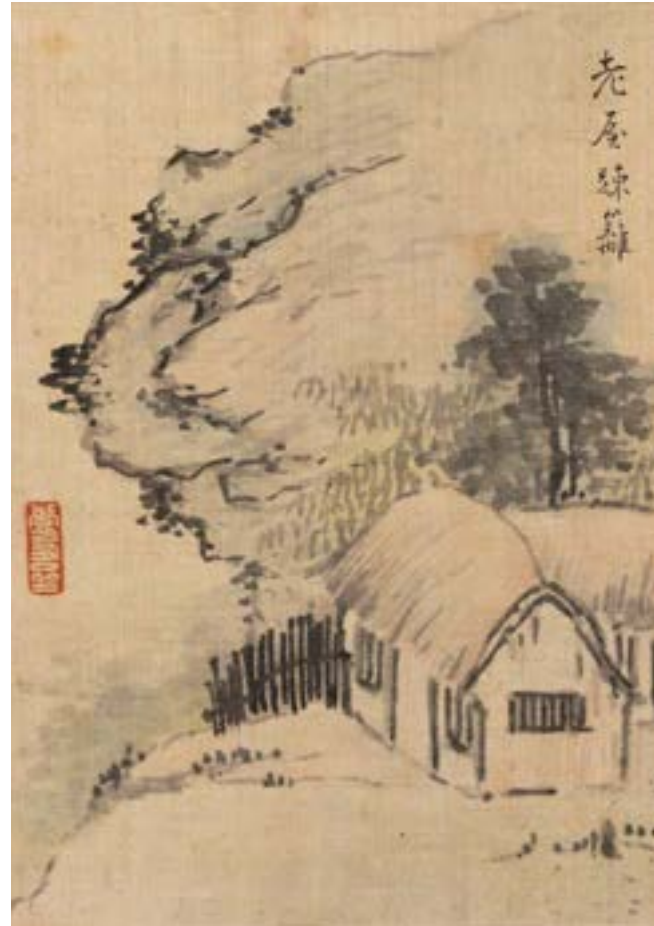
老屋疎籬 오래된 집과 성긴 울타리

[인문] 尙友齋

手種桃李非無主 손수 복숭아나무 심으니 주인이 없지 않고
野老牆低還是家 초야의 늙은이 담장 낮아도 나의 집일세
却是春風相欺得 도리어 봄바람이 나를 속이려는지
夜來吹折數枝花 밤새 불어와 꽃가지 몇 개를 꺾어 놓았네¹⁾

[인문] 世晃

1) 당나라 두보杜甫의 <죽흥시[漫興]> 9수 중의 두 번째 수이다.



[도 10]

[도 10]

綠天 녹천암¹⁾

[인문] 墨華齋

秋草生庭白露時 가을 풀 뜰에 자라고 이슬이 내릴 때
故園諸弟益相思 고향집 아우들이 더욱 그리워지네
盡日高齋無一事 온 종일 서재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내며
芭蕉葉上獨題詩 파초 잎에 혼자서 시를 지어 적어보네²⁾

[인문] 忞齋

1) 녹천암綠天菴은 당나라 승려 회소懷素가 거처하던 암자 이름으로 호남성湖南省 영릉현零陵縣에 있었다. 파초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청이록淸異錄》
2) 당나라 위응물韋應物的 <한가로이 지내며 아우들께 부치다[閑居寄諸弟]>라는 시이다.



[도 12]

[도 12]
 百卉競春華 모든 꽃이 봄의 화려함 다투지만
 麗春應最勝 양귀비꽃이 응당 가장 빼어나다네¹⁾

[인문] 光之

1) 당나라 두보杜甫의 <양귀비꽃[麗春]>라는 시의 일부이다.

天然去雕飾 천연이라 꾸밈이 없네

[인문] 尙友齋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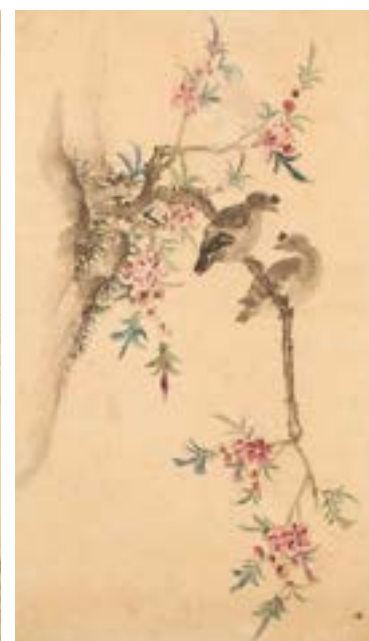
지두화조도 8폭병풍

指頭花鳥圖八幅屏風

Finger-Painted Flowers and Birds

병풍 Folding Screen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각 59.5×34cm

₩ 60,000,000-100,000,000



034

연암 박지원 1737-1805

燕巖 朴趾源 Park JiWon

1737-1805

시고 詩稿 Poem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19×34cm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 40,000,000-80,000,000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1937년 12월 15일

박지원은 1737년 생으로 16세에 유안재 이보천(遺安齋 李輔天, 1714-1777)

의 딸과 혼인했는데, 이 시기부터 이보천에게 수학했다. 더불어 이때부터 이미 처숙妻叔인 이양천李亮天의 실학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18세기의 실학파 지식인들은 외부 세계인 중국과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받아들였다. 박지원 역시 먼저 외국을 다녀온 김석문(金錫文, 1658-1735), 홍대용(洪大容, 1731-1783), 박제가(朴齊家, 1750-1805) 등을 통해 서방문화를 접하였으며, 1780년에는 직접 중국을 방문하며 유리창琉璃廠 등을 통해 서양 문화를 접하였다. 이후 박지원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을 바탕으로 북학北學을 주장했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천에 옮기려 노력했다. 박지원의 대표적인 저서인 『열하일기熱河日記』는 북학파의 사상과 문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보이며, 당시의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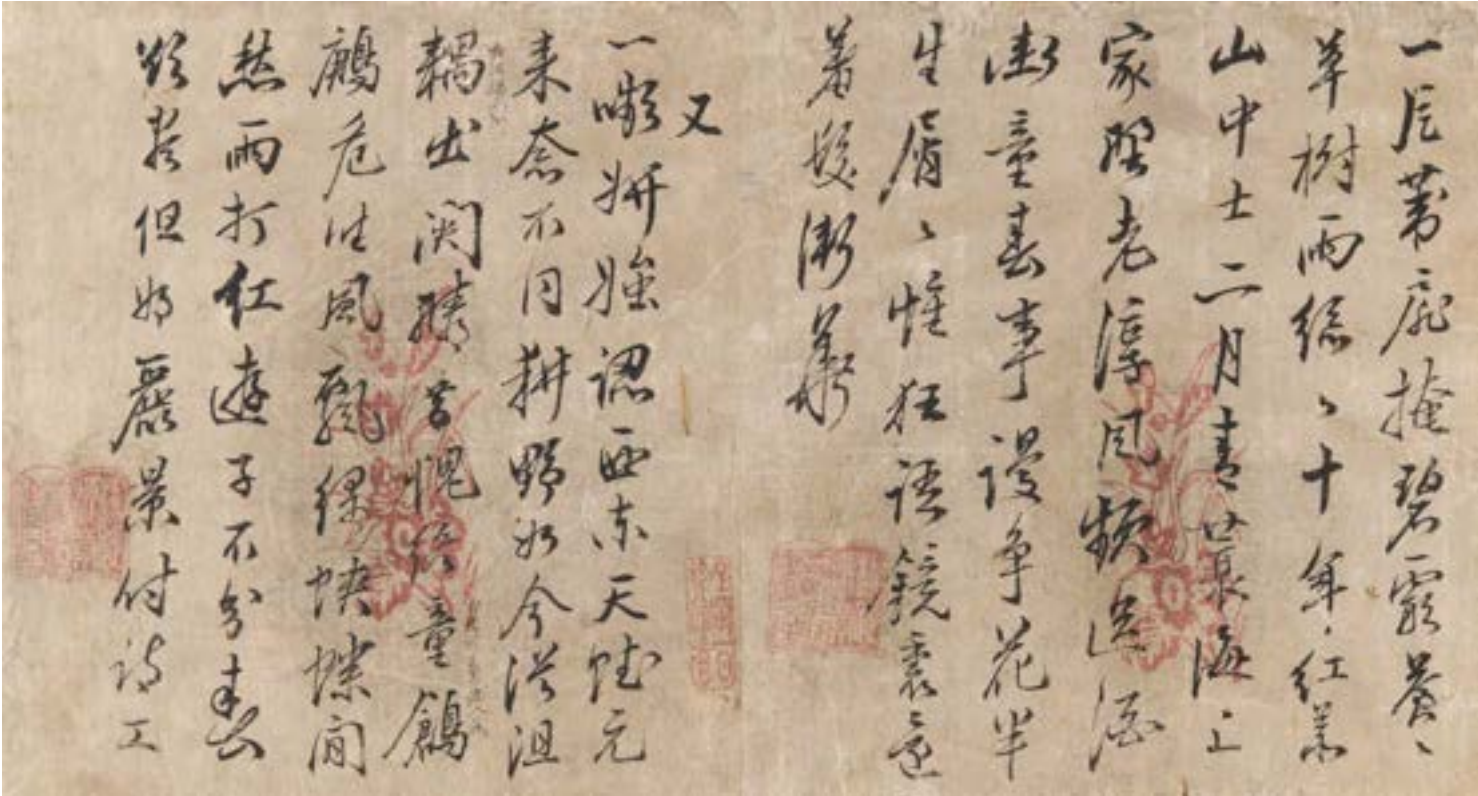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1737년 12월 15일



035

추사 김정희 1786-1856

秋史 金正喜 Kim JeongHui

행서대련 경학예림 行書對聯 經學藝林 Calligraphic Couplets

족자 Hanging Scroll
금분당지에 먹 Ink on Paper
각 129×26.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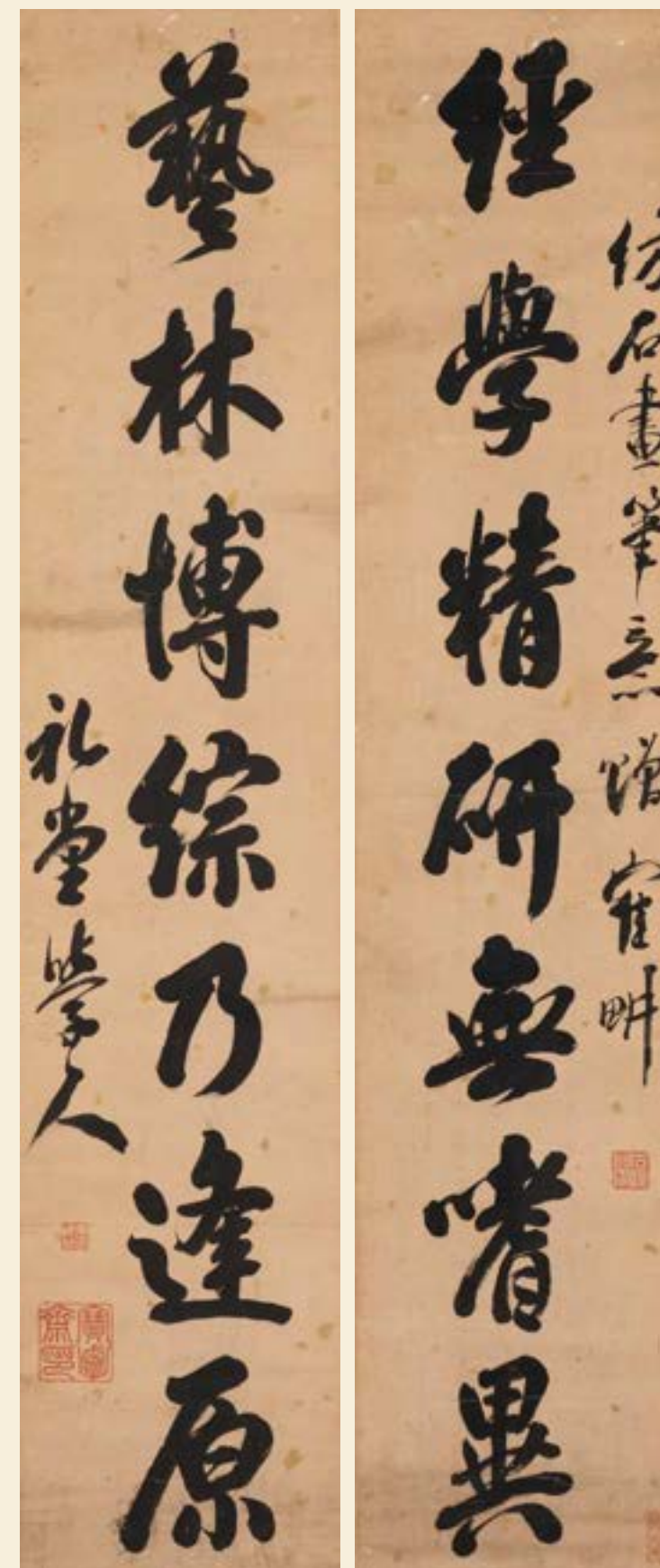
₩ 150,000,000-300,000,000

經學精研無嗜異 경학을 정밀히 연구해 기이한 학설 즐기지 않고
藝林博綜乃逢原 예림에서 두루 능하여 이에 근원을 만나네

仿石畫筆意贈鶴耕 석화石畫의 필의를 방작하여 학경鶴耕에게¹⁾ 주다.
禮堂學人 예당학인

[인문] 石經閣, 東國儒生, 寶草齋印

1) 석화石畫, 학경鶴耕은 현재로서는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畫圖錄』, 1996, No.541.

036

이원구 초상

李元具肖像

Portrait of Lee WonGu

액자 Framed

비단에 채색 Color on Silk

34.7×37.7cm

₩ 30,000,000-80,000,000

본 작품은 성주이씨 가문의 이원구(李元具, 1293-?)를 그린 초상이다. 이원구는 고려 후기 양광도 안렴사 겸 존무사, 판태복사 등을 역임하였다. 성주이씨 가문은 선조들의 초상이 경북 성주의 안동영당에 대대로 봉안되어 전하고 있다. 성주이씨의 증시조인 이장경으로부터 그 후손들의 초상화들은 생존시에 그린 원본을 토대로 1714년, 1746년, 1825년, 1865년 등 18-19세기를 거치며 4-5차례 이모본을 제작하며 전해져왔다. 그때마다 일부를 조금씩 변형하였는데, 이는 그린 화가의 실력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고려시대 인물을 그린 초상의 원본이 조선시대 사상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작품의 주인공인 이원구의 초상 2점이 현전하고 있다. 한 점은 1714년 이모본이며, 다른 한 점은 1825년 이모본이다. 본 작품을 현전하는 이원구 초상 두 점과 비교하면, 작품의 변형과 형식적인 특징은 1825년 이모본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작품은 초상의 얼굴만 현전하고 있기에, 얼굴 부분의 특징을 보면 눈동자와 얼굴 일부에 음영법이 사용되어 18세기 중반 이후 초상화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음영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은 1825년 본이다. 복식의 형식은 1714년 본과 1825년 본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작품은 1825년 본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작품은 18세기 중반 초상화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며, 작품의 형식은 19세기 초반 초상화와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작품이 그려진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윤진영, 「星州李氏 家門의 초상화 연구」, 『藏書閣』2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참고도판]

1. <이원구 초상>, 1714년, 비단에 채색, 142×80cm, 안산영당 소장.
2. <이원구 초상>, 1825년, 비단에 채색, 155×102cm, 안산영당 소장.



037

위당 신헌 1810-1884

于石 申櫨 Shin Heon

묵란도 墨蘭圖 Orchid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 Ink on Paper

28.5×22.5cm

₩ 4,000,000-8,000,000

幽蘭生前庭 난초가 앞뜰에 자라나
含薰待清風 향기 품고 맑은 바람 기다리다
清風脫然至 맑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니
見別蕭艾中 썩대 속에서 도드라져 보이네

[인문] 蘭石堅貞, 養石, 紅蘭吟館墨緣

이 작품은 신헌(申櫨, 1810-1884)이 초년기에 그린 난초 그림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중국 동진, 남조시기 시인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시 <음주飲酒> 20수 중 제17수이다. 신헌의 초명은 신관호申觀浩로 1868년(고종5)에 신헌申櫨으로 공식 개명하였는데, 양석養石은 신관호로 행세할 적에 사용한 호로 보인다. 난초 그림에 능하였다.

신헌의 본관은 평산平山, 초명은 관호觀浩, 자는 국빈國賓, 호는 위당威堂·금당琴堂·동양東陽·우석于石 등이다. 조선후기 금위대장, 훈련대장, 진무사 등을 역임한 무신이며 개항기를 전후하여 외교가로도 활동하였다. 전형적인 무관 가문 출신이지만 정약용과 김정희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강위·박규수 등 개화파 인물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 대원군의 신임을 받아 형조·병조·공조판서를 역임하였고,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총융사總戎使로 강화의 염창鹽倉을 수비하였다. 1876년 전권대관에 임명되어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고, 1882년 조미수호조약을 체결하는 등 조선의 개항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038

고람 전기 1825-1854

古藍 田琦 Jeon Gi

장심시회도축 澄心詩會圖軸 Landscape and Calligraphy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25.4×94.5cm

₩ 80,000,000-200,000,000

View on Art198

View on ArtKorea

View on ArtNet

장심정에서 조희룡을 그리워하네

View on Art198

View on ArtKorea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View on Ar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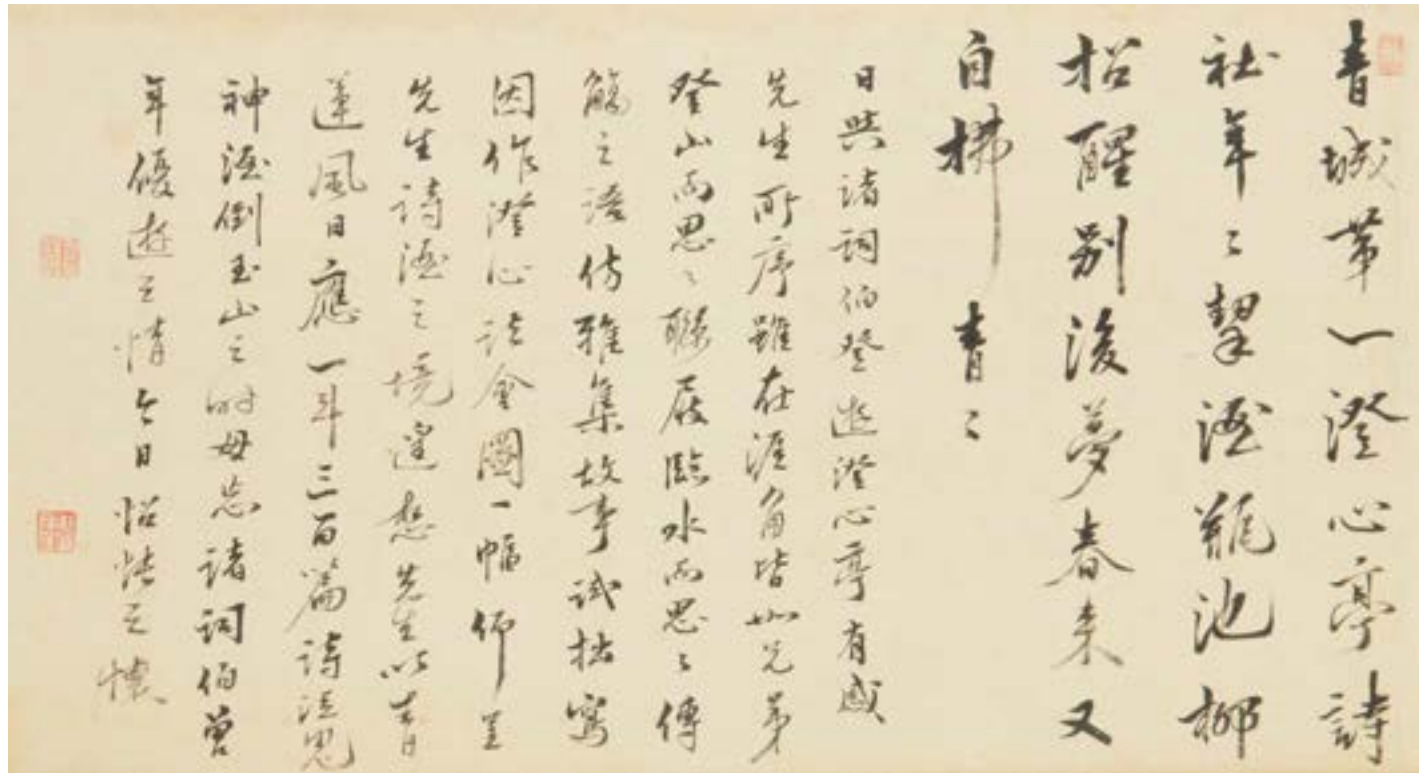
View on ArtNet



[수록처]

포스코미술관, 『人, 사람의 길을 가다

(포스코 창립 51주년 기념 특별전)』, 2019.



[인문] 大雅, 田琦, 古藍

靑城第一澄心亭 청성에서 으뜸가는 이 정심정에서
 詩社年年挈酒瓶 해마다 시 모임에 술병 들고 모였네
 池柳招醒別後夢 연못가 버들은 이별 뒤의 꿈을 불러 깨우려
 春來又自拂靑靑 봄이 오자 또 절로 푸른 가지를 휘날리네

日與諸詞伯登遊澄心亭, 有感先生所序. 雖在涯角, 皆如兄弟, 登山而思思聯展, 臨水而思思傳觸之語. 仿雅集故事, 試拙寫因作澄心詩會圖一幅, 仰呈先生詩酒之境. 遙想先生以靑蓮風日應一斗三百篇, 詩泣鬼神酒倒玉山之時, 毋忘諸詞伯會年優遊之情, 今日招懷之懷.

날마다 여러 사백들과 함께 정심정에 올라 유람하는 즈음에, 선생께서 서문에서 “비록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우리 모두는 형제와 같으니, 산에 올라가면 함께 신발을 나란히 할 것을 생각하고, 물가에 임해서는 술잔을 함께 돌릴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느낌이 일었다. 이에 소동파의 서원아집西園雅集의 고사를 본떠 그림을 그려 이내 「정심사회도澄心詩會圖」 한 폭으로 만든 뒤, 이를 선생께서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곳에 올렸다.

멀리서 생각건대 선생께서는 청련거사靑蓮居士 이백李白처럼 바람 부는 날이면 한 말의 술을 마시며 3백 편의 시를 짓고, 시가 이루어져 귀신을 울게 하거나 술을 흥뻑 마셔 옥산玉山처럼 쓰러질 때, 여러 사백들과 예전에 여유롭게 노닐던 감정과 오늘날 서글프게 그리워하는 심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문] 金容鎭家珍藏, 閻裏工夫澹中滋味

039

석파 이하응 1820-1898

石坡 李昞應 Lee HaEung

석연 이공우 1805-1877

石蓮 李公愚 Lee GongU

운계첩(매죽난국) 芸溪帖(梅竹蘭菊) Collaborative Album

첩(17면) Album of Painting and Calligraphy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각 25.4×32.8cm

₩ 50,000,000-120,000,000

[표지]
芸溪帖 운계첩
梅竹蘭菊 매죽난국



[수록처]
『幽玄齋選 韓國古書圖錄』, 1996, No.127, 569.

석연 이공우(石蓮 李公愚, 1805-1877)와 석파 이하응(石坡 李昞應, 1820-1898)이 사군자의 화목書目별로 그림을 그려 합본한 첩이다. 4쪽의 난초는 이하응이 그렸고, 나머지 13쪽은 이공우가 그렸다. 제작 시기는 이공우의 도장에 “영빈과 동갑[穎濱同庚]”이라 한 것을 참고하면, 영빈穎濱은 송나라 소철(蘇軾, 1039-1112)로 73세로 작고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이공우가 말년에 이하응과 함께 나눠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공우의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주삼周三·공여公汝, 호는 석연石蓮·두강초부荊樵夫이다. 월사 이정귀(月沙 李廷龜, 1564-1635)의 후손으로 부친은 세자시강원 문학을 지낸 이기수(李驥秀, 1783-1816)이며 형제는 서화에 능했던 채석 이필우(采石 李弼愚, 1814-?)이다. 이공우는 목매도로 이름을 얻어 김정희, 권돈인 등 예술계의 명사들과 교류하였다.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을 지냈다.



[도 1]
色香如其人 빛깔과 향기가 그 사람과 같도다
小香評 소향이 평하다.

[인문] 燭香夜讀書, 看山如讀書, 穎濱同庚



[도 3]
[인문] 看山如讀書, 石蓮



[도 8]
與君同心 그대와 같은 마음일세
[인문] 石坡



[도 16]
[인문] 看山如讀書, 穎濱同庚



[도 9]
[인문] 石坡



[도 2]
[인문] 公, 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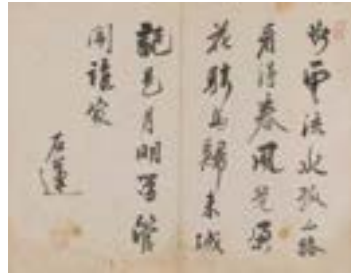
[도 4]
[인문] 石, 蓮



[도 5]
[인문] 石蓮



[도 6]
[인문] 無上〇〇



[도 7]
斷雲流水孤山路
구름 끊어지고 물 흐르는 외로운 산길에
看得春風幾朵花
봄바람 맞아 핀 몇 송이 꽃을 보네
騎馬歸來城郭是
말 타고 돌아오니 성곽은 그대로인데
月明簫管鬧誰家
밝은 달 피리소리는 뉘집에서 요란한가

石蓮 석연
[인문] 有琴書門主人, 公愚圖書



[도 10]
[인문] 石坡



[도 11]
[인문] 石坡



[도 12]
[인문] 看山如讀書, 妙香館



[도 13]
[인문] 看山如讀書, 妙香館,
燻香夜讀書



[도 14]
風雪影子於此可觀
눈보라가 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香翁墨 향옹이 그린다.

[인문] 燻香夜讀書, 妙香館



[도 15]
爲主人寫 주인을 위해 그린다.
香翁 향옹.

此墨君 먹으로 그린 대나무.
[인문] 燻香夜讀書, 妙香館



[도 17]
[인문] 穎演同庚, 看山如讀書



040

고종 1852-1919

高宗 King Gojong

고종어필 高宗御筆 Royal Calligraphy of King Gojong

축자 Hanging Scroll
비단에 금니 Gold on Silk
112×31.5cm

₩ 8,000,000-20,000,000

朝開雲氣擁 아침에 열면 구름 기운 엉겼고
暮掩薜蘿深 저녁에 닫으면 푸른 담쟁이 무성하네
自笑農門者 우스워라, 새벽 문지기가
那知孔氏心 어찌 공자의 마음을 알았으랴¹⁾
珠淵 주연

[인문] ○御○○, 珠淵

1)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 B.C. 542-B.C. 480)와 연관된 고사이다. 자로가 석문石門에서 유숙할 때, 신문農門 즉 어진 덕을 가졌으면서도 성문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새벽에 어디서 왔냐고 묻자, 공씨孔氏에게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신문이 “세상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인가?[是知其不可而爲之者與]”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논어 헌문論語 憲問》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의 <무이정사잡영武夷精舍雜詠> 중의 석문石門塙라는 시를 고종高宗이 비단에 금니로 쓴 것이다. 주연珠淵은 고종의 호이다.



041

서수도

瑞獸圖
Auspicious Beasts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채색 Ink and Color on Paper
118×53cm

₩ 5,000,000-10,000,000



042

자수괴석화접도

刺繡怪石花蝶圖

Embroidered Flowers and Butterflies

액자 Framed
비단에 자수 Embroidered on Silk
37.5×175.9cm

₩ 12,000,000-30,000,000



043

의재 허백련 1891-1977

毅齋 許百鍊 Heo BaekRyeon

산수도 山水圖 Landscape

1951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75×142.2cm

₩ 5,000,000-20,000,000



의재 허백련은 전통 남종화의 필묵을 바탕으로 관념적 산수에서 벗어나 향토적 정서와 서정성을 바탕으로 근대 한국 산수화의 변화를 이끈 화가이다. 본 작품에서 논과 밭, 사찰, 사람들이 거주하는 기와집 등 생활 요소를 화면에 도입하여 농어촌의 삶을 보여준다. 화면을 굵이 가로지르는 물길과 근경-중경-원경의 안정된 구도 속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느껴진다. 담묵 중심의 부드러운 필치와 담채로 소박한 서정성을 구현하였다.

李笠翁曰，余生平愛山水，但能觀人畫，而不能自畫。間嘗舟車所至，不泛摩詰長康之流，降心問道，多憾額曰“此道可以意會，難以形傳。”予甚爲不解。今一病經年，不能出遊，坐臥升堂，屏絕人事，猶幸湖山在我几席，寢食披對，頗得臥遊之樂。因署一聯云‘盡收城郭歸簷下，全貯湖山在目中。’

이입옹李笠翁이 말하였다.

나는 평생 산수를 사랑했는데, 다만 남의 그림을 보는 것에 능할 뿐 스스로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였다. 근래 들어 배와 수레가 닿을 가까운 곳에 마힐(摩詰, 왕유)과 장강(長康, 고개지) 같은 부류가 적지 않으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림에 대해 물었더니, 대부분 이 맛살을 찌푸리며 대답하기를, “그림의 도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말로 전하기는 어렵소.”라고 하였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좀처럼 알 수 없었다.

지금 해를 넘기도록 병을 앓느라 밖으로 나가 유람할 수가 없어, 작은 집에서 앉고 누우며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었는데, 다행히 호수와 산을 그린 그림이 나의 책상에 있어 아침 저녁으로 펼쳐 마주하는 중에 와유臥遊의 즐거움을 자못 얻었다. 이에 ‘성곽을 처마 아래에 모두 거둬들이고, 산수를 눈속에 모두 비축하였네.’라는 시 한 구절을 지었다.

辛卯榴花之節，毅齋散人。

신묘년(1951) 석류꽃 피는 계절에 의재산인.

[인문] 許百鍊印，毅齋

위의 글은 《개자원화보芥子園畫譜》의 서문에 실려 있다. 이입옹李笠翁은 청나라 이어(李漁, 1611-1680)를 가리킨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문학에 빼어났으나 청나라가 중원을 정복하자 벼슬을 사양하고 저술 및 연극의 연출에 몰두하였다. 나중에 남경으로 이사하여 개자원芥子園이란 별장을 건립하였고, 이곳에서 《개자원화보》를 간행하면서 서문을 지었다.

044

청전 이상범 1897-1972

靑田 李象範 Yi SangBom

산촌효색 山村曉色 Landscape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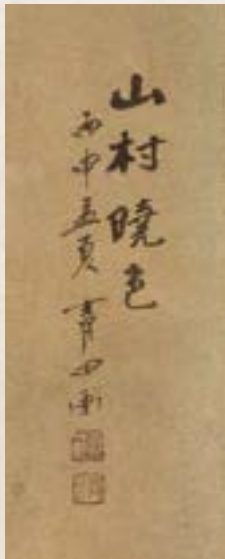
액자 Framed

종이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Paper

78.5×181cm

₩ 100,000,000-250,000,000

본 작품은 창의문 아래 산촌의 새벽 풍경을 그린 것으로, 청전 양식을 원숙하게 구사하는 1950 년대에 제작된 산수화이다. ‘청전 양식’은 남종화 기법을 바탕으로 전통 산수화를 계승하면서 우리네 아트막한 아산의 소담한 풍경을 담아내는 향토성을 결합하여 한국적 산수의 정취를 근 대적 감각으로 표현한 양식이다. 화면에 풀섶과 나무는 갈필과 절대준을 변형한 필묵법으로 표 현하였고, 수묵담채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위쪽으로 창의문(자하문)의 성곽과 문루 가 보이는데, 산허리를 오르고 있는 세 명의 지계꾼 모습에서 당시 걸어 넘던 창의문의 정겨운 시골 풍경을 알 수 있다. 서울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 있는 창의문은 본 작품에서 산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려져 있다. 현재 창의문 근방 아래에는 청전이 살았던 가옥이면서 그 의 기념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청전이 자신 집에서 가까운 창의문을 실제로 보며 작업했던 것으로 짐작하며 근대 시기 서울의 실제 경치를 그린 실경산수로서 의미가 크다.



山村曉色 산촌의 아침 풍경
丙申 孟夏 靑田畫 병신년(1956) 맹하(음력 4월) 청전 그리다.

[인문] 象範, 靑田

045

박정희 1917-1979

朴正熙 Park ChungHee

농공병진 農工竝進 Calligraphies

196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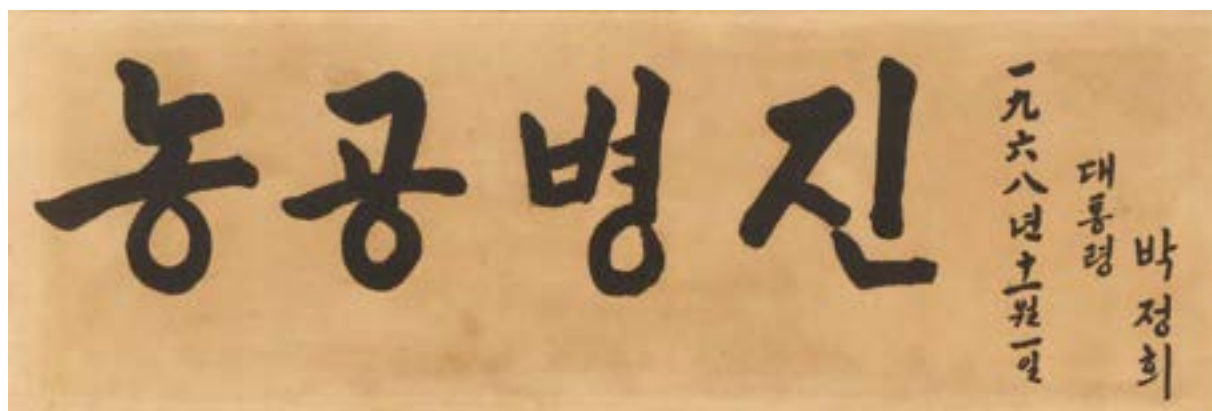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29×87.5cm

₩ 6,000,000-15,000,000

농공병진農工竝進은 농업과 공업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산업 기반의 균형 있는 성장을 강조하는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농공병진에 의해 균형있게 배양되는 국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는 당시 경제 개발과 산업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046

백범 김구 1876-1949

白凡 金九 Kim Gu

사물삼성 四勿三省 Calligraphies

1949

액자 Framed

종이에 먹 Ink on Paper

108.5×35.5cm

₩ 12,000,000-25,000,000

四勿三省 사물삼성
大韓民國三十一年四月二十九日 尹奉吉 義士 在上海 虹口 公園 舉義紀念 七十四歲 白凡 金九
대한민국 31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흥커우 공원 거의 기념 74세 백범 김구

[인문] 金九之印, 白凡

사물四勿은 논어 「안연顔淵」에 나오는 말로 ‘예禮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라.’ 라는 말이며, 삼성三省은 논어 「학이學而」에 나오는 말로 ‘남을 위하여 계획하는 데 충성스럽지 못하였는가, 벗과 교제하는데 미답지 못하였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잊지 않았는가’ 하는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한 증자曾子의 일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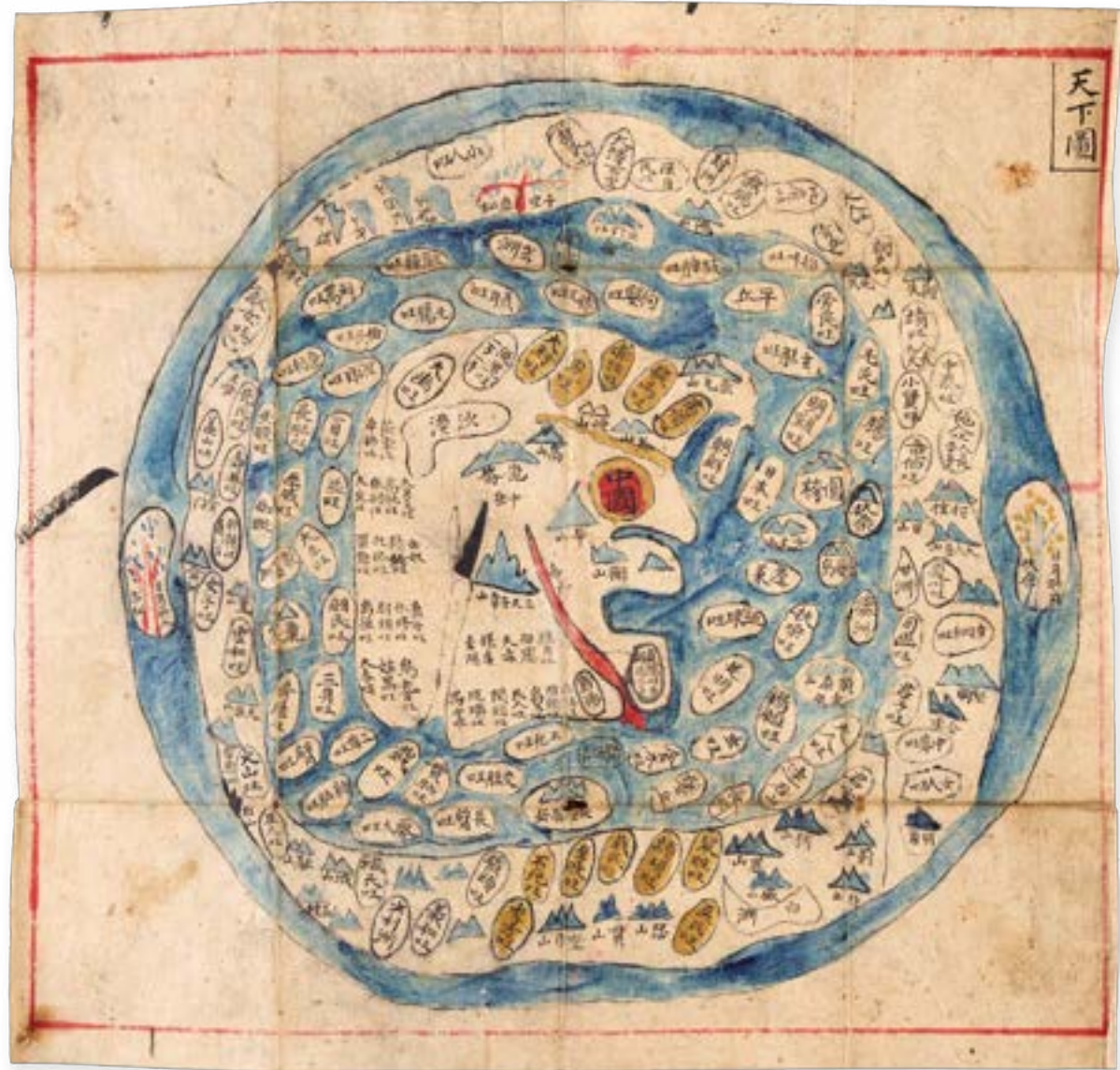
047

천하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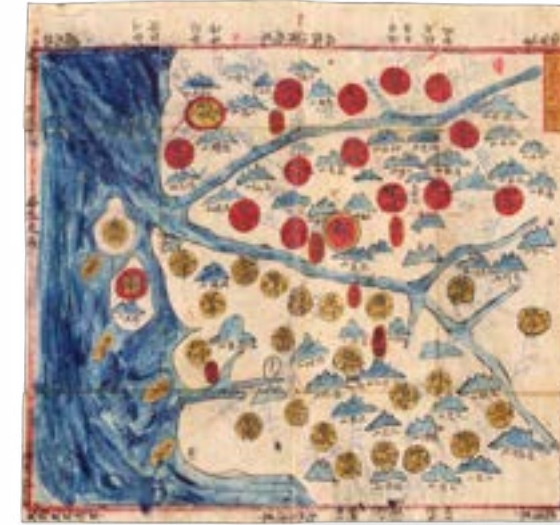
天下總圖
Maps

첩(15면) Album of Painting
종이에 채색 Color on Paper
각 27.6×29.5cm

₩ 3,000,000-6,000,000



[도 15]
天下圖천하도



[도 9]
京畿道경기도
三十七官37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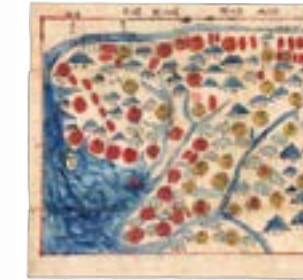
[도 10]
八道팔도



[도 1]
寧古塔영고탑



[도 2]
咸鏡道함경도
二十三官24관



[도 3]
平安道평안도
四十四官44관



[도 4]
黃海道황해도
二十四官24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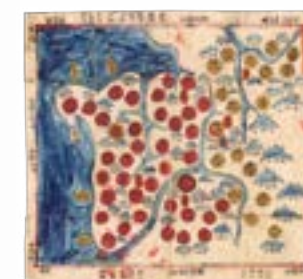
[도 5]
江原道강원도
二十六官26관



[도 6]
慶尙道경상도
六十七官67관



[도 7]
全羅道전라도
五十七官57관



[도 8]
忠清道충청도
五十四官54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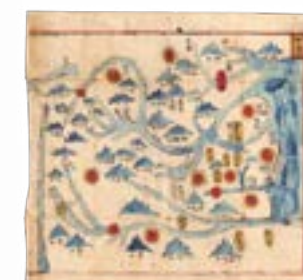
[도 11]
日本일본



[도 12]
琉球國유구국



[도 13]
長城장성



[도 14]
中原중원

048

서경전도

西京全圖

Map of Pyeongyang For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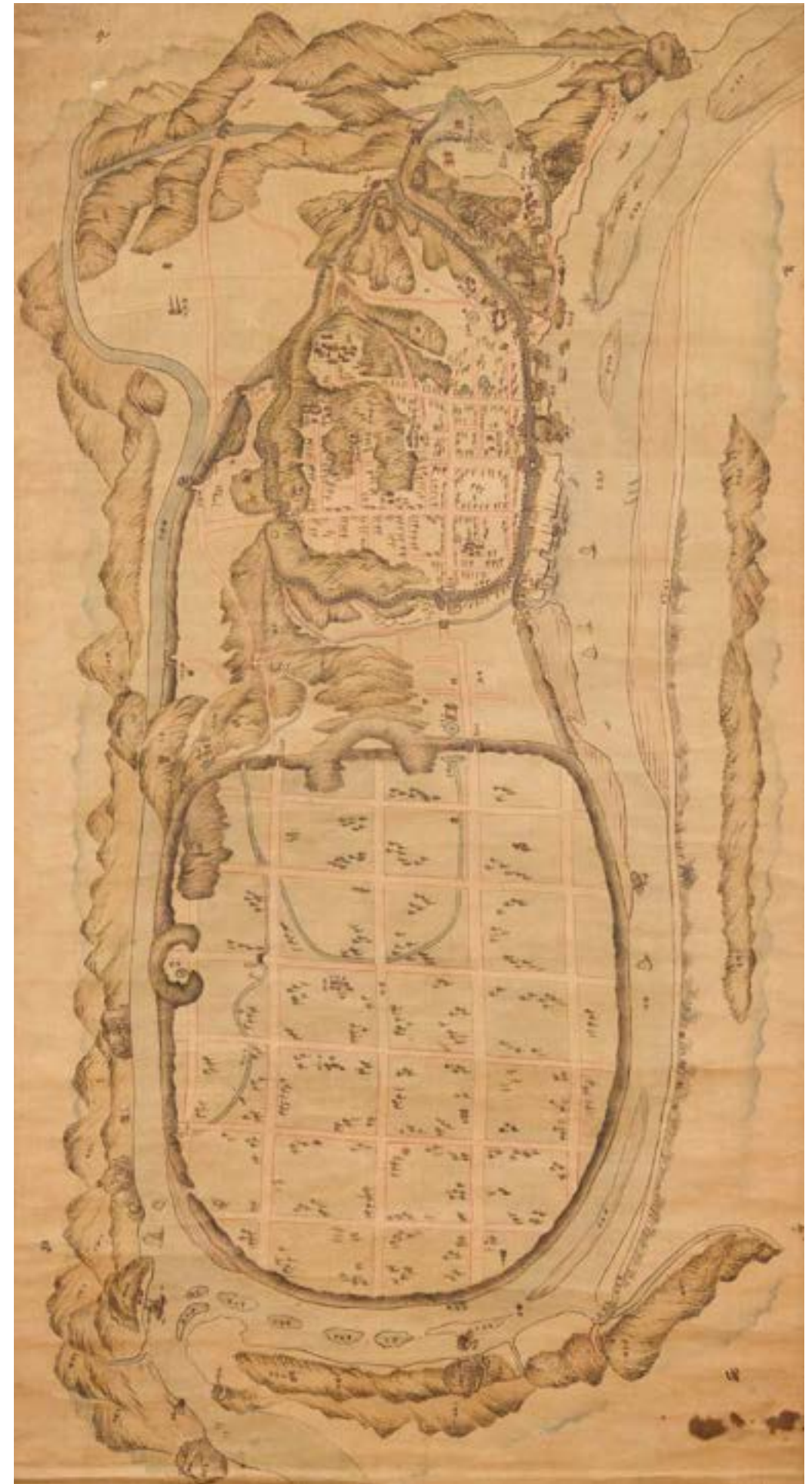
축자 Hanging Scroll
비단에 수묵담채 Ink and Color on Silk
170×90cm

₩ 20,000,000-40,000,000

본 작품은 평양성을 지도 형식으로 그린 작품이다. 화면은 일반적인 평양성도처럼 가로 구도가 아닌 세로 구도로 그려져 대동강이 U자 형태로 평양성을 감싸는 구도로 배치되었다. 화면의 상단에는 평양성 내성이 그려졌으며, 관청을 비롯한 각종 건물들이 표현되었다. 그 아래로 중성과 외성이 그려져 있다. 화면의 좌측 하단 대동강과 보통강이 만나는 지점에는 증기선이 그려져 있어 19세기 후반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작품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고려대학교박물관 본에는 상단에 서경전도西京全圖라는 제목이 써있어 작품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도판]
<서경전도>, 비단에 채색, 158.7×85.7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PART 2

도자

陶磁

CERAMICS

Lot.049 - 073

049

백자화형연적

白磁花形硯滴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高 3.3
口徑 5
底徑 5

₩ 6,000,000-12,000,000



050

석간주어형연적

石間硯魚形硯滴
Seokganju Water Dropper

高 14
口徑 18
底徑 5

₩ 3,000,000-6,000,000

051

청자음각초화문화형잔

靑磁陰刻草花紋花形盞

Celadon Cup with Incised Decoration

高 8
口徑 8.1
底徑 4.2

₩ 2,000,000-5,000,000



052

백자청화모란문'수'명잔

白磁靑畫牡丹紋'壽'銘盞
Blue and White Porcelain Cup

高 5.4
口徑 6
底徑 2.8

₩ 5,000,000-10,000,000



053

백자청화편복문사각소병

白磁靑畫蝙蝠紋四角小瓶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高 6.5
口徑 1.3
底徑 2.5

₩ 12,000,000-30,000,000



054

백자청화산수어해문접시

白磁靑畫山水魚海紋接匙
Blue and White Porcelain Dish

高 4.2
口徑 19
底徑 10.8

₩ 20,000,000-40,000,000



055

분청사기조화철화어문호

粉靑沙器彫花鐵畫魚紋壺

Buncheong Jar with Incised and Iron-Painted Decoration

高 22.7
口徑 12.2
底徑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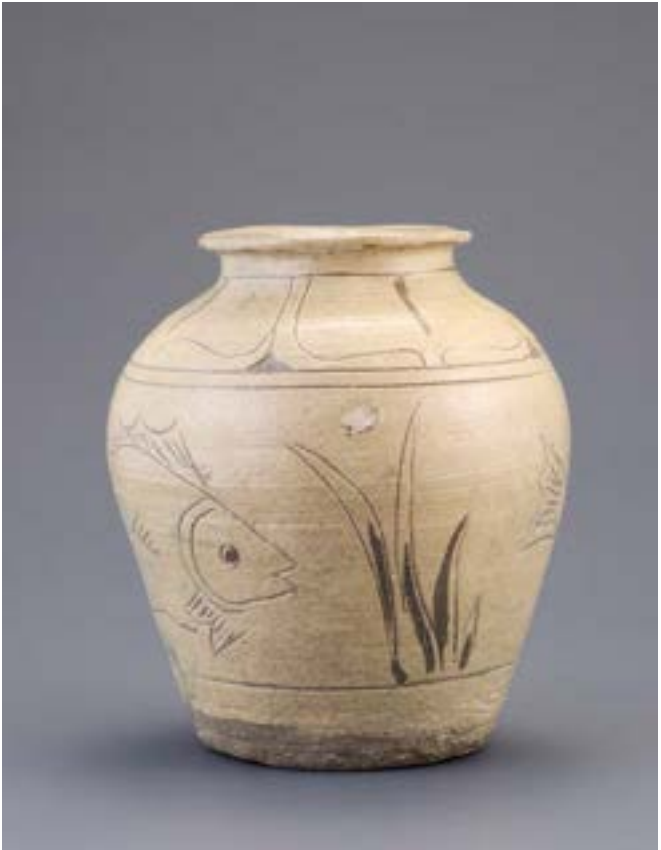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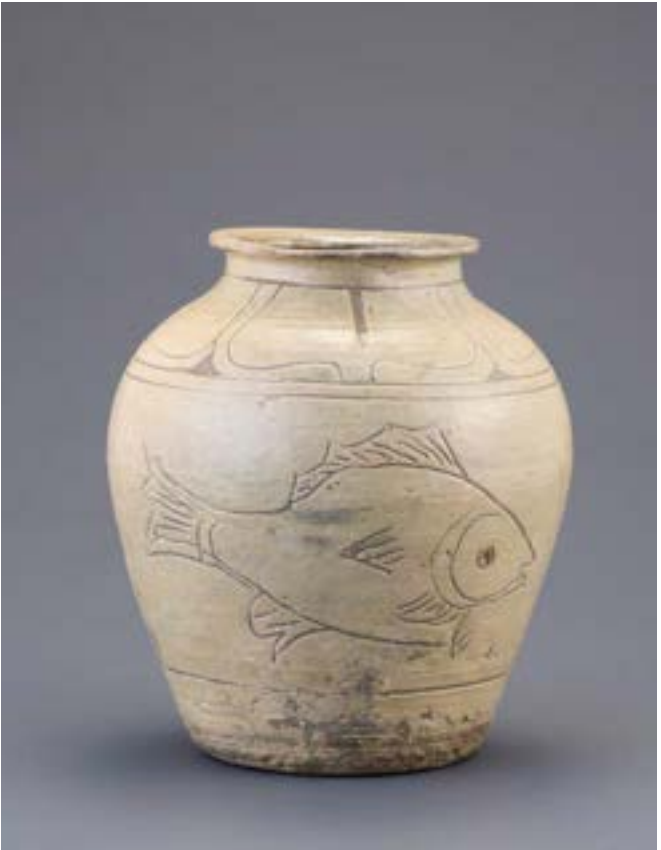
₩ 40,000,000-80,000,000

본 작품은 일반적인 입호보다 동체가 다소 낮아 안정감 있는 비례를 보인다. 구연부는 넓게 벌어져 끝이 평평하게 마감된다. 짧은 경부를 지나 동체로 이어지는 선은 전반적으로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룬다. 이와 유사한 형식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에서도 확인된다. [참고도판]

기면은 굽 일부와 저부를 제외하고 백토로 고르게 분장되었으며, 견부에는 연판문을 박지기법으로 시문하였다. 동체부에는 두 마리의 물고기와 수초를 배치해 연못 속 장면을 구성하였고, 음각선으로 윤곽을 잡은 뒤 물고기의 눈과 일부 수초에 철화를 더해 표현에 변화를 주었다. 선과 필치의 대비가 비교적 뚜렷하며, 화면 전반에 회화적인 분위기가 드러난다.



[참고도판]
<분청사기조화모란문호>, 高 24.2 口徑 11.7 底徑13,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056

청자철화사자형문진

靑磁鐵畫獅子形文鎮

Celadon Paperweight with Iron-Painted Decoration

高 12
5.8×8.2cm

₩ 80,000,000-150,000,000

사자 형상을 본뜬 청자 문진文鎮으로, 익살스러운 표정과 함께 네 다리를 단단히 디딘 채 앉아 보주를 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과장된 눈과 벌어진 입, 소용돌이치는 갈기 표현을 통해 생동감과 해학적인 인상을 전달하며, 크게 부풀린 흉부와 섬세하게 표현된 발톱, 뒤로 말린 꼬리 등에서 장식적인 조형감이 드러난다. 전면에는 은은한 비색의 청자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어 있다.

문진으로서의 실용적 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입체감 있는 조형 표현이 강조되어 전체적으로 안정된 형태감을 보여준다.



- [수록처]
1. 조선관요박물관, 『청자靑磁의 색형色形』, 2005.
 2. 포스코미술관, 『天機漏洩 高麗靑色』, 2024.



057

청자상감포도동자문표형주자

靑磁象嵌葡萄童子紋表形注子
Celadon Ewer with Inlaid Decoration

高 31.5
口徑 2.2
底徑 7.2

₩ 250,000,000-500,000,000

회화적인 문양 구성과 표현이 돋보이는 청자상감포도동자문표형주자이다. 길게 뻗은 주구와 유려하게 이어지는 동체, 포도넝쿨을 형상화한 손잡이가 어우러져 리듬감 있는 실루엣을 형성하며, 기형 자체에서도 높은 조형미를 보여준다.

구연부에서 동체 전면에 이르기까지 포도넝쿨이 풍성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넝쿨 사이로 해맑게 웃는 동자가 어우러진 구성은 화면에 생동감을 더한다. 포도잎은 백색으로 역상감하였고, 영근 포도는 백상감과 철화로 장식되어 입체감이 한층 부각된다.

곡선을 그리며 길게 뻗은 주구와 장식성이 두드러지는 손잡이는 기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시각적 긴장감을 형성하며, 전면에는 은은한 비색의 청자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장식성과 조형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작품이다.





058

청자철화역상감모란당초문합

靑磁鐵畫逆象嵌牡丹唐草紋盒

Celadon Lidded Box with Black-Inlaid and Reverse-Inlaid Decoration

高 18
口徑 23
底徑 16.2

₩ 200,000,000-400,000,000





원형의 합에 편평하고 낮은 뚜껑이 결합된 형태로, 안정된 비례 속에 묵직한 존재감이 드러난다. 개 중앙에는 여덟 개의 꽃잎을 지닌 화문이 크게 배치되고, 이를 둘러 모란당초문이 유기적으로 확장되며 기면을 빈틈없이 채운다. 흑상감으로 채워진 문양과 바탕을 파내는 역상감 기법이 병용되어, 어두운 문양과 밝은 기면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화려한 장식 효과를 강조한다.

굽이치는 줄기와 반복되는 잎사귀는 화면에 강한 리듬과 밀도를 부여하고, 개와 신의 측면에는 연판문대를 둘러 외곽을 정리하였다. 동체 전면에 이어지는 모란당초문의 흐름은 전체 구성을 하나로 묶으며, 장식성과 조형성이 조화를 이루는 완성도 높은 표현을 보여준다.



[참고도판]
 <청자철화모란당초문합>, 高 16.2, 最大徑 22.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3084).



059

청자양각모란당초문받침

靑磁陽刻牡丹唐草紋托

Celadon Stand with Relief Decoration

高 11.7
口徑 14.4
底徑 18.9

₩ 10,000,000-18,000,000



060

백자청화보상화문‘상실’명접시,
백자청화보상화문‘상실’명대접

白磁靑畫寶相花紋‘上室’銘接匙, 白磁靑畫寶相花紋‘上室’銘大楨
A Set of Two Blue and White Porcelain Dishes

접시_高 3.5	대접_高 8.5
口徑 13.5	口徑 19
底徑 7.4	底徑 8.5

₩ 35,000,000-70,000,000

눈에 띄는 보상화문寶相花紋을 청화로 시문한 백자 접시와 대 접이다. 외면에는 보상화 계열의 넝쿨무늬가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등글게 말린 화형과 뽀족하게 뽀은 잎 표현이 어우러져 장식적인 효과를 더한다. 필선은 비교적 자유롭고 간략한 편으로, 화면 전반에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한다.

각 기물의 저부에는 ‘上室’ 명문銘文이 확인된다. 유사한 형태의 청화백자에는 ‘雲峴’, ‘齊壽’ 등의 명문이 함께 나타나는 예가 알려져 있으며, 이들 명문은 궁중 공간 또는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건축·시설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상실’은 궁궐의 대전을 지칭하는 용어로 해석되며, 이러한 명문과 함께 시문된 보상화당초문은 동시기 청화백자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특징적인 유형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기형과 문양, 명문이 결합된 사례로서, 19세기 후반 궁중 관련 기물의 제작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Lot.081
여의두문경상
如意頭紋經床
Sutra Table with Ruyi-Head Design



[참고도판]

1. <백자청화보상화당초문상실명대접>, 高 9.8, 口徑 17.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덕수 1502).
2. <백자청화연당초문발>, 高 9.8, 口徑 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동원 1055).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磁靑畫雲龍紋壺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Cloud-and-Dragon Design

백자 기면 위에 청화로 펼쳐진 운룡문은 조선 후기 도자 장식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 주제이다. 유연하게 휘도는 용의 신체와 이를 감싸는 운문은 화면을 가득 채우며, 서로 얹히고 흐르는 선의 리듬 속에서 강한 생동감을 자아낸다. 때로는 여백을 가로지르듯, 때로는 구름 속에 몸을 숨긴 채 드러나는 용의 형상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하나의 회화적 장면을 구성한다.

백자청화운룡문호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의례 기물로, 백자로 제작된 기종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왕실의 연례와 제례에서 술을 담는 주준이나 꽃을 꽂는 화준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의례서와 의궤에까지 기록되어 그 상징성과 격을 보여준다. 운룡문은 사용 주체의 권위와 신성함을 드러내는 문양으로,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청화 안료의 농담과 필치의 속도감은 기면 위에 깊이와 공간감을 더하며, 절제된 백자의 바탕과 대비를 이루어 더욱 선명한 시각적 긴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운룡문의 표현은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동시에,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조형 감각과 회화성을 함께 반영한다. 절제된 기면 위에 펼쳐진 역동적인 구성은 조선 후기 도자에서 구현된 회화적 성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문헌]

1.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청화 푸른빛에 물들다』, 국립중앙박물관, 2014.
2. 구혜인, 「조선시대 주준(酒樽)용 백자용준(白磁龍樽)의 문양과 왕실 의례와의 관계」, 『미술사학보』48, 미술사학연구회, 2017.



061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磁靑畫雲龍紋壺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高 48
口徑 16
底徑 15.5

₩ 18,000,000-36,000,000



062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磁靑畫雲龍紋壺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高 35
口徑 14
底徑 13.4

₩ 40,000,000-80,000,000



063

백자투각파초문필통

白磁透刻芭蕉紋筆筒

White Porcelain Brush Holder with Openwork Decoration

高 9
口徑 9
底徑 8.5

₩ 45,000,000-80,000,000



Lot.032

표암 강세황
豹菴 姜世晃 Kang SeHwang

표암묵희
豹菴墨戲
Paintings and Calligraph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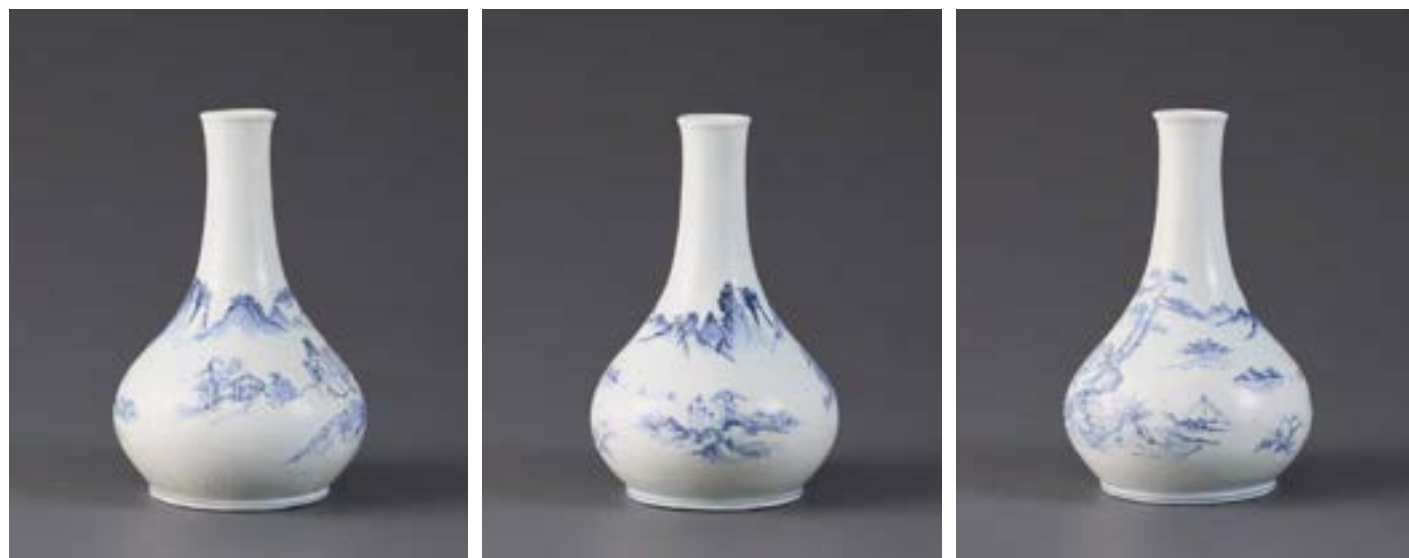
064

백자청화산수문병

白磁靑畫山水紋瓶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高 24.5
口徑 4.5
底徑 11.5

₩ 150,000,000-300,000,000



Lot.063

백자투각파초문필통
白磁透刻芭蕉紋筆筒
White Porcelain Brush Holder
with Openwork Decoration



Lot.049

백자화형연적
白磁花形硯滴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Lot.080

여의두문경상
如意頭紋經床
Sutra Table with Ruyi-Head Design



Lot.075

산형필가 2점
山形筆架二點
A Pair of Mountain-Shaped Brush Rests



066

백자청화철화금강산형연적

白磁靑畫鐵畫金剛山形硯滴
Blue and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with Iron-
Painted Decoration

高 11.5
底徑 7.5

₩ 30,000,000-50,000,000



067

분청사기철화당초문완

粉靑沙器鐵畫唐草紋碗

Buncheong Bowl with Iron-Painted Decoration

高 8.2
口徑 17.5
底徑 4.8

₩ 20,000,000-40,000,000



068

백자철화명기 3점

白磁鐵畫明器三點
A Set of Three White Porcelain Funerary Wares with Iron-Painted Decoration

인물_高 7.5
가마_高 5.5, 12.5×5.4cm

₩ 25,000,000-60,000,000

인물 두 점과 가마로 구성된 백자철화명기이다. 인물상은 머리에 가체를 올린 여인과 상투를 쓴 남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서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단순화된 형태 속에서도 얼굴 표정과 신체 표현에 생동감이 드러나며, 옷주름 등 세부 묘사에서도 비교적 정교한 조형 감각이 확인된다.

인물의 머리와 소매, 옷깃 등에는 철화 안료를 사용해 부분적으로 채색을 더했으며, 특징을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가마는 직선적인 구조 위에 측면을 구획하여 장식하였고, 윤곽선을 철화로 꾸몄다. 가마의 후면에는 철화로 매화가지의 시문한 점이 인상적이다.

가마는 평교자平轎子로 조선시대에 일정한 신분 이상의 인물이 사용하던 탈것이다. 이와 같은 명기 구성은 피장자의 신분과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조선시대 장례 풍습과 부장용 기물의 제작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도판]
<백자철채인물명기 일괄>, 인형_高 7.4, 가마_高 5.7, 6.1×14.9, 개인소장.



069

백자철화화당초문완

白磁鐵畫花唐草紋碗

White Porcelain Bowl with Iron-Painted Decoration

高 6.5
口徑 13
底徑 5.3

₩ 30,000,000-60,000,000

완만하게 벌어진 구연부와 유려하게 이어지는 동체가 만들어내는 곡선이 인상적인 소형 완이다. 단정한 기형 위에 철화로 시문된 문양이 내외면을 따라 유기적으로 전개되며, 전체 기면에 하나의 회화적 흐름을 형성한다.

내면 중앙에는 꽃잎이 크게 강조된 화문이 자리하고, 이를 둘러싼 작은 연판문이 안정감 있게 구성되어있다. 그 바깥으로는 꽃과 줄기가 엇갈리듯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둘러져있다. 반복되는 형식 속에서도 필선의 속도와 배치에 따라 생동감 있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외면 역시 구획된 공간 안에서 화당초문이 서로 얽히고 흐르며 이어지는데, 철사의 번짐과 농담이 더해지면서 회화적 효과를 드러낸다.

간결한 형태와 대비되는 풍부한 문양 표현이 특징적이며, 철화 장식이 지닌 회화적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굽바닥에는 모래받침을 사용한 소성 흔적이 확인된다.





070

백자철화명기 5점

白磁鐵畫明器五點
A Set of Five White Porcelain Funerary Wares
with Iron-Painted Decoration

인물_高 6 외
말_高 7 長 13

₩ 30,000,000-60,000,000



말과 네 점의 인물로 이루어진 백자철화명기이다. 말은 네 다리를 단단히 지탱한 채 정면을 향해 서 있으며, 단순화된 형태 속에서도 머리와 다리 부분에 철화로 세부를 더해 특징을 드러낸다. 인물상은 서로 다른 역할을 반영한 듯 각기 다른 자세와 표현을 보이며, 두 손을 모으거나 몸을 굽힌 형태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형태는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으나, 얼굴 표정과 복식의 일부에는 철화 안료를 더해 인물마다 특징이 드러나도록 장식하였다. 말과 인물이 함께 구성된 점은 부장용 명기의 성격을 잘 보여주며, 피장자의 위상과 함께 당시 장례 의례의 일면을 반영하는 사례로 이해된다.



071

분청사기덤병철화초문편병

粉靑沙器덤병鐵畫草紋扁瓶

Buncheong Flattened Bottle with Dipped Glaze and Iron-Painted Decoration

高 19.8
口徑 5.2
底徑 6.7

₩ 50,000,000-100,000,000

편평하게 늘린 동체에 짧은 경부, 외반된 구연부가 이어진 분청사기 편병으로, 전면에 덩 병 기법으로 백토를 입힌 뒤 철화로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동체 양쪽 면에는 굵은 철화 필선으로 초화문을 큼직하게 배치하였다. 줄기는 화면 중앙에서 부드럽게 휘어지며 뻗어나가고, 그 끝에는 잎과 꽃잎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문양은 세부를 치밀하게 묘사하기보다 빠르고 자유로운 필치 속에서 자연스러운 생동감이 드러난다.

초화문은 정형화된 장식이라기보다 기면 위에 즉흥적으로 그려낸 듯한 성격을 보이며,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이 분청사기 특유의 활달한 미감을 잘 보여준다. 둥글고 풍만한 동체와 직립한 굽이 안정된 비례를 이루며, 담백한 백토 분장 위에 더해진 철화 문양이 소박하면서도 회화적인 인상을 준다.





서수형토기

瑞獸形土器

Earthenware Vessel in the Shape of an Auspicious Beast

오리 모양 몸통의 등과 꼬리에 원통형의 주입구注入口와 주출구注出口가 있고, 몸통 속이 비어 있는 주기酒器로서 몸통은 오리 모양이나 머리는 가상의 새 또는 오리와 말을 합성해 놓은 것 같다. 앞으로 쪽 뺨은 주둥이에 입과 콧구멍이 표현되고, 눈과 귀를 동시에 표현한 둥근 귀가 있고, 머리에는 뺨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머리 형태는 4세기 중엽 이후 오리와 말 등 특정한 새와 동물 형태로 구체화되어 6세기까지 지속된다. 이처럼 말과 오리가 관념화된 서수형토기는 경주를 중심으로 낙동강 동쪽의 신라권역에서 제작되어 신라의 세력 확대와 함께 주변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 후 신라와 접경을 이루는 낙동강 서쪽의 가야지역에서도 가끔 출토되지만, 신라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이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신라권역에서 많이 출토된다. 따라서 이 서수형토기는 출현 할 때부터 신라의 제사와 의례에 사용되었던 제기祭器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수형토기가 주로 암수 한 쌍으로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함과 동시에, 무덤 주인공의 영혼을 태우고 승선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용인대학교박물관, 『토기: 그 질박한 역사의 여정』, 2014, p.14 발췌.



072

서수형토기

瑞獸形土器

Earthenware Vessel in the Shape of an Auspicious Beast

高 25.5
長 20.5
底徑 12.9

₩ 15,000,000-30,000,000

본 작품은 가는 모래가 약간 섞인 점토로 빚은 회청색 경질토기이다. 목을 곧게 뺀 서수형 토기로 두 귀에는 둥근 고리를 만들어 장식을 달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오른쪽 장식만 남아있다. 장식은 삼엽형 수하식으로 전형적인 5세기 중반 신라의 가는고리귀걸이 양식이다. 표면에는 황갈색의 자연유가 씌워져있다. 본 작품과 같이 장식성과 조형미가 뛰어난 서수형토기는 지배층의 제사나 의례에서 주기로 사용된 특수 용기로 5세기 경 신라 대형 고분에서 드물게 출토된다.



[수록처 및 참고문헌]
용인대학교박물관, 『토기: 그 질박한 역사의 여정』, 2014.



073

서수형토기 2점

瑞獸形土器二点
Two Earthenware Vessels in the Shape of Auspicious Beasts

高 14
長 21.7
底徑 9 외



₩ 20,000,000-40,000,000

서수형토기 2점이 일괄로 구성되어 출품되었다. 2점 모두 가는 모래가 약간 섞인 점토로 빚은 회청색의 경질토기이다. 이러한 서수형토기들은 5세기 중-후반의 신라 양식으로 역시 지배층의 제사나 의례 때 주기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죽은 이의 영혼을 태우고 승선한다는 의미에서 무덤에 부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록처 및 참고문헌]
용인대학교박물관, 『토기: 그 질박한 역사의 여정』, 2014.





PART 3

공예

工藝
CRAFTS

Lot.074 - 083

074

수복문안경집, 안경

壽福紋眼鏡盒, 眼鏡
Eyeglasses Case with Longevity and Fortune Design and Eyeglasses

나무에 조각, 복합재료 Carved Wood, Mixed Media
長 11.5

₩ 1,000,000-2,000,000



075

산형필가 2점

山形筆架二點
A Pair of Mountain-Shaped Brush Rests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4
長 12.8 외

₩ 2,500,000-5,000,000



076

화형반

花形盤
Flower-Shaped Tray

나무에 조각, 주칠 Carved Wood, Red Lacquer
高 6
31×31cm

₩ 3,000,000-6,000,000



Lot.052

백자청화모란문'수'명잔
白磁靑書牡丹紋'壽'銘盞
Blue and White Porcelain Cup



077

구족연상

狗足硯床

Inkstone Table with Dog-Shaped Legs

나무에 조각, 금속장식 Carved Wood with Metal Mounts

高 23

14×28cm

₩ 3,500,000-7,000,000





079

투각은입사장생문화로

透刻銀入絲長生紋火爐

Openwork Silver-Inlaid Brazier with Longevity Design

금속에 은입사 Metal with Silver Inlay
高 21.5
16×16cm

₩ 50,000,000-100,000,000



[수록처]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11 朝鮮王朝』, 小学館, 1999.



080

여의두문경상

如意頭紋經床
Sutra Table with Ruyi-Head Design

나무에 조각 Carved Wood
高 31
29×66.3cm

₩ 5,000,000-10,000,000



[서랍 하단의 목서]

081

여의두문경상

如意頭紋經床

Sutra Table with Ruyi-Head Design

나무에 조각, 금속장식 Carved Wood with Metal Mounts

高 40

31.5×100.5cm

₩ 85,000,000-150,000,000



082

나전주칠투각포도문경상

螺鈿朱漆透刻葡萄紋經床

Mother-of-Pearl Inlaid Sutra Table with Grape Vine Design

나무에 조각, 주칠, 나전장식

Carved Wood with Red Lacquer and Mother-of-Pearl Inlay

高 32.5

34.5×90.5cm

₩ 25,000,000-50,000,000





Lot.063

백자투각파초문필통
白磁透刻芭蕉紋筆筒
White Porcelain Brush Holder
with Openwork Decoration

Lot.049

백자화형연적
白磁花形硯滴
White Porcelain Water Dropper



083

삼층책장

三層冊櫃
Three-Tier Book Cabinet

나무에 주칠, 흑칠, 금속장식 Carved Wood with Red and Black Lacquer, Metal Mounts
高 172
55.5×118cm

₩ 100,000,000-200,000,000

책장의 내부에는 대나무 그림이 삼층에 걸쳐 그려져 있고, 문의 안쪽에는 모두 12폭의 도식이 붙어 있다. 짙은 푸른색의 종이는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2-1571)이 만든 <성학십도聖學十圖> 10폭으로 감지에 금니로 필사하였다. 최상층의 2폭은 <난정서蘭亭敘>에 나오는 왕응지(王凝之, 334-399)와 왕환지(王渙之, 335-396)에 관한 부분을 탁본으로 제작한 것이다.

성학십도聖學十圖는 68세의 퇴계 이황이 1568년에 17세의 선조에게 성군聖君이 되어 불쌍한 백성을 잘 보살펴 달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바쳤다. 퇴계는 이것을 자신의 마지막 임무로 삼아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은 천도天道的 근원에 대해서 5가지 이치, 심성心性의 근원에 대한 5가지의 인륜人倫을 밝힌 것이다.

- 제1. 태극도太極圖
- 제2. 서명도西銘圖
- 제3. 소학도小學圖
- 제4. 대학도大學圖
- 제5.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
- 제6. 심통성정도心通性情圖
- 제7. 인설도仁說圖
- 제8. 심학도心學圖
- 제9. 경재잠도敬齋箴圖
- 제10.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





제10도 속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



<난정서蘭亭敍> 中 왕응지王凝之 부분



<난정서蘭亭敍> 中 왕환지王渙之 부분



제1도 태극도太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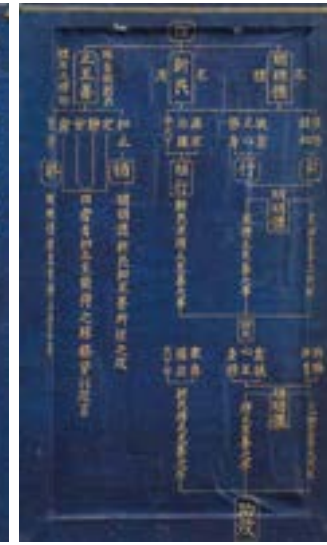
제6도 심통성정도心通性情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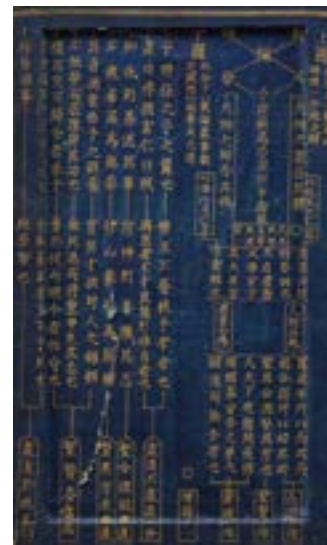
제3도 소학도小學圖



제5도 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



제4도 대학도大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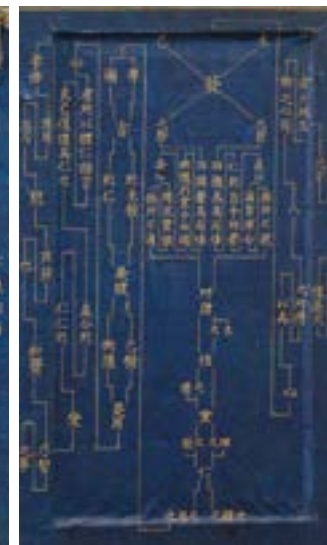
제2도 서명도西銘圖



제8도 심학도心學圖



제9도 경재잠도敬齋箴圖



제7도 인설도仁說圖

응찰등록신청서

BIDDING APPLICATION FORM

응찰방법 Bidding Method	<input type="checkbox"/> 현장 응찰 Open Bidding	<input type="checkbox"/> 서면 응찰 Bidding in Writing	경매회차 Auction Round	제	회	/	20	.	.
	<input type="checkbox"/> 전화 응찰 Telephone Bidding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응찰 Confidential Absentee Bidding		접수일 Date of Receipt	20	.	.		
소속 Company				응찰전화번호 Bid Phone Number					
성명 Name				연락처 Direct Number					
생년월일 Birth of Date				이메일 E-mail Address					
주소 Address				연락처 Direct Number	Membership No.				
생년월일 Birth of Date				이메일 E-mail Address	M F				
주소 Address				연락처 Direct Number					

No.	Lot No.	작가명 Artist	작품명 Title	응찰가격 Bid Price
1				
2				
3				
4				
5				
6				
7				

낙찰수수료 불포함 Buyer's Premium is not included

NOTICE

- 상기 경매 물품에 대하여 기재한 응찰가격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마이아트옥션이 응찰하는 것을 위임하며, 경매 참여에 대하여 ㈜마이아트옥션 경매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임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 공개(현장)응찰 또는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의 응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면, 공개(현장), 전화 응찰자 순위로 낙찰에 대한 우선권이 있고, 서면응찰이 동일한 가격으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본 응찰등록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분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 비공개 응찰은 경매일에 공개되므로 응찰자는 입찰 자격을 부여받은 후 입찰금액을 직접 작성하여 봉인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시가 된 해당 물품은 입찰 방식으로만 응찰하며 동일한 금액으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응찰 등록번호 순위로 낙찰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 경매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낙찰을 부득이하게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경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마이아트옥션이 서면 및 낙찰철회비용을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됩니다. 위약금과 별도로, 낙찰철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는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I delegate the bidding of the MYART Auction on behalf of myself to the bidding price described in the auction Lot. I agree that the auction participation is subject to the MYART Auction terms.
- If the bidding price is all the same by open (saleroom) bidding or writing and telephone bidding, there is a priority of winning bidding in the order of writing, open (saleroom), and telephone. If the bidding in writing competes at the same price, the person who first applied for the bidding registration has a priority.
- Since the confidential absentee bidding is disclosed on the auction date, the bidder must submit the bidding price directly after being granted the qualification for the bidding and submit it in a sealed state. ◆marked Lot is bid only by the bidding method. If it competes with the same price, there is a priority for the winning bid by the bidding registration number.
- Not with sta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uction, if the successful bidder inevitably withdraws the winning bid, the auction shall be made clear in absentee within 7 days from the auction date. Need to pay 30% of the hammer price for the penalty. Apart from the penalty, if the withdrawal of the winning bid causes damage, we can claim damages to the successful bidder. The auction will be canceled once the MYART Auction receives the absentee and winning withdrawal fee.

상기 응찰자 본인은 응찰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 없이 동의함과 동시에 위탁 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I, the bidder, listened to and understood the bidding and related terms from MYART Auction without objec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bidder will keep one copy of the Agreement each after signing the contract.

Date 20

신청인 _____ 서명
Name _____ Signature

접수자
Receptionist

회원가입 신청서

MEMBERSHIP APPLICATION

회원 Member	<input type="checkbox"/> 정회원 VIP Member	<input type="checkbox"/> 준회원 Regular Member	소속 Company
성명 Name			
생년월일 Birth of Date	M F		
주소 Address			
관심분야 Interest	<input type="checkbox"/> 고화 Korean Traditional Art	<input type="checkbox"/> 고서 Ceramic	<input type="checkbox"/> 도자기 Folk Art
정보수신 Receive Information	<input type="checkbox"/> 근현대 미술 Modern & Contemporary Art	<input type="checkbox"/> 해외 미술 Foreign Art	<input type="checkbox"/> 기타 () Other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세지(SMS)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수신거부 Unsubscribe		



마이아트옥션 회원가입 3가지 방법 MYART Auction membership three ways

01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www.myartauction.com]
Register through online at MYART website [www.myartauction.com]

02 회원가입 신청서를 절취 팩스로 접수 [F.02-373-5527]
Apply membership application form by stealing fax [F.02-373-5527]

03 당사 또는 프리뷰 전시장에서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Register at our company or at the preview showroom

국내 거주

연 회 비 KRW 100,000
은 행 명 농협은행
계 좌 번호 317-0009-8112-11
예 금 주 (주)마이아트옥션

OVERSEA RESIDENCE

Annual Fee KRW 200,000
Name of Bank NONGHYUP BANK
Account Number 452 0016 6793 01
Account Name MYART AUCTION
Swift Code NACFKRSE

*계좌 입금 후 마이아트옥션으로 연락 바랍니다.

정회원 VIP Member

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를 마치면 경매 도록과 함께 각종 정보를 제공 받게 되고 경매에 자유롭게 응찰하실 수 있으며, 수장고 이용료 및 감정수수료의 10% 할인 혜택도 부여됩니다.

Registering for membership and paying the annual fee will allow you to bid without limitation and get the auction's catalog with various information.

준회원 Regular Member

회원 가입을 마치면 경매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마이아트옥션 서비스의 이용 정도에 따라 경매 도록까지 제공 받으실 수 있으나, 경매 응찰은 제한됩니다.

Registering for membership and paying the annual fee will get various information and the auction's catalog depending on your service use. However, you will get a limitation on bidding.

마이아트 옥션의 경매약관을 정확히 읽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I clearly read MYART Auction's terms and conditions.

마이아트 옥션의 경매약관에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MYART Auction.

Date 20

신청인 _____ 서명
Name _____ Signature

접수자
Receptionist

주식회사 MYART AUCTION 경매약관

본 약관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마이아트옥션 오프라인 경매 및 매매계약은 아래 내용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경매 또는 계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본 약관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목적

본 경매 약관과 관련하여 경매도록 등에 포함된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주)마이아트옥션(이하 "마이아트옥션"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의 절차와 재판매가 준 관련자들의 권리·의무 단, 마이아트옥션과 위탁자간의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서 규율한다.

2 정의

2.1 "경매"라 함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를 의미한다.

2.2 "물품"이라 함은 경매 및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물품, 미술품, 창작물 등과 이음권, 교환권 등의 권리를 의미하고 "경매물품"이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출품되거나 경매 전 또는 후 세일, 상설 판매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한다.

2.3 "경매도록"이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와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이 발간하는, 마이아트옥션 경매에서 경매 될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명과 정보가 실린 도록(전자도록 포함)을 의미한다. "경매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리스트북, 브로셔, 컨디션리포트, 제안서, 리서치자료, 경매장의 스크린,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2.4 "경매일"이라 함은, 경매물품이 경매에 부착되는 일자를 의미한다.

2.5 "경매기간"이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가 실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2.6 "응찰자"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응찰하기 위하여 마이아트옥션에 응찰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마이아트 옥션이 그 신청을 접수했거나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서면 확인 인사를 수령한 사람을 의미한다.

2.7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을 말한다.

2.8 "낙찰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2.9 "낙찰절회비"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낙찰 비용을 포함함으로써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0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대리인이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환전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 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1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낙찰자가 마이아트옥 선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2.12 "위탁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옥션 경매 시작일 이전에 경매물품을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출 품하기 위하여 마이아트옥션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2.13 "추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이아트옥션에게 위임된 단독적 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2.14 "시작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이아트옥션과 경매사에게 위임 된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2.15 "낙찰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가격으로서,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 리고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2.16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2.17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 물품의 매도인과 마이아트옥션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마이아트옥션이 매도인인 경우) 마이아트옥션에 의해 결 정된, 경매물품의 최저매도가격을 의미한다.

2.18 "매도인"이라 함은, 경매 등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마이아트옥션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2.19 "개열회사"라 함은 마이아트옥션, 자회사 또는 마이아트옥션에 의해 지배되거나 마이아트옥션과 같은 지배 하 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3 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마이아트옥션

마이아트옥션이 매도인인 경매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위탁한 경매물품을 경매함에 있어 마이아트옥션 은 위탁자(즉,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경매물품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한다.

4 전시회

4.1 마이아트옥션은 경매에 출품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공중에 개방되고 무료이 다. 단,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전시회와의 입장 이전에 전시회 입장을 희망하는 자에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원확인요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4.2 마이아트옥션은 마이아트옥션의 홈페이지 또는 경매도록 등에 전시회의 장소, 일시 및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마이아트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회 의 장소, 일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관련 전시회에 전시된 경 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 응찰 등록

관련 경매기간의 시작일 이전에 마이아트옥션과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경매에 처음 응찰하는 응찰 희망자를 포함한 응찰 희망자는 관련 경매도록 등에 따라 위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 해당 응찰등록신청서와 이에 명시되어 있 는 서류 및 마이아트옥션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기타 보증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응찰 등록을 한다. 응찰 희망 자의 경매 참가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은 관련 경매도록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시된다. 마이아트옥 션은 경매 참가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등록 또 는 신청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등록 또는 신청과 관련한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및 그 대리인의 어 떠한 오류의 누락에 대해서도 마이아트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추정가

6.1 마이아트옥션은 당해 경매물품의 관련 경매기간에 각 경매물품에 대하여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를 한국원 화,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경매도록 등에 제공한다. 추정가는 공지 없이 각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판

매가 위탁자의 궁극적 이익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마이아트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추정가는 구매수수료 및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마이아트 옥션에 의해 제공된 추정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경매물품의 실가나 낙찰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마 이아트옥션은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6.2 경매도록 등에 한국원화,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표시된 추정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별도로 경 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응찰과 대금지급은 한국원화(KRW)에 의한다. 경매도록 에 표시된 추정가와 관련하여,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를 미국달러, 일본엔화로 환산하기 위해 이음된 환율이 관 련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다. 위 환율은 경매도록의 인쇄 이전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그 이후 변경되 었을 수 있다. 본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미국달러 또는 일본엔화 등으로 표시된 어떠한 금액도 한국원화 금액을 정확 히 반영한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위 금액이 특정한 환율로 계산된 경우의 한국원화 금액(또는 그 역)을 반영한 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응찰희망자는 정확한 환율을 계산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한다. 마이아트옥션은 한국원 화로 표시된 추정가의 미국달러, 일본엔화로의 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7.1 마이아트옥션은 홈페이지 그리고 경매 도록 등에 경매의 예정 일시 및 기간을 공지한다. 단, 당해 경매의 예정 시 작일 이전에 공지 없이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를 취소하거나 그 일시,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7.2 마이아트옥션과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참여자들의 권리보호 및 경매의 공정 성 확보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에의 출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 및 온라인응찰 등 각각의 응찰에 불문하고 어떠한 응찰도 거부할 수 있다.

7.3 모든 경매물품은 내정가에 구속되며, 내정가 미만의 응찰은 경매사에 의해 수락되지 않는다. 경매사는 내정가 를 공개하지 않는다. 각 경매물품의 내정가는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 당시의 낮은 추정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경매 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연속적인 호가 또는 각각의 응찰에 대한 응답으로 내정가 미만의 호가를 할 수 있다. 경매 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물품의 내정가 미만의 금액에서부터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내정가 이상으로 응찰하지 않는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입찰한 응찰을 공개 할 의무가 없다.

7.4 응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 규정에 따라, 각각의 응찰을 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절대적 재량으로 응 찰자의 입찰에 관한 담보로서 필요한 재정 조회, 보증, 예탁금 및 기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7.5 모든 응찰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이하 "응찰기록"이라 하고, 전산기록도 포함) 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을 함으로써 응찰기록되는 것에 동의하며, 응찰의 유효성 등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마이아트 옥션이 보관하는 응찰기록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기록으로서 그 해결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에 동의한다.

7.6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7.6.1 공개응찰의 경우, 응찰자는 경매사의 응찰 초청 후 자신의 패들을 들어 응찰의 의사를 표시한다.

7.6.2 서면응찰의 경우, 경매사는 공개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수령하기 이전에 서면응찰에 의한 응찰을 공개한다.

7.6.3 전화응찰의 경우, 마이아트옥션의 직원은 응찰자를 대리하여 경매장에서 응찰한다.

7.6.4 온라인응찰의 경우 오프라인 경매의 호가단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이아트옥션 온라인경매약관이 적 용된다.

7.6.5 동일한 응찰자가 동일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응찰하 며 연속된 호가로 응찰하는 경우 응찰자는 그 응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마이아트옥션과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동일한 응찰자로부터의 연속된 호가의 응찰을 거절할 수 있다.

7.6.6 공개가 응찰의 경우, 최고가에 낙찰되는 입찰 방식이며, 응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봉인 상태로 응찰하고 경매사 가 경매장에서 개찰한다.

7.7 경매물품에 관하여, 마이아트옥션은 각각의 응찰을 수령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각각의 응찰의 불시행, 수령 지연, 전산 장애, 전산 지연, 전송망의 속도 차이 또는 위 각각의 응찰의 수령과 관련한 마이아트 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마이아트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8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각각의 응찰이 마이아트옥션에 수령된 경우, 마이아트옥션 은 위 각각의 응찰이 실시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각각의 응찰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각각의 응찰 과 관련한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오류 또는 누락 에 대해서도 마이아트옥션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9 경매물품에 관하여, 만약 서면응찰과 공개응찰 또는 서면응찰과 전화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 서면응찰자 에게 낙찰된다. 만약 서면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 해당 경매물품은 마이아트옥션이 먼저 수령한 서면응찰자 에게 낙찰된다. 마이아트옥션과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동일한 응찰가가 있는 경우 제 7.11조에 의하여 최고가 응찰이 수락되기 전까지 그 우선순위를 고지할 수 있고, 다음 호가를 수령할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7.10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 예정된 경매일 이전 어느 때나 사전 공지 없이 경매물품의 경매를 철회;
- 사전 공지 없이 둘 이상의 경매물품을 일괄하여 경매;
- 경매기간동안 경매에 부착됐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같은 경매기간 중에 사전 공지 없이 재개;
- 응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찰의 유효성에 대하여 응찰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낙 찰자를 결정, 응찰 절차를 진행, 경매를 취소 또는 경매물품을 재경매.
- 물품의 진위여부 또는 경매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마이아트옥션의 단독 판단에 의해 때 뿐 이 발생할 수 있어 있는 경우, 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거나 응찰 절차를 중단 또는 경매를 취소.

경매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제7.10조에 따른 마이아트옥션의 조치와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본 제 7.10조에 따라 응찰 절차가 중단되거나 경매가 취소된 경우, 마이아트옥션 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낙찰자가 구매가를 기지급한 경우). 마이아트옥션이나 매도인은 이 의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한, 간접적인 또는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은 이의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7.11 제7.2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낙찰자 간의 경매물품의 매매는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하여 최고가 응찰을 수락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 경매물품의 낙찰자는 (낙찰 자가 공개응찰을 하고 낙찰일 당일에 경매장소에 있는 경우) 낙찰일예,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지 않았거나 낙찰일 에 경매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낙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확인서에 서명한다. 다만 경 매 물품의 낙찰자가 낙찰확인서를 직접 또는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받았음에도 그에 대 하여 즉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낙찰확인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7.12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i)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및

(ii) 낙찰자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찰자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 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금을 마이아트옥션이 하 자 없이 안전하게 변제받지 않은 이상, 경매물품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7.13 제7.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신의 출품작에 대하여 작·간접적인 응찰을 할 수 없다.

8 홍보물

마이아트옥션은 모든 경매물품에 대해 경매도록 등에 관련된 이미지 및 정보 등을 게재하는 등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마이아트옥션에 의해 또는 마이아트옥션을 위하여 생성된 경매도록의 내용을 포함하 여 경매물품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서면에 대한 저작권은 마이아트옥션에게 있다. 이는 마이아 트옥션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낙찰자 또는 다른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없다. 마이아트옥션이나 매도인은 모 두 경매물품의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과 관련된 저작권 또는 다른 복제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9 구매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9.1 경매물품과 관련된 구매수수료는: 구매수수료는 낙찰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마 이아트옥션은 경매 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 홈페이지, 경매도록 등에 사전 고지 후 변경된 구매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9.2 구매수수료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9.3 위탁수수료는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서가 별도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위탁수 수수료로는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10%(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 동의 한 것으로 본다.

9.4 당사자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제세금(이하 "제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실 및 마이아트옥션이 제세금을 환원징수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다만, 제 세금의 최종적인 납부무는 위탁자와 낙찰자 등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그 납부무의 준보 및 범위를 확인하고 그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9.5 경매물품의 낙찰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위탁자와 낙찰자 등 당사 자에게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응찰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응찰 전까지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낙찰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0 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10.1 마이아트옥션은 낙찰받은 물품의 목록,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해 야 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모든 낙찰자비용을 기재한 송장용 경매물품의 낙찰일 또는 그 낙찰일로 부터 최대한 가능한 시기에 낙찰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한다.

10.2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 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다음 각호를 지급한다. 물품의 소유권은 마이아트옥션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전액 을 수령하는 때까지는 이전되지 않는다. 10.2.1 송장에 기재된 총대금; 및

10.2.2 송장이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단 구매가의 30%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이아트옥션에 위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마이아트옥션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불산입)부터 연체대금 및 가 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산입)까지 월 2%의 지연이자(가산된다. 다만, 마이아트옥션의 재량에 의하여 지연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는 관련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10.3 낙찰자와 마이아트옥션 사이에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i) 해당 경매물품 관련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구매가 및 낙찰자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ii)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을 낙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않는다.

10.4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만약 마이아트옥션이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경매물품의 낙찰일 로부터 7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금액을 낙찰자로부터 완납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와 마이아트옥션 사이에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0.4.1 경매의 취소 및 마이아트옥션의 지급요구 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낙찰절회비를 낙찰자에게 청구;

10.4.2 해당 경매물품을 다른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회부;

10.4.3 위탁자의 낙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

10.4.4 기타 마이아트옥션이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조치.

상기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마이아트옥션의 다른 권리나 규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5 낙찰자는 당해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10.5.1 마이아트옥션에게 서면으로 의한 경매취소서의 의사표시; 그리고

10.5.2 마이아트옥션에게 낙찰절회비용을 지급.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이 위 서면 및 낙찰절회비용을 수령하는 즉 시 경매는 취소된다.

10.6 마이아트옥션과 응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마이아트옥션은 제10.6조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경매물품을 인도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 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경매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마이아트옥션은 경매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10.6.1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을 마이아트옥션이 하지없이 완납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10.6.2 마이아트옥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수인의 신원확인 증명 및 (권한있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 이 없는 경우.

10.7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 가 매수한 경매물품의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의 기입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유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옥션 은 위 포장 및 인도 기간동안 발생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8 마이아트옥션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도과되는 날까지 경매물품을 무료로 보관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경매물품은 위 기간이 도과된 이후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마이아트 옥션이 보관한다.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제 10.6조에 따라 마이아트옥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마이아트옥션이 경매물품의 인수를 거 절한 경우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경매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매 경매물품마다 위 기간 이 도과된 날로부터 인수를 때까지 보관비용(운송료, 보험료 포함)을 부담하며, 이 때의 보관비용은 마이아트옥션이 운영하고 있는 보관을 위한 창고의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10.9 낙찰자에 의해 취소되어야 할 경매물품이 당해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낙 찰자 또는 그 권한있는 대리인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당해 경매물품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손 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1 수출/수입 허가증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반입에 필요한 면허 및 허가 (이하 "허가"라 한다)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낙 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에게 필요한 허가 취득과 관 련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운송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천과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 발급 거부 및 지연은 낙찰자에 의한 매수 취소 또는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 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지연 의 정당함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응찰자는 이 점 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이해하여야 한다.

12 경매 전, 경매 후 세일

12.1 관련 경매에서 최고응찰가가 내정가에 이르지 않아 경매물품이 유찰된 경우 (이하 "경매후 경매물품"이라 한 다.), 마이아트옥션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1.1 위 경매후 경매물품에 대하여 내정가의 구축을 받는 응찰의 접수; 그리고

12.1.2 제12조에 따른 최고가 응찰자의 응찰 수락

단,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관련 응찰자가 제12.2조에 의해 제공한 서류가 충분 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응찰도 수락할 의무가 없다. 12.2 경매후 경매물품에 관하여 응찰 시, 응찰자는 마이아트옥션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보증서류를 마이아트옥션이 위 요구 시 정한 기간 이내에 마이아트옥션에 제공 한다.

12.3 경매후 경매물품의 경매는, 마이아트옥션이 위 응찰자의 응찰에 대한 수락을 통지하는 송장에 기재된 일자에 성립한다. 그 송장은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및 위 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부담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모든 낙찰자비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12.4 본 경매약관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마이아트옥션), 제6조(추정가), 제7조(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제8조(송보료), 제9조(구매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제10조(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제11조(수출/수입 허가증), 제13조(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제14조(제한보증), 제 15조(제한책임), 제16조(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제17조(정보보호관련), 제19조(기타), 제20조(관할권과 준거법) 및 경매도록 등의 관련 조항은, 본 제12조에 따른 경매후 경매물품의 경매에 준용된다.

12.5 마이아트옥션은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물품에 대하여 상설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매 전 또는 경매 후 세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13.1 응찰자는 모든 경매도록에 표시된 그리고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대리인, 피용인 및 매도인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제공된 경매물품에 대한 작가, 제목, 소재, 크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진술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 고 의견에 대한 진술인란 점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묵시적, 구경적·감수적분을 불문하고 모든 진술, 보증, 조건, 보증과 명시는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는 소유권, 처분권, 분쟁 없는 권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 전파가 능하거나 충분한 품질, 목적부합성, 성상, 크기, 품질, 속성, 진품, 소재, 계보 또는 위 경매물품이 저작권에 의한 제한 을 받는지,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 다).

13.2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 경매장소에 참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물품은 위 경매 물품의 경매 시간에 "있는 그대로" 출품된다. 경매도록 등에 때때로 경매물품의 특정한 훼손이나 결함에 대한 설명 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설명의 부재가 해당 경매물품에 훼손이나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훼손, 복원을 포함한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 고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 마이아트옥션은 응찰자가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확인 하였다는 전체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한다. 마이아트옥션은 그 사유와 무관하게 프레임 및 액자의 파손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3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사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은 명백하고 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응찰자 또 는 낙찰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3.1 사유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 리인 및 매도인이 제공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관한 오류나 정보의 누락 등

13.3.2 사유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 및 매도인에 의한 경매의 실시 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14 제한보증

14.1 마이아트옥션은, 경매물품에 대하여 경매도록 첫 출애 굵게 검은색으로 인쇄된 표제사항 (이하 "표제 사항"이 라 한다) (관련 경매기간동안 경매장에 전시되는 판매실 공지 사항에 따라 수정되는 대로)에 대하여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을 기준으로, 위 사항이 진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하 "제한보증"이라 한다). 다만 마이아트옥션 은 일부 표제 사항에 대하여는 경매도록 및 경매도록 등에 사전 고지 후 보증을 제한할 수 있다.

14.2 낙찰자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제14조에 따라 (이하에서 정의된) 청구서면을 마이아트옥션 에 제시하지 않은 이상, 마이아트옥션은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하 "보증 기간"이 라 한다).

14.3 제14.2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제한보증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지 원하는 낙찰자는 (i) 제한보증의 잠재적/현실적 위반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물품의 낙찰일, 경매 번호와 청구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이하 "청구 서면"이라 한다)을 마이아트옥션에 제시하고,

- (ii) 경매물품의 판매 당시와 같은 상태로 위 경매물품을 마이아트옥션에게 반환해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4.4 낙찰자와 마이아트옥션 사이에 제한보증에 근거한 낙찰자의 청구 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낙찰자에 의해 제공된 서면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시의 비용으로 다른 전문가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4.5 낙찰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4.5.1 낙찰일 당시에 관련 표제사항이 학자 또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경우;

14.5.2 관련 표제사항에 대하여 학자 또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매도록 또는 경매장 전시된 판매실 공지에 표시된 경우; 또는

14.5.3 경매도록의 출판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 또는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이나 경매물품에 훼손을 가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보증 위반이 증명되는 경우.

14.6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취소하고, 낙찰자에게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를 환불한다.

14.7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경매의 취소 및 위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8 낙찰자는 제한보증으로 부여받은 이익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송정당 표시된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제한보증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위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경매물품과 관련된 이익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경매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9 위탁자를 대신하여 마이아트옥션이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책임을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즉시 마이아트옥션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마이아트옥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10 마이아트옥션이 경매 물품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낙찰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이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이를 보증한다. 마이아트옥션은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 또는 감정서의 진위 또는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5 제한 책임

15.1 상기 제13조 및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및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해당 경매물품의 구매가를 상한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마이아트옥션이나 매도인은 모두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5.2 본 경매약관의 어떠한 사항도 마이아트옥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의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한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사망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하여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지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6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16.1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경매약관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30일 이전까지 공지하고, 경매도록 등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6.2 마이아트옥션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경매도록 등을 포함한 경매도록 상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변경 사항은 관련 경매기간동안 마이아트옥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17 정보 보호 관련

17.1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경매에서의 응찰 및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될 수 있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본 경매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개인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모든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i) 마이아트옥션 사업의 관리와 경영 및 마이아트옥션 서비스의 홍보와 제공에 관한 모든 문제

(ii) 대한민국 안팎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전

(iii) 모든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목적.

17.2 모든 개인 정보, 고객정보, 경매물품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로 보유되며, 위탁자, 응찰희망자, 응찰자, 낙찰자, 기타 대리인 등은 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에 존재하는지를 묻문하고, 다음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 또는 그에 의하여 관련된 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

(i) 마이아트옥션, 마이아트옥션의 계열회사 및 그룹

(ii) 마이아트옥션 및 계열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이아트옥션 및 계열회사의 모든 관리자, 직원 또는 피용인;

(iii) 모든 대리인, 계약자, 제3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행정, 통신, 컴퓨터, 보형, 운송, 또는 그룹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그룹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iv) 신용조사기관 및 기한이익의 상실 시 미수금회수기관;

(v) 그룹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타 사람

(vi)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룹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람.

17.3 일반적으로, 특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다음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17.3 (i)조 와 제17.3 (ii)조의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그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i) 개인 정보의 입수 청구;

(ii) 개인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iii) 정보 입수 또는 정정이 거부되거나 40일 이내에 제공/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의 제공.

17.4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개인 정보의 입수, 정정, 혹은 마이아트옥션의 정보 보호 정책과 실제 및 마이아트옥션이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문의를 제18.7조에 따라 할 수 있다. 마이아트옥션은 정보 입수 청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17.5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위 법인이 정보수집 및 정보주체에 게 통지한 목적 또는 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마이아트옥션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위 법인이 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위 법인은 관련 응찰등록신청서에 서명날

인함으로:

(i)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통지를 불문하고, 마이아트옥션이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 정보가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ii) 위 법인이 상기 (i)에 규정된 통지를 불이행함으로써 마이아트옥션에 초래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18 기타

18.1 다음의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해당 시점까지 마이아트옥션의 관리하에 있는 위탁자와 낙찰자의 물품을 점유할 수 있다.

18.1.1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시점까지

18.1.2 경매물품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마이아트옥션이 인지하게 되거나 잔금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까지

18.1.3 마이아트옥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고객 확인 및 등록절차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18.1.4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정부 조사로 인해 해당 물품을 마이아트옥션이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시점까지, 이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해당 위탁자 또는 낙찰자에게 보관료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제3자 또는 마이아트옥션 창고로 물품을 이동시키고 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18.2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에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마이아트옥션은 마이아트옥션이 보유중인 위탁자 혹은 낙찰자의 물품을 마이아트옥션의 판단 하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18.3 위탁자 또는 낙찰자는 마이아트옥션 또는 계열회사가 위탁자 또는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18.3.1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마이아트옥션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불

18.3.2 위탁자 또는 낙찰자를 대신하여 계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불

18.4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한국원화(KRW)에 의한다. 만약 낙찰자가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마이아트옥션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마이아트옥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마이아트옥션 이 자신에게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이아트옥션과 낙찰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낙찰자는 은행수수료 및 경비를 포함하여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환전은 지급일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한국원화 환율에 의하며, 위 환율과 관련한 마이아트옥션의 증명은 최종적이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이아트옥션은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8.5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표, 은행계정송금을 포함하는 현금과 동등한 방식에 의해 하지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지급은 본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른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

18.6 만약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의 일부가 법원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경매도록 등의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18.7 모든 공지, 요청, 청구, 요구 및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른 마이아트옥션에 대한 통신은 한글 또는 영문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접수확인서가 첨부된 팩스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 마이아트옥션으로부터 답신을 받은 이메일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로 다음의 주소로 행해진다 (그리고 도달로 인해 행해졌다 고 간주된다).

마이아트옥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5,6층 601호 (관훈동,충훈빌딩)

전화번호: 02) 735 1110

팩스: 02) 737 5527

이메일: myart@myartauction.com

응찰자 및 낙찰자 등 관련자에 대한 통지는 관련 등록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거나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한다. 관련자는 주소 및 연락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마이아트옥션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기로 한다. 만약 관련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마이아트옥션의 통지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이아트옥션의 통지가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8.8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언급된 일시, 기간 및 본 경매약관이나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체 될 수 있는 일시와 기간에 관하여, 시간은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18.9 마이아트옥션의 또는 마이아트옥션을 위한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 상의 어떠한 권리 포기도 반대당사자의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의한 나머지 의무의 완전이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마이아트옥션이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 등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 불행사, 지연행사 하거나 마이아트옥션이 반대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이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 등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침해, 또는 제한하지 않으며, 마이아트옥션이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후속 또는 연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18.10 본 경매약관에 따라 개정된,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은 전체 계약 및 법에 내포되고 계약에 의해 배제 될 수 있는 조항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구성하며,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사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체한다.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또는 보증에 의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동의하도록 강제되지 않았음이 합의되었다.

18.11 국문, 영문, 중문 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한다.

19 관할권과 준거법

본 경매약관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이 있다. 모든 당사자는 재판의 송달절차 또는 다른 법원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서류에 대하여 팩스, 인편, 우편, 또는 대한민국법에 의해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마이아트옥션에 통지된 당사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기타 통상적인 주소로의 송달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다.

부 칙

본 개정 약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MYART AUCTION

경매 출품 안내

제61회 마이아트옥션 경매에 출품할 소중한 작품의 위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매일정	2026년 9월
작품위탁일정	2026년 6-7월
출품방법	
Homepage	www.myartauction.com
E-mail	myart@myartauction.com 을 통한 사진 자료 송부
우편	03146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6F (주) 마이아트옥션으로 사진 송부
Tel	02-735-1110 (대), 735-9938을 통한 상담
Fax	02-737-5527

* 고객님의서 편리하신 방법으로 작품 사진(jpg 파일 또는 인화사진)과 작품정보, 출품희망가,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를 보내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작품 위탁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MAINSTAY ART AUCTION

03146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5F, B1 03146 5F, B1 62-5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

Tel +82 2 735 9938 Fax +82 2 737 5527 Homepage www.myartauction.com E-mail myart@myartauction.com